

성북구 항일 독립운동가 등
발굴 · 조사 용역 보고서

2016.12.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북구 항일독립운동가 등 발굴 · 조사용역

2016.12.

 sb 성북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조사용역의 목적과 추진	1
II. 성북구의 인문·지리적 배경	3
III. 성북구에서의 독립운동	10
IV. 성북구인의 국내 독립운동	18
V. 성북구인의 국외 독립운동	27
VI. 성북구의 동별 독립운동가	33
VII. 발굴·조사 용역의 성과와 활용 방안	145
VIII. 성북구의 인명별 독립운동가 표	150

I. 조사용역의 목적과 추진

1. 조사용역의 목적

- 가. 성북구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한용운을 떠올리지만 성북구 이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성북구를 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동네인 '성북동'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이라기보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자본가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성북구의 독립운동 관련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 나.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은 3·1운동 발생 100주년이 된다.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성북구 출신으로 3·1운동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을 발굴한 후 관계 기관인 국가보훈처에 공적심사를 신청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Glocal 역사학의 시대에 맞추어 성북구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소개함으로써 '성북구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의 소재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 라. 성북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신문 기고, 강연, 화보집 발간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것이다.
- 마. 성북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소개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북구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조사용역의 대상

- 가. 조사용역의 대상은 시기적으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성북구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성북구 출신의 사람이 벌인 독립운동을 조사·발굴한다.
- 나. 조사용역의 공간적 대상은 성북구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성북구 출신의 인물이 국내와 중국 관내와 만주 등지에서 전개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포함한다.

3. 조사용역의 기간

조사용역의 기간은 2016년 8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로 한다.

4. 조사용역의 구성원

가. 연구진의 구성

이름	연구의 책임	소속	지위
조규태	연구책임자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오병한	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사
유상수	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백외준	연구원	성북문화원	연구원
권영수	보조연구원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생

나. 연구진의 권역별 조사·연구 담당자

권역	담당	지역명
1권역	조규태, 유상수	성북동, 돈암동, 동선동, 삼선동, 보문동
2권역	백외준	정릉동, 길음동
3권역	오병한	안암동,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다. 연구진의 동별 조사·연구 임무

이름	연구의 책임
조규태	성북구의 독립운동과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작성하였다. 각 개별 연구자들이 진행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오병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자료관,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국가기록원 등에서 성북구 및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유상수	기존 연구와 독립유공자공훈록 등에서 성북구의 독립운동 및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동별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백외준	성북구의 독립운동에 관한 인문·지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 성북구의 인구, 교통로, 통치시설, 학교 등을 조사하였다.
권영수	일제강점기 성북구에서의 독립운동과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표를 작성하였다.

II. 성북구의 인문·지리적 배경

1. 성북구 지역의 동·리·정

가. 일제강점 초기 행정구역 개편과 성북지역의 고양군 편입

1914년 4월 1일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조선시대 이래 성저십리(城底十里)로 불리면서 동부(東部)의 송신방 또는 인창방에 속해있던 성북 지역이 처음으로 수도의 관할에서 벗어나 고양군의 송인면으로 편입되었다. 송인면은 종전의 송신면(崇信面)과 인창면(仁昌面) 중에서 한지면에 속하게 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다. 마을의 명칭은 동(洞)에서 리(里)로 변경되었는데 송인면을 이루게 된 동리는 모두 22개로 지금의 성북구에 해당하는 마을은 밑줄을 친 리이다.

성북리·신설리(일부 현 보문동)·안암리·종암리·미아리(일부 현 길음동)·돈암리·정릉리·번리·수유리·우이리(이상 종래 송인면에 속한 10개 동리) 답십리·전농리·청량리·회기리·휘경리·이문리·장위리·석관리·상월곡리·하월곡리·제기리·용두리(이상 종래 인창면에 속한 12개 동리)

위의 22개 리 중에서 지금의 성북구에 속하는 리(里)는 성북리, 신설리(일부: 현 보문동), 안암리, 종암리, 돈암리, 미아리(일부), 정릉리, 장위리, 석관리, 상월곡리, 하월곡리였다.

나. 경성부 구역 확장으로 인한 송인면 일부 경성부 편입

1936년 4월 1일 경성부가 종전 36.18㎢에서 약 3.7배에 달하는 136㎢로 확장되면서 송인면의 대부분의 마을은 경성부 동부출장소(청사는 송인면사무소가 있었던 신설리 87번지)에 소속되고 리(里)는 정(町)으로 개칭되었다.¹⁾ 현재의 성북구 지역에 속하였던 일제강점기 동대문구 소속 정은 아래의 돈암정, 성북정, 신설정(일부), 안암정이었다.

돈암정·성북정·창신정·송인정·신설정(일부: 현 보문동)·안암정·제기정·청량리정·회기정·이문정·휘경정·전농정·답십리정·사근정·마장정·행당정·응봉정·금호정·하왕십리정·상왕십리정·신당정·옥수정

한편 1936년 이후에도 고양군 송인면으로 남게 된 성북구의 동리는 다음과 같이 정릉리, 미아리(일부), 장위리, 석관리, 상월곡리, 하월곡리였다.

정릉리·미아리(일부)·장위리·석관리·번리·우이리·수유리·상월곡리·하월곡리

1) 송인면에서 같은 날짜로 경성부에 편입된 성북정은 이때 동부출장소 관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본청 관할이 되었고 1943년 구제를 실시할 때에는 종로구에 속하게 된다.

다. 구제(區制)의 실시

1943년 6월 10일 경성부에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의 7개구가 설치되면서 동부출장소에 속하였던 송인면 관내의 돈암정·성북정·안암정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2. 성북구의 인구

1930년대 시구개발사업, 학교의 이전과 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돈암동, 성북동, 안암동, 정릉동, 보문동(신설동) 등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체로 가난한 농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던 성북 지역은 1930년대에 이르러 도시 노동자와 학생들의 대거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도시의 경관을 갖추어 나갔다.

이에 따라 도로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버스가 운행되었다. 1928년 4월 경성부에 시내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겨우 10대의 차량이 시내 중심부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였는데, 1935~1936년에 성북구에 버스가 운행되었다. 1930년대 후반 성북 지역을 운행하였던 버스별 노선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39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는 대로(大路)는 5개였으므로, 대체로 이 노선을 따라 운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번호	도로폭	연장	기점-경유지-종점
5	25m	3,050m	신설동-돈암동
6	25m	4,800m	원남동-돈암동-종암동
7	25m	1,140m	신설동-안암동광장-제기동
8	25m	1,890m	안암동광장-용두동-하왕십리동
10	25m	2,000m	제기동-종암동지내 시경계

<1939년 성북구 지역의 도로망> ※ 『성북구지』(1993), 557쪽 참조.

전차도 운행되어 돈암동에서 출발하여 삼선동, 창경원, 원서동을 거쳐 종로4가에서 본선과 만났다. 경성전기주식회사가 1937년 11월 중순 계획을 발표하고, 1938년 3월부터 부설공사가 시작되어 3년 후인 1941년 7월 12일 혜화동-돈암동간 전차노선 노선이 개통되었다.

1930년 성북구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으며,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성북구 지역 등의 인구 변화>

연도 지역	1915	1930	1949
성북동	810	1,666	13,372
돈암동 (동소문·삼선·동천동 포함)	1,138	2,462	62,685
안암동	345	1,817	17,664
보문동	-	-	17,510
정릉동	-	1,391	17,622
길음동	-	-	-
종암동	-	649	6,400
월곡동	-	621	8,251
장위동	-	1,679	5,880
석관동	-	551	
계	2,293	10,340	149,384

표 5 <성북 지역의 연대별 인구 집적 추이> ※ 『성북구지』(1993), 339쪽 참조.

<성북구 지역 송인면 관내 리의 호구수 및 인구>(1933년 12월말 현재)

里別 호구수 및 인구현황								
里	한국인		외국인				계	
			일본인		기타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성북리	585	3,146	3	9	1	1	589	3,156
신설리	1,404	6,301	39	153	2	7	1,445	6,461
안암리	509	2,307	6	22	-	-	515	2,329
종암리	132	718	5	16	-	-	137	734
돈암리	832	4,085	24	84	5	30	861	4,199
정릉리	307	1,520	1	4	3	14	311	1,538
장위리	300	1,657	-	-	-	-	300	1,657
석관리	111	625	2	9			113	634
상월곡리	52	264	2	9	-	-	113	634
하월곡리	72	440	7	35	-	-	79	475
계	4,232	20,623	82	306	11	52	4,384	21,342

3. 성북구 및 인근 지역의 학교와 학생

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이전

1930년대 전반기까지 성북구 지역의 학교 설립은 실로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그 양상이 달라졌다. 굴직한 조선인 대상 고등교육기관들이 성북 지역으로 이전해 온 것이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가 이전 개교하였고, 1939년에는 경성고등상업학교(훗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가

종암동으로 이전 개교하였다.

보성전문학교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1922년부터 송현동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932년 인촌 김성수가 재단을 인수한 후 1934년 안암동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37년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제반 시설을 갖추어 민족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동시에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되었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종로구 명륜동에서 현재 종암동 19번지 자리에 새 교사를 건설하여 1939년에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70년대 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같은 자리에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대신하여 들어서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은 3층짜리 교사와 강당이 아직도 남아 있다.

나. '학도촌'의 배후지로서 성북동과 돈암동

1920년대 중반부터 성북동과 돈암동에 인접한 동송동, 혜화동, 명륜동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26년 동송동에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연건동), 경성고등공업학교(1916, 동송동), 보성고등보통학교(1929, 혜화동), 중앙불교전문학교(1922, 명륜동), 동성상업학교(1929, 혜화동)와 같은 중·고등교육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 학교는 모두 조선인 대상 학교였다. 1930년대 초반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이 표현한 대로 성북구는 '완연 학도의 마을'이라 부르게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눈 안에 동소문, 반 넘어 혈리어 위로 구멍이 뚫어져 있고 문 안으로는 모진 꺾꽂을 큼직 큼직하게 벌려 놓은 듯, 대학(경성제국대학)의 위관은 공중에서도 그럴 듯하게 보이며 종로 오정목까지 쪽 골은 이 거리의 좌우에는 경신(敬信), 정신(貞信)으로부터 배움의 바다에로 향한 운하처럼 고공(高工), 고상(高商), 동성(東星) 등등.....학교가 진을 치고 있다. 길 이쪽, 저쪽으로 널찍하게 판을 친 대학의 틈에 끼어 경의전(京醫專)은 그 기세를 잃은 듯, 그러나 병원을 딴 곳으로 돌리고 납작집에 의인 버티고 있다. 평지에서 보아 언덕인 듯, 만 듯한 저쪽으로 문화촌을 이루어 있는 곳이 성북동, 혜화공보(惠化公普)와 보성고보(普成高普)도 형제처럼 이웃했는데 중앙불전(中央佛專)은 좀 더 높은 곳에 지었으면 할 만큼 이름에 알맞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완연 학도의 마을이다.²⁾

이렇게 동소문 안에 많은 학교들이 들어섬에 따라 인근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성북동과 돈암동은 학생들의 하숙처로 각광을 받아 많은 학생 인구의 유입이 뒤따랐다. 1930년대 성북동과 돈암동에 한용운, 이태준, 정지용과 같은 문인들이 이주해 오으로써 소위 '문화촌'이 형성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동소문 안팎의 교육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북구와 인근 지역에는 다수의 학교가 있었다.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

2) 이길용, 「신록의 대경성 부감기」, 『동아일보』 1933.6.10.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이 위치하였다. 이 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학생운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성북구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교육기관 및 학생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일제강점기 성북구 및 인근 지역의 초등교육기관>

번호	학교명	설립·개교일	재적학생수	위치
1	사립삼산(三山)학교	1907. 3. 4.	1~4학년. 144명(남녀)	송인면 성북리
2	송인공립보통학교	1922. 6. 8.	1~6학년. 563명(남녀)	송인면 종암리
3	사립동명(東明)학교	1913. 4.	1~6학년. 185명(남녀)	송인면 회기리
4	사립용두리여학교	1913. 5.	1~4학년. 96명(여)	송인면 용두리
5	사립인창(仁昌)보통학교	1924. 11. 19.	1~6학년. 425명(남녀)	송인면 미아리

<일제강점기 성북구 및 인근 지역의 중등·고등교육기관>

학교명	일제강점기 주소(1933년 기준) [현재 기준 주소 표기]	학생수	교사수
경성제국대학예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8	
경성법학전문학교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3	
경성고등상업학교	경기도 경성부 송신동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276	
경성고등공업학교	경기도 경성부 동송동 [서울시 종로구 동송동]	189	
경성의학전문학교	경기도 경성부 연건동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47	
보성전문학교*	경기도 경성부 송현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280	
경성약학전문학교	경기도 경성부 [서울시 중구 광희동]	195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기도 경성부 연건동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57	
경신학교	경기도 경성부 혜화동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486	
중동학교*	경기도 경성부 수송동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96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경기도 고양군 [서울시 중구 신당동]	1,129	
경성공립농업학교*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79	
경성공립상업학교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 [서울시 중구 인현동]	492	22
경성공립여자실업학교	경기도 경성부 [?]	310	14
경기상업고등학교	경기도 경성부 청운동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경성여자상업학교*	경기도 경성부 견지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 『서울통계자료 : 일제강점기편』, 1993년 11월 발행.

* 보성전문학교는 1934년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으로 이전.

* 중동학교는 1984년 3월 1일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전.

* 경성공립농업학교는 1937년 전농동으로 이전.(현재 서울시립대 자리)

* 경성여자상업학교는 1936년 4월 종로구 홍제동으로 이전.

4. 성북구 지역의 통치·지배 기구

성북구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일제의 지배시설은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등이 있었다. 송인면사무소는 여러 번 위치를 변경하였다. 1914년에는 미아동 484-3번지(현재 송천동 송천아파트자리)에 위치하였다. 3·1운동 후 제기리(현 제기동)로 옮겨졌고, 얼마 뒤 다시 신설리 87번지(현 신설동역 부근)로 옮겨졌다.

성북구 지역의 경찰관주재소는 돈암경찰관주재소가 돈암리에 위치하였고, 청량경찰관주재소가 청량리에, 안암경찰관주재소가 신설리에 위치하였다. 이 외에 청량우편소와 청량리수신소가 청량리에 위치하였다.

<1931년 성북구 및 인근 지역의 통치·지배 시설>

시설명	주소	대지	건물		특이사항
			건평	연평	
송인면사무소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204평	39평	39평	
청량경찰관주재소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75평	11평	11평	
안암경찰관주재소	고양군 송인면 신설리	210평	25평	25평	숙사포함
돈암경찰관주재소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12평	9평	9평	
청량우편소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50평	20평	20평	
무선전신국 청량리수신소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22,702평	384.5평	906.2평	숙사포함

5. 군대 훈련장과 군인의 거주지

어영청과 시위대의 훈련장 등이 있어 성북구지역에 다수의 군인이 거주하였고, 이들은 의병투쟁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김규식은 군대 해산 후 허위와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13도의군을 조직하고 서울진공작전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릉동의 나중소와 양주 구리 출신으로 돈암동에 거주한 김규식(金奎植)은 3·1운동 후 북간도 왕청현에 조직된 북로군정서에 참여하여 김좌진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들은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노령으로 가 자유시참변을 겪고 난 후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고 김좌진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군대훈련장인 삼선평은 대한제국기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1896년 최초의 근대적인 운동회가 개최되었던 삼선평은 1904~1910년까지 강연 및 운동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6. 경성의 독립운동과 연계된 활동

1930년대 중반까지 경정부(서울)의 외곽이던 성북구는 경성 시내의 독립운동과 연계하여 전개되었다. 3·1운동의 경우 서울 종로 등의 시위에 성북구민이 참가하였다. 성북구민은 신간회 경성지회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간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7. 비밀회의의 장소

한양도성과 낙산 등은 비밀회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한양도성의 성벽 인근에서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단체나 사회주의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방용모는 1940년 10월경부터 1941년 6월경까지 매주 월요일 경성부 성북정 성벽에서 공산주의운동가인 이종갑과 회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출신의 석혜환은 낙산에서 광주공산당협의회의 비밀회의를 가졌다.

Ⅲ. 성북구에서의 독립운동

1. 애국계몽운동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 직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표방하며 시정을 장악하고,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여 내정을 장악하였고, 1905년 11월에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은 1907년 고종황제의 퇴위와 군대해산, 1909년 사법권 피탈 등을 거쳐 1910년 국권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정치·사회단체, 교육기관, 언론기관을 조직하거나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등의 단체들은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을 계몽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근대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국민계몽 활동이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성북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근대적인 학교가 설립되었고, 성북구의 주요 장소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강연과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 성북구에 설립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기관은 삼산의숙(三山義塾)이었다. 삼산의숙은 1907년 5월 봉시(奉侍) 황수연(黃壽延)이 설립하여 서당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다가, 1908년 5월 28일 황수연, 김수영(金洙瑩) 김기택(金基宅) 외 수씨의 발기로 근대적인 학교인 삼산의숙으로 재창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 『황성신문』 1908년 7월 18일자 잡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三山塾立 城北洞金洙瑩氏가 該洞靑年子弟를 教育하기 爲하야 私立三山義塾을 塾設한 趣旨가 如左하니 寶玉도 琢磨를 不加하면 光彩를 不發하고 杞梓도 培養을 不爲하면 良材를 難成하느니 物皆然矣어니와 人爲甚焉하야 教育으로써 智能을 啓發하고 道德을 擴充한 後에야 健全한 人物을 始成할지라 稽經往古하면 三代之 隆盛이 是를 尙함이오 驗

3) 『매일신보』 1916.2.22. 자료상 삼산의숙의 설립일은 '1907년 봄' 혹은 '1908년 봄'으로 다르게 나온다. 먼저 1907년 봄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1910년 10월 말)(『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소수)와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동아일보』 1924.5.25.)이다.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에서는 삼산의숙이 1907년 설립되어 1909년 3월 4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 기사에 “삼산학교에서 지난 18일(1924년 5월 18일: 필자)에 창립 제17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산의숙의 초기 운영진들은 이것이 1907년 5월 18일에 창립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다음으로 1908년 봄 창립설이다. 『황성신문』 1908.7.18.자 기사에는 “삼산창립. 성북동 김수영씨가 해동 청년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사립삼산의숙을 창설한 취지가 여좌하니”라고 되어 있다. 『매일신보』 1916.2.22.자 기사에는 “黃壽延이 (중략) 1908年 春 三山義塾을 設立 諸般 經費를 自擔 經營하다.”라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27.2.5.일자 기사에는 “삼산학교: 송인면 성북동에 있는 용희 2년 5월 28일 지역 유지 金洙瑩, 金基宅 외 수씨의 발기로 창립했다는 바”라고 되어 있다.

之古今하면 强國의 文明이 是를 懋함이니 教育의 功化가 豈不偉大며 豈不神靈哉아 惟我 城北洞은 地脊民貧하야 由來生活不贍으로 教育을 不遑하얏거니와 顧今文明競爭의 大潮가 韓半島에 漸被하미 全邦人士가 汲汲然憤奮하야 都野市村에 庠舍繼起히거늘 惟此一洞은 尙此寥寥하야 譬컨디 春風流蕩에 園林이 紛葩흔디 獨히 陰崖寒谷과 如하야 發榮이 遲遲하니엇지 慨歎할 者ㅣ아니리오 於是乎三山義塾이 始立하니 黑洞天中에 燈臺放光하고 迷渾渡頭에 蘇航이 浮出하얏도다 嗚呼라 從今으로 父兄은 敎導에 盡力하고 子弟는 學習에 熱心하야 進進不已하고 蒸蒸日上하는 能力이 有하면엇지 乙支文德金庚信과 如한 人物이 不出하리오 惟我同志人士는 協力勉勵하야 進歩를 期圖할지어다.⁴⁾

즉, 학교를 통하여 을지문덕·김유신과 같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이 나라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고 진보된 문명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삼산의숙은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외모도 근대적인 방식으로 가꾸도록 하였다. 1908년 10월 삼선평에서 가을운동회를 개최하였고⁵⁾, 학생의 머리를 단발로 가꾸도록 하였다.⁶⁾ 학생을 학대하는 교사는 퇴출시켰다.⁷⁾ 이러한 활동의 결과 삼산의숙은 1909년 3월 4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다.⁸⁾

성북구에 위치한 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요처는 삼선평이었다. 삼선평은 원래 사아평(沙阿坪)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성북천 주변의 모래 언덕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5군영의 하나인 어영청과 대한제국기 친위대의 훈련장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1896년 5월 30일 영어학교 교사 허치슨의 주도로 최초의 근대적인 운동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⁹⁾ 1906년 10월에는 관립한성고등학교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었고¹⁰⁾, 1907년 5월 12일에는 서북 출신 유학생들의 연합운동회가 개최되었다.¹¹⁾ 1906년 3월에는 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의 축구시합이 처음으로 열렸다. 1907년 5월 12일에는 안창호의 강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然則 國家는 一人의 所有가 아니오 吾人肩上面 大韓二字를 各其擔着하야스니 願컨디 前日思量을 仍存치 勿하랴. 噫라 覆巢之下에 原無完卵이요 一持之傷에 全體가 皆痛이라. 國家는 卽是一身이니 一身上臟腑와 肢體間에 受病處가 有하야 生脈이 頓絶하면 全體가 從而斃焉하느니 一國之中에 生脈頓絶處가 有하면 國民된 者의 自身生命을 엇지 獨全홀道가 有하리요. 然則 愛國을 當如 愛身하야 것이 아닌가. 近日 我韓 社會上에 一種 言論이 有하되 吾人이 天을 信하면 天必助之라 하니 嗚呼라. 上天이 我國을 眷佑하신지 四千餘年에 我가 保有를 不能하야 滅亡을 自取하고 更何天助를 可望하리요. 猶太人은 天을 信하다가 亡하고 印度人은 佛을 信하다가 亡한지라. <26> 今 我韓人은 何者를 信하난고 多

4) 『황성신문』 1908.7.18., 잡보.

5) 『황성신문』 1908.10.24., 잡보.

6) 『대한매일신보』 1908.10.7., 잡보.

7) 『기호흥학회월보』 3, 학계취문. 安壽瑩에게 학감을 맡겼는데 무리하게 학생을 학대한 고로 타인을 연방.

8)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1910년 10월 말),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교육통계.

9) 『독립신문』 1896.5.30., 3면 3단, <이달 삼십 일 각처 관립 소학교 학원들이>.

10) 『황성신문』 1906.10.29., 3면 3단, <고등교육운동과목>.

11) 『황성신문』 1907.5.1., 4면 4단, <서북학생연합대운동회를 래5월5일에>.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 <내지취보>.

數人 下等人은 云하되 鷄龍山에 眞人이 出하면 外國人이 自當 退去라 하며 稍勝於此者
 曰 日本과 善爲附合하면 我國이 幸福을 享有하리라 하며 或은 英國이나 美國이나 我
 韓을 援助할가 希望하니 此皆 萬不可信者를 信함이라. 鷄龍山에 眞人도 決無한 것이요
 日本人은 自國事業을 爲할 뿐이니 엇지 他國人을 慈悲할 想覺이 有하리요. 至於英美國하
 야는 尤是 絶遠한 邦國이라. 我韓 獨立이 彼에게 利益이 有할터이면 或 援助를 行하려니
 와 萬若 利益될 事가 無하면 不惟不助라. 反히 壓倒한 暴力을 加할지니 非惟不可信이
 라. 實爲可懼者로다. 此等 妄誕腐敗之說은 一切 痛斷하고 惟是吾人當做의事業에 勇往猛
 進하여 其 目的을 到達할지이다. 支那古代에 力拔山氣蓋世하던 楚霸王도 絶望病으로 以
 하여 自刎於烏江하얏스니 此는 自亡이니 豈可曰天實亡之리요. 我國에도 向日新條約後에
 節義之士가 憤痛自斃者가 有하니 此亦 絶望病으로 由한 것이라. 以若判死之心으로 盡力
 於事爲上이면 天下何事를 不能做去리요. 惟願諸君은 此等 事를 念頭에 勿置하고 吾人
 事業上에 目的을 得達하기로 勇往直前하디 어디 許多方法이 自有其說이나 日暮時盡에
 不能張皇하고 所言이 止此하니 我心更鬱이라. 但 自今日로 共誓決約하고 將來 他國과 開
 戰할 事를 準備하여 何年 何日에던지 一次 宣戰書를 布告하여 太極國旗를 世界에 顯揚
 하여 봅시다.¹²⁾

위의 내용과 같이 안창호는 대한제국이 생명이 단절된 지경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몸
 과 같이 국가를 사랑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절망의 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일에 진력하는 것을 최상의 방책으로 삼는다면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타국과 개전할 일을 준비하여 어느 해, 어느 날에 선전포고하고 태극기를
 세계에 현창해보자고 하였다.

성북구 돈암동(성북구 흥천사길 29)에 위치한 흥천사(興天寺)도 대표적인 애국계몽
 운동을 위한 대표적인 집회 장소 중의 하나였다. 1906년 6월 9일 황성기독교청년회
 의 방학식 겸 운동회가 흥천사에서 개최되었다.¹³⁾ 1907년 5월 12일 흥천사에서 양정
 의숙학생들이 춘기운동을 개최하고 민사소송의 재판정 실지연습을 개최하였다. 지
 방재판소의 체제로 형성하여 재판장과 판사와 서기와 정리(庭吏) 각 1인, 원고와 피고
 를 정하고 연습을 하였다.¹⁴⁾ 그리고 1907년 5월 22일 흥천사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
 의 운동회, 1908년 5월 26일 흥천사에서 계동 돈명익숙(敦明義塾)의 운동회를 개최하
 였다.¹⁵⁾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53번지(성북구 보국문로 113-10)에 위치한 경국사(慶
 國寺)에서는 서북학회 모임이 있었다.

한편 성북구에 위치한 사찰에서는 교육활동을 위해 기연하기도 하였다. 정토정연구
 회에서 진명학교(進明學校)를 설립하자 흥천사는 49원을 기연하였고, 경국사는 14원
 을 기연하였다.¹⁶⁾

12) 『서우』 1907.6.1., 26-27쪽, <연설>.

13) 『황성신문』 1906.6.13., 1면 4단, <황성기독교청년회 하기방학예식 與 대운동회 성황>.

14) 『대한자강회월보』 11, 1907.5.25., <내지회보>.

15) 『황성신문』 1907. 5.22, 1면 4단, <청년회운동성황>, 1908.5.26., 1면 6단, <敦明運動>.

16) 『대한매일신보』 1906.4.7., 3면 2단, <본회에서 보통과학교를 설립하고>.

2. 3·1운동

1919년 3월 이후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성북지역에서도 독립만
 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먼저 안감천 방면에서는 1919년 3월 23일 밤 10시경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감천(안암천)에서 피한봉 등 500명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¹⁷⁾
 3월 26일에는 안감천에서 200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전차에 투석
 하였다. 또 3월 27일에는 안감천 부근에서 500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¹⁸⁾

돈암리에서는 3월 23일 돈암리시장에서 100명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독립선
 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이 배포되었다. 3월 27에는 돈암리의 산 위에서 50명이 횃불 시
 위를 전개하였다.¹⁹⁾ 그리고 1919년 3월 24일 성북동에서 60명이 시위를 전개하였
 다.²⁰⁾

성북구 출신의 인물 중에는 성북구 주변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
 다. 성북동에 거주한 중앙학교 학생 김수룡(金壽龍)은 현상윤의 권고로 서울시내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고향인 동래 기장에서
 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성북동 출신인 박홍식(朴弘植)은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안암동 출신인 손진태와 피한봉은 1919
 년 3월 23일 밤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안암천 부근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안암동 출신인 이재성과
 월곡리 출신인 정만산은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사무소(현 강북구 미
 아동 송천아파트)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3. 의열단 활동

의열단은 1919년 11월 10일 길림성 파호문(巴虎門) 밖 반(潘)씨 집에서 김원봉, 이
 종암 등이 조직한 의열투쟁단체였다. 의열단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
 다.”는 공약 하에 ‘7가살 5파괴’를 내걸고 적의 고관을 처단하거나,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9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장 폭살의거, 1920년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1921년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의거, 1922년 김익
 상·오성륜·이종암의 황포탄의거, 1923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의거 등이 바로 의
 열단에 의하여 행해진 사건이었다.

1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7, <피한봉신문조서>.

1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권, <시위운동의 민중화>.

1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권, <3·1독립선언 관련자 신문조서 부록/손병희의 36
 명에 대한>.

20) 「독립운동에 관한 건(26보)」(1919.3.25.),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
 동사』 3, <시위운동의 민중화>.

성북구민 중에는 이 의열단에서 활동한 인물이 더러 있었다. 성북구 출신으로 의열단에 관계한 인물로는 최용덕, 오세덕 등이 있었다. 성북동 출신인 최용덕(崔用德)은 1922년 6월 경 의열단에 가입하여 중국 천진(天津)에서 무산자동맹회원 김한(金翰)과 만나 폭탄의 국내 반입을 도우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²¹⁾ 즉, 김원봉이 1922년 6월 국내의 무산자동맹회의 김한과 연락해서 조선총독부를 파괴하려던 제2차 암살계획, 즉 김상옥사건에 간여하였다. 그리고 안암동 출신인 오세덕은 1923년 서울의 한성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의열단원 구여순(具汝淳)의 한성은행 습격계획을 도와주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²²⁾

이런 배경에서 의열단의 근거지가 바로 성북구에 위치하였다. 1922년 12월 '김상옥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체포하고자 경관이 출동하여 가택수색한 장소가 바로 성북동 191번지의 장동옥의 집이었다. 『동아일보』 1922년 12월 28일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본정 경찰서에서는 어제 새벽에 성북동 191번지 장동옥의 집에 경관이 출장하여 엄중히 가택수색을 한 후 다시 관수동에 있는 무산자동맹회에 가서 그 회 간부 김한씨를 구인하고 방금 엄중히 취조 중인데 사건의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경찰서에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영화 밀정에 나오는 김시현이 은거한 곳도 바로 성북구였다. 김시현은 1923년 3월 황옥과 함께 중국에 가서 신재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과 폭탄 36개와 권총 5자루 실탄 156발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려다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때 김시현은 영도사 어구 안암리 127번지의 오세덕의 집에서 숨어서 지냈다.

또 『시대일보』 1924년 5월 4일자 기사에는 “시내 동소문 밖 성북동에 그 통신기관이 있는바”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북동에 둔 의열단 근거, 즉시 침입할 준비로 목선 일척을 사들여

烟台港 기독교청년회에 있는 의열단원 朴鳳來, 柳正澤은 지난달 22일에 길림에 있는 박해관에게 지난달 30일 내로 조선 안으로 침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으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국경 연안 경찰서와 시내 각 경찰서에 엄명하여 침입을 방지하며 또 그들의 교통기관과 통신상황을 조사·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시내 동소문 밖 성북동에 그 통신기관이 있는바 그곳에서는 또 목선 1隻을 사들였다 한다.²³⁾

21)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5, 1988, 1096-1097쪽.

22)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5, 1988, 669-670쪽. 이병곤, 「성북구에서의 의열단 활동」, 2016. 성북 문화체육과, 『성북동 역사문화·인물 스토리텔링 자료』, 2016.

23) 『시대일보』 1924. 5. 4. 4면 12단, <성북동에 둔 의열단 근거>.

위의 내용에 따르면, 1924년 무렵 성북동에 의열단의 근거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지만, 최용덕이 성북동, 오세덕이 안암동 출신이었고, 종로경찰서 투탄의거를 행한 김상옥의 집이 창신동에 위치한 점²⁴⁾으로 미루어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4. 문화운동

3·1운동 후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문화운동은 실력을 양성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독립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운동론이었다. 문화운동은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정신적 개조를 중시하여 삶의 양식인 문화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 방법으로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운동 등의 부문운동과 교육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성북구에서도 1920년대 청년운동과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의 추진단체는 성북동의 성북구락부였다. 성북구락부는 1923년 삼산학교 교사였던 서광훈(徐光勳) 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처음에는 친목단체·계몽단체로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1925년 5월 27일 삼산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강령을 통과시키고 체제를 정비하였다. 당시 임원으로서는 부장 김동근(金東瑾, 삼산학교 교사), 총무 서광훈(삼산학교 교사), 재무 박성근(朴性根), 서기 고덕룡(高德龍), 간사 김윤식(金潤植), 소광진(徐光鎭) 등이 있었다.²⁵⁾ 1925 8월 13일 임시총회에서는 회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고 서무부 서광훈 고덕룡, 재무부 박성근 서광진, 지육부 김동근, 체육부 서병태(徐丙泰)로 임원을 변경하였다.²⁶⁾ 성북구락부는

24) 김상옥은 종로구 효제동 출신으로 1912년 종로구 창신동 487번지에 영덕철물상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대문교회에 다녔다. 윤우 엮어지음, 『서울 한복판 항일시가의 용장 김상옥의 사』(백산서당, 2003), 165-173쪽.

25) 『조선일보』 1925.5.30., <성북-구락부혁신>.

26) 『조선일보』 1925.8.18., <성북구락부 회장제를 위원제로>.

사회주의계 단체와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1925년 8월 8일 성북구락부는 만장일치로 허정숙, 권오설 등이 주도하는 화요회계의 사회주의계 청년단체인 한양청년연맹에 가입하였다.²⁷⁾ 뿐만 아니라 성북구락부는 백정들이 평등한 대우를 실현하려고 조직한 형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서광훈이 형평사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였고, 1926년 4월 25일 경성부 견지동 시천교회당에서 개최된 형평사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축전을 발송하기도 하였다.²⁸⁾

어린이들의 계몽을 위해 성북소년회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성북소년회는 1927년 9월 23일 삼산학교에서 창립되었다. 그 주요 인물은 서무부 문학준(文學俊) 송운성(宋允成) 김창덕(金昌德), 교양부 안준덕(安俊德)외 2인, 사회부 김동섭외 1인, 체육부 성봉진(成奉鎭) 서장성(徐長成)외 1인, 위원장 이복만(李馥萬)이었다.²⁹⁾ 성북소년회는 1927년 7월 야학원을 설립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무산어린이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³⁰⁾ 성북소년회는 경성의 소년단체와 연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1928년 5월 초 수송보통학교에서 개최된 경성소년단체의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하였고³¹⁾, 1929년 4월 27일 경성소년연맹 사무실에서 개최된 경성소년단 대표자 회의에 이경재(李慶在)가 참가하였다.³²⁾

5. 학생운동

성북구 지역은 일제강점기 주변에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많았으므로 학생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1940년 9월 소화공과학원(昭和工科學院) 야간부에 재학중인 금림옥경(金林玉卿) 등 수명의 학생들이 성북동 뒷산에서 항일비밀결사 BKC단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그리고 안암정에 거주하던 김종윤(金鍾潤)은 1940년 경성공립중학교에서 조선인해방투쟁동맹(CHT)을 조직하였다. 이 외에도 경성부 수송정 출신으로 성북정에 거주하던 이완기(李完基)는 중등학교 학생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가 체포되어 1942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6. 사회주의운동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과 전문대학과 중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주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하숙집이 많았던 성북동과 돈암동은 사회주의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27) 『동아일보』 1925.8.12., <한양청년연맹에 가입>. 「청년단체 조직증가에 관한 건」(1925.9.10.),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28) 「형평사3주년기념식에 관한 건」(1926.4.25.),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 『조선일보』 1927.6.25., <성북소년창립>.

30) 『동아일보』 1927.7.6., <성북야학원 설립>.

31) 『중의일보』 1928.5.7., <성대한 이 날의 의식>.

32) 「경성소년단 대표자회의에 관한 건」(1929.4.30.),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자료 7』.

공산주의운동의 저명한 인물들, 혹은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성북동과 돈암동 등지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석해환은 1930년대 광주공산주의자협회의의 비밀집회를 낙산에서 가졌다.

1930년대 이후 성북구 지역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들이 관계를 맺은 단체는 경성트로이카와 경성콤그룹이었다. 경성트로이카는 1933년부터 1936년까지 경성부에서 이재유, 이현상, 김삼룡 등이 지도한 사회주의단체이다. 이재유는 김삼룡, 이성출, 김형선, 이순금, 이현상, 정태식, 미야케(三宅鹿之助) 등을 만나 세 마리 말이 자유롭게 마차를 끌 듯이 회원 모두가 자유롭게 활동하여 널리 동지를 획득하고, 때가 되면 조직을 만들자는 ‘트로이카운동’을 제안하였다. 이현상·안병찬·변홍대는 노동운동, 최소복은 학생운동, 이재유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활동하였다. 경성콤그룹은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경성과 경남, 함남 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한 조선공산당 재건 조직이다. 1930년대 중반 경성지방에서 노동운동을 한 권영태(權榮台)의 노선을 정통 노선으로 인정하고 그가 활동하던 ‘경성공산주의자그룹’의 이름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경성콤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성북구 출신의 인물로 이 두 단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은 정태식(鄭泰植)이다. 그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성북리에 거주하였다. 그는 1933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법문학부 조수로 근무하면서 1934년 4월 경성법률전문대학에 반제반·문화반·구원반을 조직하였고, 동년 5월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에 매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40년 12월 출옥 후 박헌영과 함께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IV. 성북구인의 국내 독립운동

1. 의병투쟁

성북구의 성북동과 돈암동 지역에는 어영청 등 조선과 대한제국기 군대의 훈련장이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인물 중에는 1907년 군대해산 후 소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의병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

1) 황윤명(黃允明, 黃壽延)

첫째로 주목할 만한 인물은 황윤명(黃允明, 黃壽延)이었다. 그는 고종황제에게서 오래 살라는 뜻의 '수연(壽延)'이란 사명(賜名)을 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일제의 정보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금 20일 오전 2시경 폭도 약 20명이 동소문(東小門) 외 성북동 황윤명(黃允明)가에 침입하여 총기의 제공을 강박하였으나 그 소유가 없다고 대답하였던 바 총기의 조달에 취하기까지 동행하자 하고 그 손 김수영(金洙瑩, 36세) 외 가복(家僕) 2인을 납거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동부경찰서(東部警察署)는 즉시 수색, 순사의 일대를 보내어 이것을 추적(追跡)시켰던 바 오전 6시 동대(同隊)로부터 적은 원산가도 누원(樓院) 방면으로 진행한 형적(形跡)이 있다고 하는 급보가 있었다. 동시에 후속대(後續隊)를 출발하여 추적 중이라고 하는 보고에 접하고 본청(本廳)으로부터는 즉시 기마순사(騎馬巡查) 5명을 증발(增發)하였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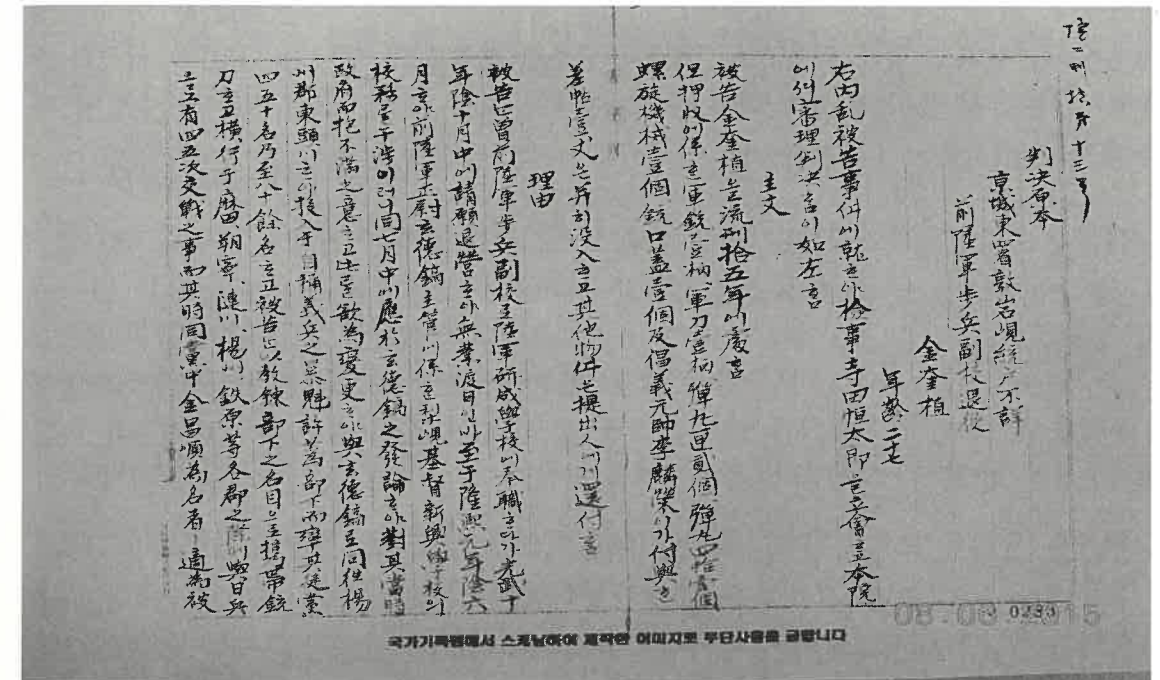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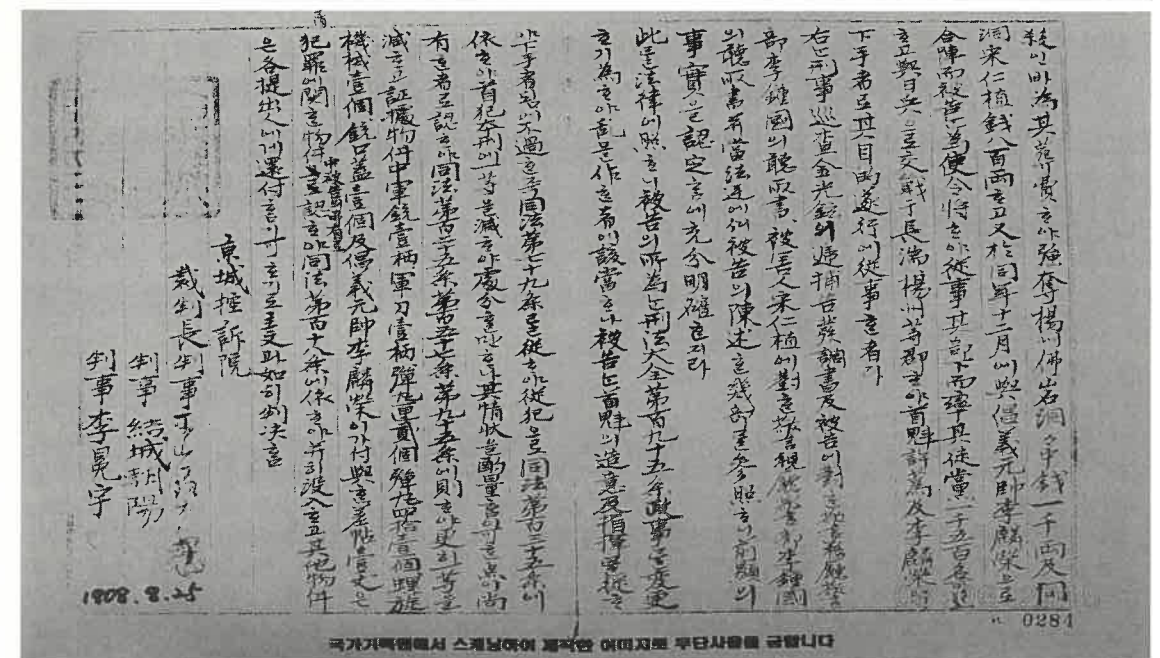
위의 기록에 의하면, 1908년 10월 20일 오전 의병 약 20명이 성북동의 황윤명(황수연) 집에 출몰하여 총기의 제공을 강박하고, 그 손 김수영(36세) 외 가복 2인을 납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황윤명이 의병에게 피해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의병 중에는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일어난 것이 많다고 한다. 황윤명은 고종의 내시였으므로 고종의 밀명을 받아 의병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실제로는 황윤명이 의병활동을 지원하였고, 황윤명의 손자인 金洙瑩도 의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김규식(金奎植, 蘆隱, 1882~1931)

둘째로 주목할 인물은 양주군 노원면 출신으로 돈암동에 거주하던 노은(蘆隱) 김규식(金奎植, 1882~1931)이다. 김규식은 1903년 1월 대한제국 육군사관학교에 견습생으로 입교하여 수업을 받다가 1904년 3월 동교가 폐교되자 퇴교하였다. 1905년 12월 대한제국의 시위대에 입대하여 1906년 부교(副校)가 되었다. 이후 연성학교(研成學校)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융희2년 10월, 경기도, 폭도침습의 건.

에서 근무하다 1906년 10월 청원퇴영하였다. 이 무렵 돈암동에 거주하던 그는 1907년 음력 6월 전 육군 정위(正尉) 현덕호(玄德鎬)가 주관하던 이현(梨峴) 기독교신흥학교(基督新興學校) 사무를 보았다. 그는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당하자 현덕호와 함께 양주군 동두천에 가서 허위의 부대에 참여하여 마전, 삭녕, 연천, 양주, 철원 등지에서 1년간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되었다.³⁴⁾



34) 「김규식판결문」(京城控訴院, 1908.08.25.).

2. 애국계몽운동

1) 황수연

1907년 혹은 1908년 김수영(金洙瑩), 김기택(金基宅) 등과 삼산의숙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황수연의 호는 춘파(春波), 초명은 윤명(允明)이다. 수연(壽延)은 어사명(御賜名)이다. 강원도 평해 태생으로 14세시 양봉협(楊鳳協)의 양자가 되었다.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을 기호(嗜好)하여 중국, 한국의 고서, 고화, 고적(古籍)의 수집이 부유(富有)하였다.³⁵⁾

3. 3·1운동참여자

1) 김동익(1887~미상)

돈암동 산 49번지 거주자로 1919년 3월 말 서대문 1정목 부근에서 10여명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았다.

2) 김수룡(金壽龍, 1901~미상)

본적은 경남 양산으로 성북동 175번지 8에 거주하였다. 중앙학교 재학 중 현상윤의 권고로 파고다공원에서부터 단성사에 이르는 길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고향인 동래 기장에 돌아가 3월 28일경 400여 명의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후 4월 5일 기장공립보통학교 등지에서 군중을 이끌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1968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다(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변경).

3) 박홍식(朴弘植, 1902~미상)

35) 『매일신보』 1916.2.22. 자료상 삼산의숙의 설립일은 '1907년 봄' 혹은 '1908년 봄'으로 다르게 나온다. 먼저 1907년 봄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1910년 10월 말)(『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소수)와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동아일보』 1924.5.25.)이다. 「경성부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종교학교 제외)」에서는 삼산의숙이 1907년 설립되어 1909년 3월 4일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 기사에 “삼산학교에서 지난 18일(1924년 5월 18일: 필자)에 창립 제17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산의숙의 초기 운영진들은 이것이 1907년 5월 18일에 창립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다음으로 1908년 봄 창립설이다. 『황성신문』 1908.7.18.자 기사에는 “삼산창립. 성북동 김수영씨가 해동 청년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사립삼산의숙을 창설한 취지가 여좌하니”라고 되어 있다. 『매일신보』 1916.2.22.자 기사에는 “黃壽延이 (중략) 1908年 春 三山義塾을 設立 諸般 經費를 自擔 經營하다.”라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 1927.2.5.일자 기사에는 “삼산학교: 송인면 성북동에 있는 용희 2년 5월 28일 지역 유지 金洙榮, 金基宅 외 수씨의 발기로 창립했다는 바”라고 되어 있다.

본적과 주소가 성북리 5번지이다.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징역 6월형을 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4) 손진태(1900~미상)

경남 동래 출신으로 안암동 11번지에 거주하였다. 성북구에 거주하던 중 3·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되기까지 약 5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5) 이재성(1883~미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사무소(현 강북구 송천동 송천아파트)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6) 정만산(1886~미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사무소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7) 피한봉(1884~미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64번지에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23일 밤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안암천 부근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8) 한용운(1879~1944)

불교계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였다. 1930년대 성북동 심우장에서 거처하였다.

9) 이종린(1883~1950)

천도교계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였다. 1930년대에 성북동에 거주하였다. 1938년 ‘무인멸왜기도사건’ 이후 천도교 구파가 일제에 타협하였을 때 친일적 활동을 하였다.

10) 김창준(1889~1959)

기독교계의 민족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 성북동 교회에서 강연을 하였다.

4. 신간회 활동

1) 홍기문(洪起文, 1903~1992)

안암리 122번지에 거주하였다.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의 장남으로 국어학자이다. 1922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와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1925년 一月會와 조선무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다. 1926년 이종모(李鍾模)·유영준(劉英俊)·박천(朴泉) 등의 유학생들과 사회주의 사상연구단체인 신흥과학연구회를 결성하였다. 1927년 12월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1931년에는 신간회 본부 중앙위원이 되었다. 이 무렵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적위대의 조직부 겸 선전부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0년 11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1930년대에 『조선일보』 학예부장과 『조광(朝光)』의 주간을 역임하였다. 1927년에 「조선문전요령(朝鮮文典要領)」을 『현대문학』에 발표하였으며 국어 연구에 전념하였다.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서울 창동에 은거하며 방종현(方鍾鉉)과 함께 국어 연구에 몰두하였다. 1945년 11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선전부에서 활동하였다. 1948년 입북한 후 그대로 잔류하여 1960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64년 4월 사회과학원 부원장, 1969년 4월 사회과학원 원장이 되었다. 1973년 7월 김일성훈장을 받았고 1981년 12월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의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5. 학생운동

1) 김종윤(金鍾潤, 1911~미상)

본적은 서울 송인정 63번지 10호이고, 서울 안암정 200번지의 12호에 거주하였다. 1940년 경성공립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 일명 'CHT')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42년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2) 손용우(孫龍祐, 1923~미상)

조선문화학원 중등과 학생으로 1940년 9월 安秉九, 權懿, 李鍾浩 등과 일본패전을 기회로 조선독립을 목표로 매진하자고 협의하였다.

3) 이완기(李完基, 1923~1942)

본적 경성부 수송정 83번지-6, 주소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60. 중등학교 생도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1942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6. 공산주의운동

1) 김하경(1917~미상)

1930년대 후반 경성제국대학 학생으로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였고, 1940년 김한성과 함께 공산주의 서적을 읽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다.

2) 방용모(1919~미상)

평북 정주 출신으로 성북정 195번지 28호에 거주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에 다니던 중 이종갑 등과 교류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3) 배성룡(1896~1964)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성북정 176번지 4호에 거주하였다. 1923년 일본대학 전문부 사회과를 졸업하였다. 1924년 화요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 3월 박일병의 권유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제1야제이카 정우회 프락션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추진한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에 관련되어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1930년대 경제 평론가로 활동하였고, 1934년 의열단의 국내 연락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36년 이후 성북동 자택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해방 후 1946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였고, 1947년 10월 김규식과 함께 민족자주연맹 활동을 하였다.

4) 정태식(1911~미상)

본적 충북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주소 성북리 184-32. 1929년 3월 청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다. 1933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법문학부 조수가 되어 경제연구실에서 근무하였다. 1933년 4월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였고 용곡여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934년 4월 경성법률전문대학에 반제반, 문화반, 구원반을 조직하였고, 동월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년 5월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에 참여하여 식료품부 책임자, 공청부 책임자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934년 5월 체포

되어 1936년 11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미결구류 180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40년 12월 5일 출옥 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인민전선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7. 아나키즘운동

1) 김양복(金養福, 1907~미상)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서울 안암정 205번지 11호에 거주하였다.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아나키즘단체 일성단(一聲團)을 조직. 1929년 음력 단오절인 6월 11일 龍岡郡 多美面 五花里 씨름대회에서 총독정치의 억압과 착취를 폭로하고 농민들을 단결하여 일제타도에 앞장설 것을 호소한 ‘농민에게 고함’이라는 무정부주의 선전문을 살포하였다. 1929년 7월 평양에서 체포되어 1930년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 김현국(金顯國, 1905~1946)

본적 서울 송인정 176번지, 주거 서울 안암정 86-11번지, 1929년 2월 충주 금성여관에서 권오순, 안동규, 김학원, 정진복, 서상경, 서징기 등과 아나키즘단체인 문예운동사를 조직하고 『문예운동』을 간행하려다가 체포되었다. 193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1년 비밀결사 언론기관인 자유연합사를 조직하여 주간으로 활동하였고, 1932년 4월 온양경찰서에 체포되어 5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8. 종교적 민족운동

1) 한용운

1930년대 중반 성북동 심우장에 은거하며 일제의 협력을 거부하며 소극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2) 김교신

김교신은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 378이 본적으로 1922년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1927년에 졸업하였다. 무교회운동(無教會運動)을 전개하던 우치무라[內村鑑三]의 영향을 받아 함석헌(咸錫憲), 송두용(宋斗用), 정상훈(鄭相勳), 양인성(梁仁性), 유석동(柳錫東) 등과 함께 동경에서 조선성서연구회(朝鮮聖書研究會)를 조직

하였다. 1927년 7월 송두용, 정상훈, 양인성, 유석동 등과 월간 동인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을 창간하였고, 1930년 5월 제16호부터 혼자서 주필 겸 발행인으로 『성서조선』을 발행하여 무교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성서조선』 3월호의 권두언에 「조와(弔蛙)」라는 글을 실어 조선민족의 상황을 암시하며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였다가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고, 1945년 4월 병으로 사망하였다.

3) 김창준(1889~1959)

성북동에서 설교. 1937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 金昌俊 목사가 ‘경제의 성화’라는 주제로 성북정교회에서 강연하였다.

9. 시국담 활동

1) 노현중(盧鉉重, 1920~미상)

본적 천안읍 남산정, 주거 성북동 177번지. 1942년 11월 조선방송협회 사업부에 근무하며 미국의 방송을 청취하여 유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2) 박노태(朴魯胎, 1915~미상)

종로구 성북정 189-2번지에 거주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으로 1943년 일본의 전시상황과 연해주 등지의 독립군의 활동 상황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이근창(李根昌, 1916~1944)

본적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76번지. 주소 경성부 성북정 177-25번지. 단파 방송으로 전시 상황 전파하여 1943년 징역 8월형을 받았다. 1944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4) 정진숙(鄭鎭肅, 水谷文一, 1910~미상)

1945년 34세. 본적 충남 천안군 북면 운곡리 284번지. 주소 동대문구 성북정 177-40. 전시 상황 전파하여 1945년 육해군형법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8월형을 받았다.

5) 문석준(文錫俊, 1894~미상)

본적 함남 함주군 삼평면 원상리 259. 주거 성북정 195-23. 광업. 전시상황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1944년 신문 중 사망하였다.

10. 강제동원 저항 운동

1) 강영옥(姜永玉, 1913.05.16.~미상)

본적 및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

2) 김재권(金在權, 1913.05.16.~미상)

본적은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재정(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1년 10월 19일 출옥하였다.

11. 노동운동

1) 성봉진(1908~1928.11.22)

송인면 성북리 출신으로 1928년 서울에서 경성출판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조사 중 장티푸스가 발병하여 성북동 순화원에서 치료 중 순국하였다.

V. 성북구인의 해외 독립운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의 독립운동

1) 오세덕(吳世惠, 1879.~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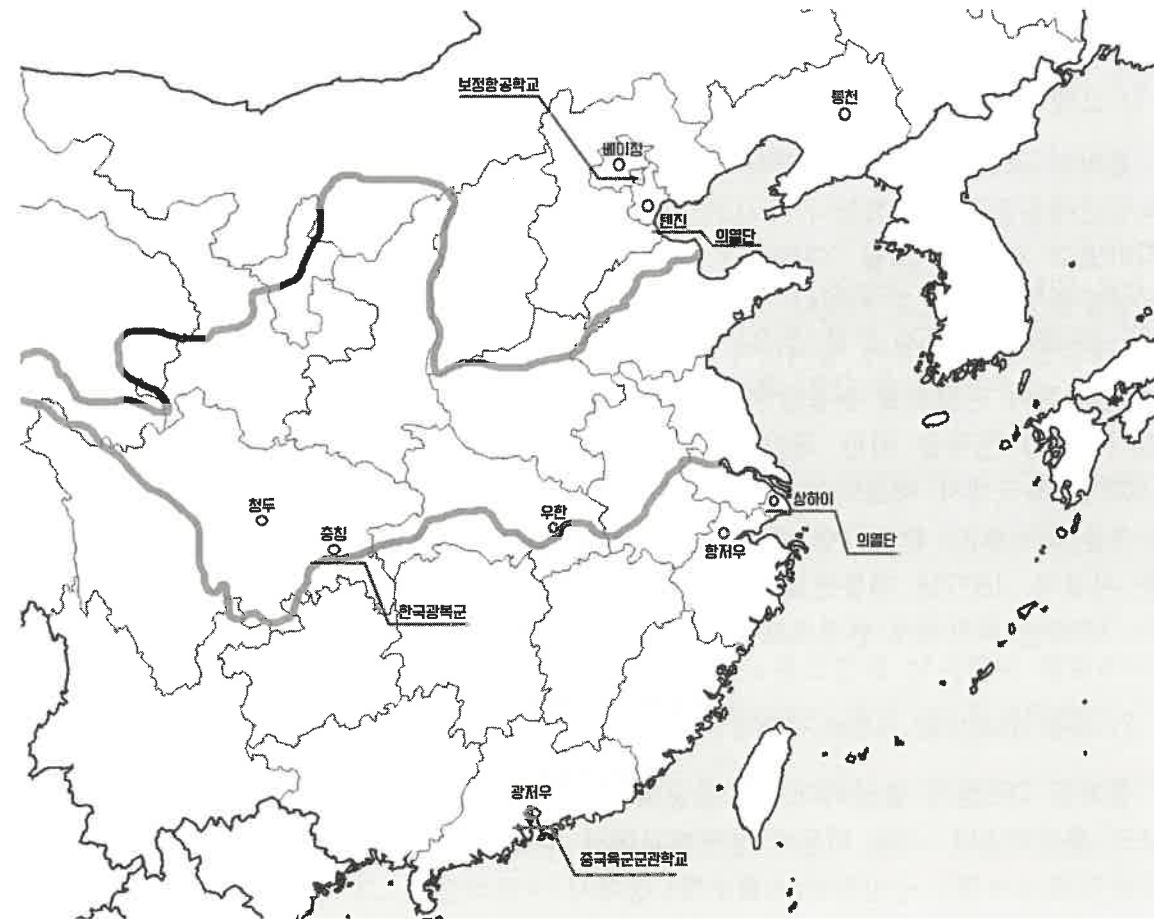
본적이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번지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철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8월 강대여 신원균 박건병 등과 철원애국단을 조직하였고 191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 성립 축하회 선언서” 배포하여 제2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박건병과 함께 애국단 대표로 상해로 파견되어 동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강원도 철원군 조사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무렵 그는 김가진이 단장으로 활동한 대동단에서 활동하였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혁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그는 창조파로 활동하였다. 1923년 奉天에서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된 그는 한성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의열단원 구여순(具汝淳)의 한성은행 자금 탈취를 도와주려다가 체포되어 징역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1980년 건국포장으로 훈격이 상향되었다. 1990년 훈장체계 변경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조정되었다.

2) 최용덕(崔用惠, 1898.~1969.)

성북동 265번지 출신이다.³⁶⁾ 2등군의를 지낸 최익환과 태안 이씨 사이에서 3남으로 출생하였다. 서울 미동의 봉명학교에서 수학하고 1913년경 중국 북경에 가서 회문중학(匯文中學), 숭실중학(崇實中學) 등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단기서(段祺瑞)의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에 입대하였다. 1922년 이후 1940년까지 중국 공군에서 교관, 수상비행대장(水上飛行隊長) 참모장, 공군기지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북경에서 서알보 등과 대한독립청년단을 정비하고 활동하였다. 1921년 4월경 북경 군사통일회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혁을 위한 주장을 하였다. 1922년 6월 북경에서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고, 천진(天津)에서 조선무산자동맹회장(朝鮮無産者同盟會長) 김한(金翰)과 의열활동을 위한 폭탄 확보와 투척 계획 등을 협의하여 김상옥(金相玉)의사를 지원하는 등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북경(北京)과 안동(安東) 사이를 오가며 폭탄운반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3년 의열단과 결별하고 신의단(信義團)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보정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1924년 오패부(吳佩孚)의 군벌 소속으로 제2차 봉직전쟁(奉直戰爭)에 참전하였다. 1932년 4월 조선혁명당이 창당되자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며, 대일전선통일동맹(對日戰線統一同盟) 조직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총사령부 총무처장에 임명되었으며, 1942년에는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여 중앙

36) 원래 함경도 혹은 평안도 출신으로 성북동에 거주하였다. 자필 이력서에는 본적이 성북동 265번지로 되어 있다. 김기동·강창부·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2015.

감찰위원에 선출되었다. 이후 광복군 총사령부에 근무하면서 항일투쟁을 지휘하였으며, 1945년에는 광복군 참장(參將)으로서 총사령부 참모처장으로 복무하였다.



최용덕의 중국지역 독립운동

3) 이원록(李源祿, 李陸史, 李活, 1904~1944)

경북 안동 사람으로 종암동 62번지에 거주하였다. 1926 봄 이정기(李定基)와 함께 북경에 가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7년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0년 북경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하였고 1932~33년 남경에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1기로 졸업하였다. 1934년 3월 서울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1944년 북경에서 옥사하였다.

2. 만주방면의 독립운동

1) 나중소(1867~1928)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출신으로 16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대한제국 진위대 부위(副尉)로 재직 중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한 후 1917년 경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3월 선생은 북간도 왕청현에서 서일 등 대중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정의단의 교관으로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자 참모부장에 임명되어 사령관 김좌진을 보좌하며 부대를 이끌었다. 북로군정서군의 사관연성소 교수부장으로 300여 명의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간 백운평과 천수평 등지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의 백발 장교로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청산리대첩 후 북간도를 거쳐 러시아 이만 지역으로 이동하여 1921년 4월 36개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독립단 참모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자 선생은 북만주로 돌아왔다.

1922년 1월 안도현 군인양성소 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내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9개 독립군 단체들의 군사통일체로 대한독립단을 재건하고 전 만주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24년 3월 대한군정서가 재조직되었고, 서무부장 겸 참모에 임명되었다.

1925년 3월 영안현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자 선생은 중앙집행위원회 참모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신민부와 정의부의 연합부대에서 간도의 훈춘, 장백 및 함경도 등을 관할하는 서남로 향관(餉官)에 임명되었다. 1928년 8월 신민부 지방조직을 설치하던 중 돈화현 산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2) 김규식(金奎植, 1882~1931)

양주군 노원면 출신으로 돈암동에 거주하던 노은(蘆隱) 김규식(金奎植, 1882~1931)은 1907년 군대해산 후 연천 등지에서 허위 등과 함께 의병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유형 15년을 받았다. 1910년 소위 은사감형(恩赦減刑)으로 풀려났다.

1919년 양주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1920년 8월 내란죄(內亂罪)로 기소되었다. 그는 체포의 손길이 다가오자 1920년 7월 15일 이성규의 안내로 서울을 떠나 1920년 8월 북간도 왕청현의 북로군정서에 도착하였다.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을 거쳐 제2연대 제1대대장에 임명된 그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백운평·천수평 등지에서 전개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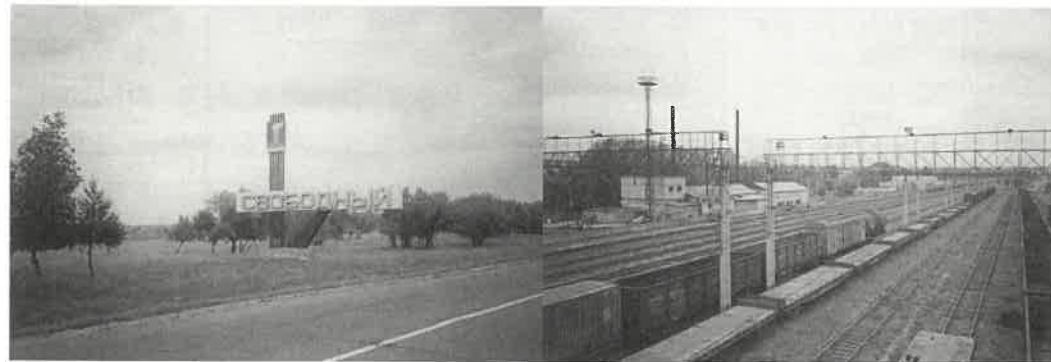
청산리전투 후 김규식은 노령으로 넘어가 1921년 3월 이만을 거쳐 알렉세프스크(자유시, 현 스보보드니)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홍범도·이청천 등과 대한의용군의 참모부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는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을 당하여 동지들을 잃는



청산리



청산리승전탑



자유시

수라세프카 역



영안현

산시 신민부터

VI. 성북구의 동별 독립운동가

1. 성북동

이름: 김복진	한자:金復鎭	출생: 1901.09.23. ~ 1940	
본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주소: 경기도 경성부 사직 / 성북동 175번지에서 검거			
계열과 단체: 고려청년회, 신건설사사건			
<p><활동 내용></p> <p>1927년 6월 서울 청진동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벗어나고 조선의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고려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8년 2월에 피체되어 징역 4년6월을 받았으며 30년대 민족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34년 12월 13일 새벽에는 성북동 175번지에서 김기진 등과 함께 신건설사 사건으로 검거되었다.</p>			
<p><특이사항>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34.12.14., 2면 8단, <경찰부동원활동 성북동 일대 대수색 김기진 김복진 등 다수검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독립유공자 공적조서(김복진)</p>			

이름: 김수룡	한자: 金壽龍	출생 : 1901.04.20. ~ 미상	
본적: 경남 양산군 동면 교리,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8			
주소: 서울 서대문 신영동 209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1919년 중앙학교 재학 중 현상윤의 권고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책임을 맡아 파고다에서 단성사까지의 연도의 일반인 및 상인에게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1919년 3월 5일 태극기를 제작하여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귀향하여 4월 4일 기장군(동래군)에서 좌천시장, 4월 5일 기장시장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p>			
<p><참고문헌></p> <p>국가보훈처, 「공적조서」.</p>			

이름: 김석윤	한자: 金錫胤	출생 : 1851.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16번지			
주소: 경성부 북부 묘동			
계열과 단체: 建北有韓公司, 고종황제 관련 활동			
<p><활동 내용></p> <p>李康來는 중국의 육군장관 馬建忠이 고종으로부터 은 20만량을 차용하였으므로 閔모가 중국에 가서 마건충의 자식에게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차용표를 지참하지 않아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이강래는 1915년 음력 6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이강래의 집과 경성부 익선동 차진원의 집에서 회합하여 마건충에 대한 증서를 고종에게 빌린 후 위의 자금으로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중국 간도에 이주한 후 建北有韓公司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신한국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동반하여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될 즈음에 원세개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을 제의하게 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이강래 등은 간도에 건북유한공사라는 것을 조직하고 미국의 하와이 재주 조선인과 연락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려고 하였다.</p> <p>김석윤은 이강래가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상서문을 받아 이강공에게 전달한 후 그 답장을 이강래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 김석윤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재판부에서 이강래가 이강공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로 문서를 위조하여 일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여, 김석윤은 면소 처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이강공과 연계된 독립운동에 대해 추가 조사가 요망됨.</p>			
<p><참고문헌></p> <p>「이강래 등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예심과, 1916.8.30.).</p> <p>「이강래 등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16.12.28.).</p>			

이름: 김하경	한자: 金河景	출생: 1917. ~ 미상
본적: 함남 함흥부 黃金町 3丁目 1번지		
주소: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60-49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8-1)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구		
<p><활동 내용></p> <p>경성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경유하여 1936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에 입학하였다. 1939년 동 대학 의학부에 진학하였다. 제3학년의 시기에 1939년 9월 20일 검거되었다. 1938년 겨울경부터 1940년 봄 무렵까지 「자본주의의 장치」, 河上肇 저 「第2貧乏物語」를 읽고 유물변증법에 비상하게 흥미를 느꼈다. 그 후 「유물변증법강화」, 「유물사관강화」, 「경제학대총」 등을 읽고 사회과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학부 학생인 김광수에게 이것을 독서할 것을 권유하였다. 1940년 8월경 김하경이 경성부 성북정 125번지에 거주한 이래 그 근처에 거주하는 공산주의자 金漢聲과 알게 되어 동년 10월 하순경부터 동년 12월 초경까지 성북정 126번지-1의 김한성 방 혹은 동정 458번지-12호 김하경 집에서 김한성으로부터 공산주의적 교양을 받고 더욱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한성으로부터 사회과학, 공산주의의 연구는 동지인 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를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940년 12월 하순경 경성부 종로구 관훈정 107번지 金港堂書店에서 조선총독부 경무국 편찬의 「소화9년제67회제국의회설명자료」 안에 있는 조선민족운동에 관한 기재에 흥미를 느껴 구입하여 이것을 읽고 1941년 1월경 김한성 방에서 위에 기재중인 코민테른 12월테제와 프로핀테른 9월테제 등의 어구에 대하여 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이 테제를 등사판에 인쇄한 것을 교부받고 범의를 계속하여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인 수 향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941년 9월 7일 경우 김한성이 사상운동 때문에 검거를 면하려고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9번지 14호의 김하경 집에서 숙박하려는 뜻을 구하자 그 실정을 알면서도 동일부터 동월 10일까지 동인을 동소에 체재케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였다. 그 사이 김한성은 폐결핵 때문에 각혈하였는데 병 치료를 희망하였다. 김광영에게 의뢰하여 동인이 알선하여 동월 10일 김한성을 성대부속의원 암정내과에 입원시켰다. 징역 1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淸井桓</p>		
<p><참고문헌></p> <p>『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1, 일제강점기의 교육(1936.4.1.).</p> <p>「김하경 고등법원판결문」(1945.3.22.).</p>		

이름: 노현중	한자: 盧鉉重	출생: 1920.09.29. ~ 미상
본적: 충남 천안읍 남산정 139번지		
주소: 서울 성북 177번지 25호 松山高吉방		
계열과 단체: 단파방송사건		
<p><활동 내용></p> <p>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 기술원. 1942년 11월 중순 경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에서 동과에 보관중인 경성정유사 소유 전파수신기로 山田國男, 高山得濟, 洪瑾鎬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일본어로써 방송된 내용에서 “솔로몬군도 방면에서 미국군이 대승하여 일본군은 패퇴되었다는 선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선어 방송의 내용에서 “서태평양 솔로몬군도의 가다카날섬에서 일본군은 전멸되었고, 또 반격하여 온 일본군함을 격퇴한 미영연합군은 동방면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제압하였다.”는 내용과 “연합국은 모두 대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진보된 과학의 힘과 우수한 기술에 의하여 선함, 비행기, 기타 우수한 병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음은 물론 총후국민의 생활도 자못 유복한 반면 일독이의 추축국은 선함 기타의 병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일선 장병의 식량도 궁핍한 상태이므로 장기전이 되어서는 최후의 승리는 영미연합국측이다. 조선동포는 그에 협력하여 일본군을 격멸하여 조선독립을 단행하고, 일한합병 30년의 적원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독립만세라는 선전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重慶에서 일본어 방송의 내용에서 “일본군함공병은 대륙적 고등비행에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량이 열악하지만 연합국측은 항공병은 대륙의 고등비행에 경험이 있어서 자못 우세하다는 선전 등을 청취하였다. 1943년 2월 하순 경 동일장소에서 조선방송협회 사업부의 팔목삭일의 전파수신기를 허가 없이 공과에 시설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金村炳燾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일본어 방송을 청취케 하고, 익일 종일 장소에서 홍근호 및 금촌병욱에 대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본어와 조선어 방송을 청취케 하였다. 1943년 2월 하순 경 경성부 삼청정 65번지 新村旻洙의 집에서 동인 및 두명과 함께 음주하면서 동인들에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임시정부에서 조선어로써 방송된 내용에 의하면 금차 대동아전쟁은 서전에서는 미영연합군에 대하여 일본군이 우세한 것 같이 보였지만 일본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차차 전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미영연합국은 대국으로 경제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되면 최후의 승리는 미영연합 측에 있다. 미영연합국이 승리하면 조선은 당연히 독립국으로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적국이 우리 총후에 유포하려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전하였다.</p>		

武信 등에게 조선인은 만주지나, 미국, 영국, 소련 등 해외의 각처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소련에는 전부 공산당원이 되어 남녀 공히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소련에서 활약할 뿐만이 아니라 선내에 잠입 활동 중인 자가 있다. 기타 각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도 모두 조선독립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여 동인들을 지도계몽하였다. 이 일로 박노태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 井上魯胎

추천 대상

<참고문헌>

「청송신남·정상노태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7.4.9.).

이름: 박홍식	한자: 朴弘植	출생: 1902.03.17. ~ 미상	
본적: 경기도 경성부 종로 4정목(출생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5번지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1919년 3월 23일 밤 종로구 5丁目에서 15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9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p>			
<p><특이사항></p> <p>신분 평민. 직업은 구두 직공. 신장 5척 2촌 5분.</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관련 인물 사진 존재.</p> <p>「박홍식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7,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이름: 방용모	한자: 方容模	출생: 1919~미상
본적: 평북 정주군 남서면 화산동 293번지		
주소: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95-28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구		
<p><활동 내용></p> <p>방용모는 본적인 평북 정주군의 梟湖공립보통학교와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를 경유하여 1939년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 응용화학과에 입학하였다. 1939년 저녁 무렵 경성부 명륜정 하숙에서 고등보통학교시대의 동급생인 金川相俊, 牙山軫榮과 회합하였을 때, 아산진영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1940년 10월경 앞서 1939년경 아산진영의 소개로 알게 된 공산주의운동가 李種甲(경성콤그룹)에게 설유되어 경성부 양주군 도봉산에 올랐을 즈음 동인에게서 경성고등공업학교내의 정세를 조사한 후, 공산주의는 이론에서 실천의 시기라는 취지의 교양을 받았다. 그 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경성부 성북정의 성벽에서 회합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1940년 10월경부터 1941년 6월경까지 매주 월요일 경성부 성북정 성벽에서 이종갑과 회견하였다. 그 동안 이종갑으로부터 「조직론」, 「국가와 혁명」,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산당선언」 등의 저서를 대여받은 외, 공산주의는 이론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동지 획득, 이론과 실천의 상화 관계, 기타에 대하여 교양을 받았다. 1941년 1월 13일 방용모의 하숙에서 이종갑과 만나 동인에게 겨울방학의 귀성 중에 보았던 농촌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농촌에서 주의운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1941년 4월 7일경 학교의 봄방학 때 성북정의 성벽에서 이종갑과 회견하고 동인에게 귀성중의 농촌상황에 대해서, 田畠에서는 군면당국에서 세금부과 등을 취하여 빈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농민에게는 하나도 향상이 없다는 취지를 보고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후 상급학교에 입학지망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함에 이종갑으로부터 상급학교 입학을 단념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주의운동을 경성고등공업학교 내에서 동지 획득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1941년 7월 초순 경성부 명륜정 3정목 방용모의 하숙에서 동년 6월부터 친교가 있던 경성고등공업학교생도인 趙東俊이 방문하자 함께 성북정의 산을 산책하면서 “독·소전은 소련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우리 자연과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사회의 상식을 넓혀야 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는 데는 동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941년 6, 7월경 공산주의운동자 牧山恒珪로부터 김창수의 위명으로 3회에 걸쳐 수지로써 “친공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하려고 회견 방안을 제출하였다. 동년 7월 12일경 경성부 동소문의 만두집에서 牧山과 회견하고 동인으로부터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일을 찾아서 재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동월 16일 오후 8</p>		

시경 버스정류장에서 목산과 회견하고 그 부근의 동성상업학교의 내산에서 동인으로부터 지금은 이론에서 실천의 시대라면 동지 획득에 노력하려고 도모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동지 획득의 책임자로 활동하라는 취지로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 오후 8시 동소문 버스정류장에서 회견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 方山容模

<참고문헌>

「방용모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9.27.).

이름: 배성룡	한자: 裴成龍	출생: 1896.10.28. ~ 1964.12.08.
본적: 경북 성주		
주소: 경성부 성북정 176-4번지		
계열과 단체: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p><활동 내용></p> <p>1924년 화요회.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에 참여하였다. 정우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방 후에는 이극로, 권오익과 통일정권촉성회를 결성하여 비상국민회의와 민전의 통합을 위해 활동하였다. 1946년 7월 좌우합작촉진회 결성하였고, 1947년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 활동을 하였다. 1948년 김구의 남북협상을 지지하였다.</p>		
<p><특이사항></p> <p>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p>		
<p><참고문헌></p> <p>被疑者 裴成龍 訊問調書</p>		

이름: 서광훈	한자: 徐光勳	출생: 1903.10.17. ~ 미상
본적: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번지.		
주소: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번지.		
계열과 단체: 형평사, 고려혁명당		
<p><활동 내용></p> <p>1913년 3월 3일 於義洞공립보통학교 졸업한 후 上星學校에서 2학년 동안 수업을 받았고, 1916년 철원잠업전습소를 졸업하였다. 1917년 11월 평강면 서기가 되어 활동하다 1918년에 사직하였다. 그리고 평강역전에서 운송점을 개업하였다. 1922년 성북리 三山學校 교사로 활동하였다. 1924년 형평사 서기, 1926년 형평사 집행위원에 선정되어 활동하는 한편 한양청년연맹 집행위원, 正衛團 총무로 활동하였다. 이 외에 북풍회, 신흥청년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1927년 1월 19일 고려혁명당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1928년 무죄로 석방되었다. 1932년 형평사 내에서 『농인』이란 잡지를 발간하였다. 1933년 형평사 내에 공산주의적 전위동맹을 설립한 혐의로 전라도 광주서에 체포되어 수년간 신문을 받으면서 옥고를 치렀으나 1936년 무죄로 석방되었다.</p>		
<p><특이사항></p> <p>직업 평강면 서기, 운송업, 학교 교사. 신장 5척 2촌. 안색은 흑, 中肉. 이명 徐明福</p>		
<p><참고문헌></p> <p>『倭政時代人物史料』 1권, 111-112쪽. 『조선중앙일보』 1933.8.2., 2면 1단 <형평비밀결사사건>. 『조선중앙일보』 1936.3.21., 2면 5단 <형평사공청사건, 13명에 무죄 언도>. 『조선일보』 1936.11.22., (대구복심법원 판결, 전원 무죄 석방).</p>		

이름: 성봉진	한자: 成鳳眞	출생: 1908. ~ 1928.11.22.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			
<p><활동 내용></p> <p>1928년 서울에서 경성출판노동조합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조사 중 장티푸스가 발병하여 성북동 순화원에서 치료 중 순국하였다.</p>			
<p><특이사항></p> <p>2008년 건국포장 추서</p>			
<p><참고문헌></p> <p>경성출판노동조합 정기대회 개최의 건, 국가보훈처, 「공적조서」.</p>			

이름: 손용우	한자: 孫龍祐	출생: 1923~미상	
본적: 경기도 양평군 설악면 방설리			
주소: 성북동 133-60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조선문화학원			
<p><활동 내용></p> <p>조선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생(갑조) 손용우는 현주소지에서 중동학원 4년생 이완기로부터 “독일이 구주를 통일한 후에는 동양에 손을 미쳐 일본을 공격할 것인데 그때는 일본은 패전하게 되고 대륙의 제 권익을 방기하고 조선이 독립될 순서이다. 우리는 당연히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공명하였다. 1940년 9월 초순 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갑조) 교실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安秉九, 權懿, 李鍾浩 등과 함께 전기 이완기로부터 들은 내용과 같이 일본패전을 기회로 조선독립을 목표로 매진하자고 협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사는 허위로 학습의 가치가 없다고 공격하고 혹은 몇 년 전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이 패용한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민족적 기사를 게재한 것을 기인으로 동아일보를 정간하고, 지난번,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를 폐간한 것은 요컨대 민족투쟁에 있어 비참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민족사상을 주입하고 선전하였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天日正雄</p>			
<p><참고문헌></p> <p>「이완기(석촌완기)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42.5.31.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및 조연비어사건 검거에 관한 건」1940.10.31. 『사상에 관한 정보(12)』.</p>			

이름: 유진희	한자: 兪鎭熙	출생: 1893.02.11. ~ 미상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도엽동(성북정에서 병원 경영)			
계열과 단체: 신생활사 사건, 조선공산당, 신간회			
<p><활동 내용></p> <p>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하고 성북정에서 병원을 경영하였다. 1921년 3월 13일 조선노동공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22년 11월에는 「신생활」사 잡지 기자로서 러시아혁명 5주년기념 기사와 자유노동조합취지서를 인쇄 배부하다가 조선언론에 대한 일본 사법권의 개입으로 피체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복역하였다. 1925년 4월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단일당을 표방하여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고 식민지 정책의 타도와 총독정치를 배격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4년을 받는 등 일제에 항거하였다. 광복 후에는 입법의원 관선의원으로 건국에 이바지하였다.</p>			
<p><특이사항>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p>독립유공자 공적조서(유진희)</p>			

이름: 안복산	한자: 安福山	출생: 1914.05.14. ~ 미상	
본적: 서울 혜화동 198-2			
주소: 송인면 성북동 170-5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적우회 사건			
<p><활동 내용></p> <p>서울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4월 조선총독부 부립 도서관에서 급사로 근무하다가 1931년 2월부터는 『조선일보』 급사로 근무하였다. 1931년 5월 권又成 등과 독서회를 조직한 후 동년 6월 이를 적우회로 변경하였다. 동년 7월 노동반(적색출판노동조합)의 책임을 맡았다. 동년 8월에는 공산청년동맹을 조직하려 하였다. 동년 9월 만주사변 발발 후 반전격문과 적우회 기관지 『적우』를 발간한 후 배포하려다가 체포되어 1932년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출옥 후 적색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하였다. 1935년 5월경 메이데이 시위를 앞두고 일경에 체포되었다.</p>			
<p><특이사항></p> <p>이명 안효성(安曉星), 常民. 洗布業. 5척 6촌 3분</p>			
<p><참고문헌></p> <p>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p.267</p> <p>「경성제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동아일보』, 1932.11.24</p>			

이름: 이근창	한자: 李根昌	출생: 1916.9.20.~1944.1.21.
본적: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76번지		
주소: 경성부 성북정 177-25번지		
계열과 단체: 단파방송사건		
<p><활동 내용></p> <p>1942~43년 수신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된 조선어 방송 등을 듣고 전시 상황 등을 유포하였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고 옥중 중 1944년 1월 21일 옥중에서 사망하였다.</p>		
<p><특이사항></p> <p>이명은 李高吉, 창씨명 松山高吉.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 기술원으로 재직하였다.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p>		
<p><참고문헌></p> <p>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0.</p>		

이름: 이완기	한자: 李完基	출생: 1924. ~ 1942.05.23.
본적: 경성부 수송정 83-6		
주소: 경성부 성북정 133-60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p><활동 내용></p> <p>이완기는 1940년 7월 초순 경성부 성북정 133번지 (全泰賢)金長顯의 집에서 同宿중이던 손용우(天日正雄)에 대하여 말하기를 “조선인은 조선을 잊지 말고 학업중에는 학우를 지도하고, 졸업 후에는 농촌청년을 지도하여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아 민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동인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1940년 7월 중순 동소에서 동인에 대하여 금차 구주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귀결됨이 명확하여 독일은 구주통일 후 세력을 동양에 연장하고 일본과 충돌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지나사변으로 경제가 파탄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저항하지 못하고 패전할 것이므로 금후 그 기회를 잃지 말도록 준비를 하여 둠이 요망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양인의 찬동을 구하였다고 한다. 1940년 9월 일 불상, 교실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4학년 갑조생 전반에게 “장개석이 일본에 대하여 화평조건을 제출하였는데 이 화평조항 중 조선독립을 인정할 사, 이 일항에 가입한 실사가 있기에 조선독립은 지나사변을 계기로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운동장에서 군사조련에 반대하는 등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손용우를 민족적으로 지도하여 사립학교 생도는 자못 조선혼을 망각하지 말라고 설유하였다. 1940년 9월 중순 경 중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일한병합에 탄식하고 조선의 독립이 독립되어 있다면 조국을 위한 원정에 용감히 도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는 일본의 식민지인 것이 조선의 존재이므로 일본병을 지원하여 일본을 위하여 희생하고 전쟁을 행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지원병제도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지원병을 보낼 즈음에도 조선혼을 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족적으로 격려하였다. 또 지나사변은 인구의 다과, 식량문제, 외국협조문제 등에 의해 결과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조언비어를 하였다. 그리고 동아신질서의 대방침을 비평하고, 왜노 등의 행위는 실로 교묘한 기만이라고 하는 불온한 배일적 언사를 교환하였다. 9월 17일 중등학교 생 전반에게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즈음 그것에 반대하는 의지로 고의로 결석한 사람이 다수였고, 올해 여름 중등학교에서 군사강연의 즈음에 지원병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수하라고 종용함에도 거수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1940년 10월경 중등학교와 문화학원 학생의 민족의식 고취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가혹한 신문과 조사를 받던 이완기는 1942년 5월 23일 사망하였다. 1942년 5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되었다.</p>		

<p><특이사항> 창씨명 石村完基 추천 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p>
<p><참고문헌> 「이완기(석촌완기)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2.5.31.)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및 조연비어사건 검거에 관한 건」(1940.10.31.) 『사상에 관한 정보(12)』.</p>

이름: 이종린	한자: 李鍾麟	출생: 1883.02.12. ~ 미상	
본적: 충남 서산군			
주소: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75번지.			
계열과 단체: 3·1운동, 신간회			
<p><활동 내용></p> <p>1908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경학을 배웠다. 1908년 성균 박사. 1908년 5월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12년 『대한민보』 창립자. 3·1운동 후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3년간 투옥되었다.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위원, 1929년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참여에 참여하였다. 1930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신간회경성지회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44년 천도교 교령이 되었으며 1948년 제헌국회의원,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50년 9월 28일 납북 중 사망하였다.</p>			
<p><특이사항></p> <p>1930년 후반 이후로는 일제에 협력</p>			
<p><참고문헌></p> <p>이동초, 『봉산집』 권1(동양서적공사, 1982), pp.277~283.</p> <p>사해공론, 1936.2.</p>			

이름: 정진숙	한자: 鄭鎭肅	출생: 1910.~미상
본적: 충남 천안군 북면 운곡리 284번지		
주소: 동대문구 성북정 177-40		
계열과 단체: 시국담		
<div><활동 내용></div> <p>1934년 3월 휘문중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11월 東一銀行 남대문지점에 행원으로 채용되었다. 1943년 10월 동일은행이 漢城銀行과 합병하여 朝鮮銀行이 되자 동은행 종로지점에 근무하였다. 1944년 10월 23일 오전 9시경 동 지점에서 동 지점에 근무하는 河壹尙 및 金溶汪 등과 잡담 중 “사이판 섬에서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동도의 우리가 완전히 옥쇄함과 사령관은 전 도민을 모아 일본인 이외의 사람은 밖으로 내보냈는데 조선인은 예외로 내보내지 않았을 때, 사령관은 조선인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예외자에 대하여 그대들은 일본을 위하여 지금까지 잘 협력하여 주었다. 그대들은 자유롭게 돌아가려면 돌아가라는 취지로 동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내지인은 전부 기관총으로 사살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대동아전쟁기 육해군의 군사에 관하여 造言飛語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정진숙은 1945년 1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p>		
<div><특이사항></div> <p>창씨명 水谷文一</p> <p>추천 대상</p>		
<div><참고문헌></div> <p>「정진숙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5.1.29.).</p>		

이름: 정태식	한자: 鄭泰植	출생: 1911.09.08. ~ 미상	
본적: 충북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386번지			
주소: 경기도 경성부 성북리 184-32			
계열과 단체: 적색노동조합			
<div><활동 내용></div> <p>1929년 3월 청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다. 1933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법문학부 조수가 되어 경제연구실에서 근무하였다. 1933년 4월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였고 용곡여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934년 4월 경성법률전문대학에 반제반, 문화반, 구원반을 조직하였고, 동월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년 5월 적색노동자그룹, 공산주의자그룹 결성에 참여하여 식료품부 책임자, 공청부 책임자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934년 5월 체포되어 1936년 11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미결구류 180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40년 12월 5일 출옥 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여 인민전선부에 소속되었다. 1945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 경제부원, 1946년 2월 민전 중앙위원, 1946년 11월 남노동 중앙위원·조사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4월 체포되어 5월 육군본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때 풀려나 서울에서 『해방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북한에서 농림성 기획처 부처장을 지냈다. 남로당 숙청 당시 숙청되었다.</p>			
<div><특이사항></div> <p>월북</p>			
<div><참고문헌></div> <p>京東警高秘 제1311호 메이데이檄文 關係犯人 檢舉에 관한 건,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최두선	한자: 崔斗善	출생: 1894.11.01. ~ 미상	
본적: 서울 수은 6			
주소: 서울 성북 177-30			
계열과 단체: 흥업구락부사건			
<p><활동 내용></p> <p>최두선은 1894년에 출생하여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고, 1919년에는 중앙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경성방직회사 상무취체역, 전문취체역, 사장을 역임하였고, 1921년에는 조선어연구회의 발족에 참여하였다. 1925년 조선사정연구회에 참여하였고, 1927년 중앙고보 교장, 1933년 보성전문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1938년 흥업구락부사건으로 신흥우·안재홍 등과 함께 피검되었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興業俱樂部 關係者の 動靜에 관한 건(1938)</p>			

이름: 최용덕	한자: 崔用德	출생: 1898.11.02.~1969.08.15.	
본적: 서울 성북동 265번지			
주소:			
계열과 단체: 광복군			
<p><활동 내용></p> <p>서울 사람으로 1916년 북경에 있는 중국군관학교 졸업 후 중국육군에서 근무하였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사직하고 상해, 북경, 봉천, 안동 등지에서 선전문과 무기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안동에서 황옥을 찾아 권총과 선전문을 몰탈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중국군 사령관 陣興장군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이때 안동으로 다시 잠입하여 이룡양행에 맡겼던 무기와 선전문을 찾아 국내 연락 동지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하였다. 1922년 이후 1940년까지 중국 공군에서 교관, 水上飛行隊長 참모장, 공군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922년 6월에는 金元鳳이 조직한 義烈團에 참여하여, 天津에서 조선무산자동맹회장) 金翰과 의열활동을 위한 폭탄 확보와 투척 계획 등을 협의하여 金相玉 의사를 지원하는 등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北京과 安東 사이를 오가며 폭탄운반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2년 4월 조선혁명당이 창당되자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며, 對日戰線統一同盟 조직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총사령부 총무처장에 임명되었으며, 1943년에는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여 중앙감찰위원에 선출되었다. 이후 광복군 총사령부에 근무하면서 항일투쟁을 지휘하였으며, 1945년에는 광복군 參將으로서 총사령부 참모처장으로 복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p>			
<p><특이사항></p> <p>1962년 독립장 추서</p>			
<p><참고문헌></p> <p>김기동, 강창부, 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95 『하늘의 개척자 최용덕 장군』, 공군본부, 1956 국가보훈처 공훈록</p>			

이름: 최차옥	한자: 崔次玉	출생: 1914.09.11. ~ 미상	
본적: 함남 홍원 주익 남단 23			
주소: 고양 송인 성북 88			
계열과 단체: 프로핀테른 태평양노동조합 선내공작사건			
<p><활동 내용></p> <p>實踐女學校 생도로서 1930년 7월 飽迄교장의 행위를 비난하며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가 이로 인해 체포되었다. 1932년 3월 홍원농민조합사건으로 체포되었다. 1934년 權榮台 등이 주도한 프로핀테른 태평양노동조합 서기국의 선내공작사건에 관련하여 검거되었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프로핀테른태평양노동조합서기국 선내 공작사건 검거에 관한 건」(1934.6.8.)</p> <p>『사상에 관한 정보』 7.</p>			

이름: 현학손	한자: 玄學孫	출생: 1908.07.06. ~ 미상	
본적: 충북 충주 산천 송강 1 246번지			
주소: 서울 성북 성북정 185-2			
계열과 단체: 시국담			
<p><활동 내용></p> <p>1932년 4월 공산주의자 柳仁術을 만나 그로부터 공산주의사상을 소개받고 공명하였다. 그는 1934년 5월 상순 1936년 8월까지 加藤洋服店 등에서 일을 하던 중 양복직공 尹載鎬, 尹鳳載, 金鳳洙 등에 대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였고, 유인술·柳昌與·朴基福과 1937년 3월까지 좌익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1937년 9월 하순 경 경성에서 柳昌與와 만나 “지나사변에 의하여 용공국 대 반공국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혹은 세계대전으로 진전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장기전으로 될 것은 명확하니 결국은 전비가 높아지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패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사변에 관하여 이른바 ‘造言飛語’를 유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현학손은 1939년 3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0월(미결구류 90일 산입)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1939년 10월 8일 출옥.</p>			
<p><특이사항></p> <p>이명은 玄基白, 玄芳, 玄聖河, 직업 양복 직공</p>			
<p><참고문헌></p> <p>수형인명부. 신분장지문원지. 「적로의 준비공작사건 검거의 건」(1938.12.8.) 『사상에 관한 정보 11』,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2. 돈암동

이름: 강영준	한자: 姜永俊	출생: 1906.10.19. ~ 미상
본적: 전북 정읍군 용동면 비봉리 535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시국담		
<p><활동 내용></p> <p>경성 인문중등학교 학생 강영준은 본적지에서 중농의 집에 태어나 1939년 3월 전북 정읍군 칠보면 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성숭례공립초등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 동교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1941년 4월 경성인문중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41년 여름 휴가 즈음 본적지로 귀성하였다. 그런데 영덕중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구의 인도에 대한 기만정책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독한 결과 대동아전쟁하의 조선민족의 장래도 또한 그와 동양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전사상을 갖게 되었다. 1943년 11월 4일 주거지에서 정읍군 칠보면 와우리 閔丙燮으로부터 곡식의 공출 할당은 전년의 3배로 강화되어 농민이 곤궁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그에 불만을 품고 11월 9일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의 실부인 전북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589번지 安藤在春 앞으로 붙인 서신에서 “칠보면 집의 소식을 들은 바에 의하면 농부들의 고심이 실로 깊어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문방리는 다소 좋겠지만 다양한 공출문제는 정읍보다도 혹심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 만일 수십 년간 지속된다면 우리 조선민족내란이 야기될 것이다. 전문대학의 문과계통의 학문은 폐쇄되고 전부 특별지원병에 간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국에 관한 인심을 혹란하였다”고 하여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姜本永俊</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강영준판결문」(전주지방법원: 1944.1.25.).</p>		

이름: 강천룡	한자: 姜千龍	출생: 1904.07.28. ~ 미상
본적: 경성부 서대문구 냉천동 74-37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계열과 단체: 시국담		
<p><활동 내용></p> <p>강천룡은 1944년 7월 하순 경성부 종로구 명신정목 70번지 5호의 식료품공장에서 3명에게 종종 시국에 대한 사항, 내각에 대한 상황, 미국에서 한인들이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44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1945년 2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姜山道雄, 직업은 豆萌생산업.</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강천룡 등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11.1.).</p> <p>「강천룡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45.2.10.).</p>		

이름: 권유근	한자:	출생: 1908.10.29. ~ 미상	
본적: 경성부 중학 37			
주소: 경성부 돈암정 7-123			
계열과 단체: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			
<p><활동 내용></p> <p>1926년 중앙고보에 다니던 중 6·10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1929년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으로 광주학생운동에 동조시위를 벌이려고 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84, 285, 292, 293쪽.</p>			

이름: 김규식	한자: 金奎植 盧隱, 金成	출생: 1882.01.15. ~1931.04.10.	
본적: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281번지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계열과 단체: 허위의진, 13도의군, 북로군정서			
<활동 내용>			
<p>1903년 1월 대한제국 육군사관학교의 견습생으로 입교하여 수업을 받다가 1904년 3월 동교가 폐교되자 퇴학당하였다. 1905년 12월 대한제국의 시위대에 입대하여 1906년 副校가 되었다. 이후 研成學校에서 근무하다 1906년 10월 청원퇴영하였다. 이 무렵 돈암동에 거주하던 그는 1907년 음력 6월 전 육군 정위 玄德鎬가 주관하던 梨峴基督新興學校 사무를 보다가,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자 현덕호와 함께 양주군 동두천에 가서 허위의 부대에 참여하여 마전, 삭녕, 연천, 양주, 철원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1년 만에 체포된 그는 1908년 8월 경성공소원에서 내란죄로 유형 15년의 형을 받았다.</p> <p>1920년 7월 15일 서울에 독립군을 모집하러 온 李成奎 및 前부의 洪忠意, 前參尉 金燦洙·朴亨植과 함께 서울을 떠나 8월 북로군정서에 참여하였다.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을 거쳐 제2연대 제1대대장에 임명된 그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백운평·천수평 등지에서 전개된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p> <p>청산리전투 후 김규식은 노령으로 넘어가 1921년 3월 이만을 거쳐 알렉세프스크(자유시, 현 스보보드니)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홍범도·이청천 등과 대한의용군의 참모부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는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을 당하여 동지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았다.</p> <p>이 직후 북만으로 돌아온 김규식은 1922년 말 목릉현(穆陵縣) 마교하(馬橋河)에서 김좌진·이범석 등과 재기를 모색하였다. 얼마 뒤 중국 관현의 무장해제를 당하고 영안현(永安縣) 영고탑(寧古塔)으로 이동하여 재기를 모색하였고, 이것마저 제지를 당하자 연길현(延吉縣)으로 이동하였다.</p> <p>1923년 5월 연길현 명월구(明月溝)에서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을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향후의 전투를 대비하여 평소 노동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둔경제(屯耕制)를 실시하였다. 1924년 3월 영안현에서 조직된 대한군정서의 참모로 참여하였고, 동년 5월 고려혁명군이 대한군정서에 통합된 후 대한군정서의 총사령에 선임되었다.</p> <p>1925년 3월 목릉현에서 북만지역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부여족통일회의(夫餘族統一會議)를 개최하고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이후 그는 연수현(延壽縣) 태평촌(太平村)에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는 신민부가 민정파와 군정파로 분화될 때 민정파에 참여하여 1928년경 민정파에서 조직한 고려국민당의 군사</p>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대 후반 북만주의 독립운동단체들의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 정의부 주류를 중심으로 국민부(國民府)가 조직되자 그는 이청천·신숙 등과 함께 1930년 7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31년 3월 주하현 하동농장에 가서 이청천·신숙 등과 연수현에서 운영하던 학교 문제를 논의하려다가 백운봉과 최호의 습격으로 피살되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특이사항>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참고문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4, 국가보훈처, 1987, 517-519쪽.
김규식, 「김규식(노은) -만주독립투사의 거목, 암살당하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리니』(김영사, 2008), 198-218쪽.
국가보훈처, 『요시찰인명부』, 1996, 112-115쪽.
「판결문」(경성공소원, 1908.8.25.).

이름: 김대봉	한자: 金大鳳	출생: 1913.05.16. ~ 미상	
본적: 경성부 돈암정 455-13			
주소: 경성부 돈암정 455-13			
계열과 단체: 강제동원체제 저항			
<p><활동 내용></p> <p>1938년 9월 21일부 “조선민족은 이미 망해버렸다면서 悲歎曲筆하고 전체를 통해서 민족의식이 농후”한 시집 『무심』을 발간하려다가 출판을 금지당하였다. 이 책의 제1절 무심편(구도자)에는 “우주여, 세계여, 인생이여 餘慶이 없는 우리들의 머리를 영원히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대학도 학관도 지도자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우리들은 사색의 공동에 방랑자의 운명과 같이 유전하여 왔다.” 등의 글귀가 있었다. 그리고 제4절 傷春曲(사투리)에는 “洛水와 남산이 변하는 것, 나의 고향의 말까지 변하고 있는 것이여”, “흘러가는 낙동강이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출판물 금지 요항 - 안녕 금지- 『無心(시집)』」(1938.09.21.) 『조선출판경찰월보』 121호,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이름: 김동익	한자: 金東益	출생: 1887.01.02. ~ 미상
본적: 경성부 종로 6-54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동 산 49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김동익은 경성부 루동에 거주며 은세공상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던 중 독립만세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1919년 3월 말 서대문 1정목 부근에서 10여 명과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p>		
<p><특이사항></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김교승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5.28.).</p> <p>「장석영 등 판결문」(고등법원, 1919.10.20.).</p>		

이름: 김월옥	한자: 金月玉	출생: 1914.12.13. ~ 미상	
본적: 함남 원산 남촌 31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적색노동조합			
<p><활동 내용></p> <p>함남 원산 출신으로 원산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정신여학교, 용곡여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독서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퇴학당하였다. 1933년 1월 정태식과 함께 거처하였다. 1934년 용곡여학교에서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히라다 백화점, 경성보육학교,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내의 비밀조직에서 활동하였다. 1934년 5월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그 후 체신국에서 적색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였다. 1936년 평양에서 검거되었으나 반년만에 석방되었다. 1936년 7월 이주하그룹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조선중앙일보』 1936.3.10., 2면 1단, <동대문사건의 피의자 전원 석방, 반년 취조에 무소독>.</p>			

이름: 김재황	한자: 金在璜	출생: 1917.04.18. ~ 2004.12.07.	
본적: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280			
주소: 경성부 돈암정 458-349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조선학생동지회			
<p><활동 내용></p> <p>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인 1939년 12월에 동교생 金相欽·徐泳源·金永河·李東元·閔泳魯등과 함께 시내 사직동 소재 윤주연(尹柱淵)의 집에 모여 항일결사 朝鮮學生同志會를 조직하였다고 한다.</p> <p>동회는 독립투쟁을 3·1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거행하기로 하고 1942년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동안에 이들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하였으며, 동경유학생 등 해외유학생과도 연락을 맺어 거국적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들과 함께 1940년 2월부터 1941년 7월까지 남한산성·냉천동약수터·연희전문학교 뒷산·벽제관 등 각지에서 모임을 갖고 독립의식을 길렀으며, 동지규합과 조직 확대에 힘을 쏟아 전국 도청소재지 및 주요 도시에 하부조직을 설치하였다.</p> <p>그런데 1941년 7월에 동회의 하부조직인 원산상업학교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동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동년 9월에 일경에 피체되었고, 연희전문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피체 후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3월에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다.</p>			
<p><특이사항></p> <p>1990년 애족장 추서</p>			
<p><참고문헌></p> <p>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6, 282-283쪽.</p>			

이름: 노국환	한자:	출생: 1924.02.05. ~ 미상	
본적: 전북 순창 상치 운암 507			
주소: 경성부 돈암정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독서회			
<p><활동 내용></p> <p>1940년 10월 당시 중앙중학의 4학년생인 盧國煥·黃鍾甲·李氣乙·柳永夏·趙成勳 등 5명이 민족정기와 독립쟁취에 관한 협의와 역사·정치에 관한 문제를 토론허기 위해 '5인 독서회'를 조직하고 지리를 담당하고 있던 崔福鉉을 지도교사로 추대하였다. 이들 '5인 독서회'는 1941년 7월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활동하던 중 황종갑의 서신이 발각되어 그해 8월에 검거되었다. 관련 학생들은 100일 만에 함흥형무소에서 석방되고 최복현은 1943년에 출옥하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8권</p>			

이름: 박래수	한자: 朴來洙	출생: 1925.07.28. ~ 미상	
본적: 경기 용진군 서면 읍저 421			
주소: 경성부 돈암정 산 65-18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시국담			
<활동 내용> 배재중학교 1학년. 1940년 8, 9월 중순경 전태현의 집에서 모여 李鍾浩, 全泰賢, 趙在弘, 殷仁寬, 朴炯洛 일미관계와 지나사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는 중국군의 전황이 불리하지만 소련군이 중국군을 원조하여 양국이 일본군을 공격하면 일본 패전은 필연의 정세이다. 그러니 이 정세를 타고 조선독립을 실현해야한다. 현재 조선독립당원의 다수가 소련 적군에 합류하여 있음으로써 소련군과 중국군의 일본군 공격에 즈음하여 우리 조선인은 일치단결하여 소련군과 중국군에 가담하여 조선독립을 용이하게 하자고 결의하였다. 조선의 왕을 귀환시키지 않는 것은 현재 일본인을 쳐로 삼아 일본에 거주하고 조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조선에 돌아온다면 조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전하도 조선인이라면 조선독립의 새벽에는 당연히 왕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른바 ‘왕족에 대한 불경언동’을 하여 체포되었다.			
<특이사항> 창씨명 辰居武俊			
<참고문헌> 「문화학원 및 중등학교 생도등의 불경 및 불온행동에 관한 건」(1940.11.04.) 『사상에 관한 정보』 12,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름: 박철	한자: 朴哲	출생: 1899.09.17.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5		
주소: 평남 평양 이문리 30		
계열과 단체: 평양노동청년회		
<p>1927년 평양에서 金嘉鎭, 金鍾聲, 徐元俊 등과 함께 평양에서 공산주의계 노동단체인 평양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28년 1월 평양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순간 무산자만세와 무산자해방가를 불렀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여 우리의 자유를 막으려하느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 법정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자유를 막을 터이냐”라고 호령하였다. 그는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감형되어 1928년 12월 출옥하였다.</p>		
<p><특이사항></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27.2.28., 2면 8단, <평로청년회원 송국, 공산주의선전했다는 박철>.</p> <p>『동아일보』 1928.12.18., 5면 6단, <박철씨출옥, 십오일에 만기(평양)>.</p> <p>『중외일보』 1928.1.22., 2면 3단, <판결언도 듣고 만세를 고창>.</p>		

이름: 송인헌	한자: 宋仁憲	출생: 미상
본적: 경성부 종로구 소격정 49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계열과 단체: 강제동원체제 저항		
<p><활동 내용></p> <p>등사인쇄필생인 송인헌은 1943년 8월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번지 6호의 자신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한 등사판을 사용하여 선언문이라 제목을 붙이고 “과거 수십 년간 부당한 일본세력이 침입하여 우리 조선민족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향하는 불명예를 짊어져 오고 있다. 금일의 다변한 세계사를 응시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고로 우리 민족 전통의 광채와 우리 동포가 포지한 열정이 충만한 신념이 반드시 우리 조선민족의 참신한 힘과 광영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한다. 전후의 우리 민족에게 도래할 필연적 운명을 해명하고 제 선배가 이 고국에 귀래하여 즐거움을 받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금회에 助成會(가칭)를 창립하였다. 1943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문서 약 60통을 작성하였다. 동년 9월 초순 中國 奉天市에 갔을 때 봉천시 敷島區 協和街 1段 16번지 154호에 거주하는 지인 福山斗景의 집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福山에게 표면에 “경성부 종로구 2丁目 金東煥 외 60명” 앞으로 이름, 주소를 쓰고 뒷면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시내 종로구 2丁目 大成내 助成會”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것을 가지고 동년 9월 중순경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를 封入한 후에 다시 9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내의 우편함에 넣어 김동환을 비롯한 60명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그는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44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에 부치기에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免訴되었다.</p>		
<특이사항>		
<참고문헌> 「송인헌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3.2.).		

이름: 신락현	한자: 申洛鉉	출생: 1921.01.03. ~ 미상
본적: 경기 광천 초월 신대 41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동 262		
계열과 단체: 시국담		
<p><활동 내용></p> <p>경기도 광주군 곤지공립보통학교 4년을 졸업하고, 광주군 공립보통학교에서 5학년, 6학년을 수학하였다.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1년을 수학하고, 배재중학교에 입학하여 1942년 3월 졸업하였다. 1942년 4월 경성전기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배재중학교에 재학중이던 1941년부터 金永憲과 함께 자유주의사상과 독립사상을 가졌다. 김영헌이 李光洙·李基永·宋影 등의 지도를 받아 아동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사상을 고취하겠다고 하자, 신낙현은 정치를 통하여 민중을 지도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였다. 1944년 6월 중순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정리 김영헌의 집에서 김영헌, 平原 등과 조선독립사상을 버리지 말고 용왕매진하자고 다짐하였다. 1944년 8월 함평여관에서 김영헌과 농촌정신대를 조직하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역이용하자고 협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東條수상이 일본군이 사이판도에서 전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고 전시상황을 알리고 일본의 패망시의 결정적 기회가 오기를 준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구류 29일, 2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平川洛鉉 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18쪽.</p>		

이름: 신형균	한자: 申亨均	출생: 1920.01.02. ~ 1984.07.17.	
본적: 충북 진천 만승면 내촌리 46			
주소: 경성부 돈암정 288-5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			
<p><활동 내용></p> <p>1937년 말경부터 서울 양정중학 재학 중 민족적 성격이 농후한 소설을 읽고 이듬해 2월 하순 京城 通義町 자택에서 徐周元 등과 함께 조선독립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가 체포되어 懲役 2年(未決拘留 250日 通算)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p>			
<p><특이사항></p> <p>창씨명 平田亨均,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됨.</p>			
<p><참고문헌></p> <p>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118쪽.</p>			

이름: 심정섭	한자: 沈廷燮	출생: 1910. ~ 미상	
본적: 경성부 종로구 충신정 63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33			
계열과 단체: 助成會			
<p><활동 내용></p> <p>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1928년 인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청주, 음성, 충주 등의 학교를 전전하였다. 1933년 3월 경성효창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4월 경성고등공업 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3월 22일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에 취직하여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申鉉秀와 교제하여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사상을 갖게 되었다.</p> <p>그는 태평양전쟁을 기회로 조선을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시키려 하였다. 1943년 9월 평산도건, 박노태 등과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助成會'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0년간의 조선의 참상을 알리고 조선민족의 광영을 확신하고 선배들이 귀국할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등의 선언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靑松信男 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박노태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5.4.9.).</p>			

이름: 이기석	한자: 李基錫	출생: 1900.07.20. ~ 미상	
본적: 경북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주소: 경북 동대문구 돈암정 222			
계열과 단체: 신간회, 공산주의, 건국동맹			
<p><활동 내용></p> <p>경북 영덕에서 출생하여 청하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23년 1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영덕 지방 순회강연에서 '위험한 일보 앞의 운명'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서울 경신학교 4학년 과정을 마쳤다. 1924년경 북풍회에 가입하였다. 1925년 영덕청년회가 주최한 기근구제 음악강연회에서 강연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p> <p>1928년 徐貞子, 劉熊慶 등과 경북 영덕군 영덕청년회와 영덕여성친목회의 야학부를 조직하고 야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러시아의 공산주의제도를 선전하고, 조선현하의 정세를 통탄공격하는 취지로 「자유로 상호 화합하는 노서아 생활」, 「국가와 조선」 등의 기사를 실은 문서를 작성하여 야학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2개월간 교수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그는 1928년 10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금고 6월을 받았다.</p> <p>1929년 6월 신간회 복대표대회에서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9년 8월 동리의 劉熊慶과 함께 신간회 영덕지회 간사 및 영덕청년동맹회 회원으로 신간회 영양지회와 안동지회에서 임시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덕청년동맹과 신간회 영덕지회의 명의로 축문을 보내기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는 8월 4일과 7일 영덕군 영덕면 남석동의 영덕청년동맹회관에서 신간회 영양지회와 안동지회의 임시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그는 이 축문에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고취하였다. 이 일로 그는 1929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p> <p>1930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 경북책임자,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4년 징역 2년을 받았다. 1939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였고, 1944년 8월 건국동맹에 참여하여 노농군 편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p>			
<p><특이사항></p> <p>이명은 李傑笑, 1946년 남로당 활동. 1947년 미군정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p>			
<p><참고문헌></p> <p>「이기석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19281016).</p> <p>「이기석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19290921).</p> <p>『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320쪽</p>			

이름: 이용상	한자: 李龍商	출생: 1908.04.18. ~ 미상	
본적: 경성부 다옥정 51번지			
주소: 경성부 돈암정 153번지 14호			
계열과 단체: 강제동원체제 비판			
<p><활동 내용></p> <p>1908년 4월 18일 경성부에서 李廷夏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22년 재동공립보통학교 4년을 수료하고, 동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1학년을 중퇴하였다. 그리고 청년학관 중등과에 취학하였지만 학자난 때문에 곧바로 퇴학하였다. 그후 수하동 공립상업보습학교 2학년에 입학하여 1927년 동고 2년을 졸업하였다. 이후 동년 선린상업 고등과 1학년에 입학하여 1928년 동고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수년간 백부 이정하 변호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933년 북경에 가서 잡화점을 경영하였지만 병으로 동년 12월에 귀성하였다. 1934년 이후 3년간 동창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일하였으나 치료차 사퇴하였다.</p> <p>1942년 8월 林天圭, 西原耆錫 등과 수회 모여 김상옥 열사의 의거를 이야기하고, 지원병제도를 비판하고, 창씨제도를 반대하고, 전황을 이야기하는 등 체제를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1942년 체포되었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임천규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건」(1942.12), 『사상에 관한 정보』.</p>			

이름: 이정용	한자: 李正用	출생: 1919. ~ 미상	
본적: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동 619			
주소: 경성부 돈암정 69-11			
계열과 단체: 시국담			
<p><활동 내용></p> <p>1939년 4월 경성사립소화공과학교를 졸업후 설계사무에 종사하였다. 종로 2정목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던 1942년 경 작은형이 조카를 자신의 집에 맡기자, 그는 작은 형 앞으로 편지를 보내 “경성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대곤란에 빠져 있고 자살도 한다”는 서신을 보내었다가 체포되어 벌금 200원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岩本正用</p>			
<p><참고문헌></p> <p>「이정용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2.12).</p>			

이름: 이현우	한자: 李鉉雨	출생: 1916. ~ 미상	
본적: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133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94-8			
계열과 단체: 경성콤그룹			
<p><활동 내용></p> <p>이현우는 경성부 성북동 삼산보통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후 경성 송인공립보통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1933년 경성여자상업학교에 재학 중 사회주의 독서회 활동에 참가하였다. 1934년 4월 경성공민학교에서 타이프스트과와 실천부기과에 들어가서 1935년 3월 졸업하였다. 다음 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경성의학보습소에서 수학하였다. 1937년 4월부터 경성보육학교에 입학 우 영학강습소를 마쳤다. 1938년 5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그 본과 3년 재학 중인 1939년 경성콤 그룹 사건에 의하여 검속되었다.</p> <p>1944년 10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미결구류 450일 본형 산입의 형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홍인의 등 경성지방법원판결문」(1944.10.7.).</p>			

이름: 장익민	한자: 張益敏	출생: 1911.01.09. ~ 미상	
본적: 평북 용천 북증 원송 28			
주소: 경성부 돈암동 164			
계열과 단체: 신의주고등보통학교 학생운동			
<p><활동 내용></p> <p>장익민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도모함에는 조선인으로서 중등교육을 받는 자가 자각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생운동을 일으켜 조선민중의 이에 관한 자각을 촉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전제로서 우선 신의주 재류중등학교생도의 단결을 결성하여 장래 이를 전조선인학생의 총연맹에까지 유도하리라고 제1착수는 재신각군유학생친목회의 연합회를 조직하기를 기도하고 용천군 출신 재신유학생친목회 주최의 명목 하에 1928년 7월 17일 오후 8시 경 피고인 외 20여명과 재신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피압박민족의 상태를 설명한 후 조선민족은 목하 경제적 방면과 정치적 방면 공히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을 입어 파멸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이 총역량을 집중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1928년 9월 동부 매기정 천도교총리원에서 재신총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고 부서를 정하였다.</p> <p>이 일로 체포된 장익민은 1930년 11월 26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張益敏: 만주국 新京지방검찰청 검찰관 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이름: 조성훈	한자: 趙誠勳	출생: 1923.09.02. ~ 미상	
본적: 경북 상주 낙동 상촌 868			
주소: 경성부 돈암정 401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			
<p><활동 내용></p> <p>중앙고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9년 노국환, 황종갑, 이기을, 유영하 등과 매주 한두 차례씩 만나 민족정기와 독립쟁취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1940년 10월 역사와 정치에 관한 문제를 토론허기 위해 '5인독서회'를 조직하고, 최복현을 지도교사로 삼아 토론회를 가졌다. 1941년 7월 활동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항일유격대의 활동 소식, 일본의 운동가와의 연락, 김성수·송진우 등 민족운동지도자와의 연락 등을 위해 활동하였다. 1941년 8월 황종갑의 서신이 발각되어 체포된 후 함흥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00여일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p>			
<p><특이사항></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77, 791쪽.</p>			

이름: 편강청덕	한자:片江淸德	출생: 1897. ~ 미상	
본적: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죽리 73번지			
주소: 경성부 돈암정 92번지			
계열과 단체: 시국당			
<p><활동 내용></p> <p>1914년 3월 경성오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금릉대학에서 1년을 배우고 귀국하였다. 1921년 3월 경성고등법원에서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1940년 봉천 삼신무역의 경성출장소의 직원으로 있다가 1941년 3월 동사의 파산으로 퇴사하였다. 1941년 7월 중순경부터 9월 하순까지 돈암동 친구들에 개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였다가 소위 조언비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육군형법위반 피의자 검거에 관한 건」(1941.11.7), 『사상에 관한 정보 14』.</p> <p>「육군형법위반[조언비어] 피의자 검거에 관한 건」(1941.12.19), 『사상에 관한 정보 14』.</p>			

이름: 홍석표	한자: 洪石杓	출생: 미상	
본적: 충남 대전부 유천면 탄방리 404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458-7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p><활동 내용></p> <p>직공으로서 1937년 7월 경부터 경성부 추인정 33-3번지 홍규익의 집에서 공산주의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무명그룹을 조직하여 혁명론과 계급투쟁 등에 관한 서적을 읽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의 지금이야말로 좌익실천운동을 할 절호의 기회이다.”라는 의견을 교환하며 의식고취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치안상황」(1938.9), 『1937년 6월 이래 중요사건의 검거상황-공산주의무명그룹 검거』.</p>			

3. 정릉동

이름 : 김영규	한자 : 金永圭	출생 : 1919. ~ 미상
본적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88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416-33		
계열과 단체 : 국내항일운동, 조선독립단		
<p><활동내용></p> <p>金永圭는 1919년(대정 9) 6월 10일 충남 당진군 합덕면 옥금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45년 당시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416-33에 살았다.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수금원으로 일하였고 창씨명은 金原永圭이다. 충남 홍성의 갈산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영규는 1936년 11월부터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에 있는 한 魚油脂 제조공장에서 소사로 일하다가 1939년 6월 경성부 송현정 60번지 소재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사로 고용되어 1940년 1월부터는 수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p> <p>경성으로 직장을 옮긴 뒤 정릉리 416-33에 거처를 마련한 김영규는 중등과정 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1940년 1월 중구 삼각정에 위치한 사립한영중학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원의 강사 野山玉童으로부터 민족주의 사상의 감화를 받아 “일본과 조선 간에는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가 다르므로 궁극에 가서는 서로 융화할 수 없으므로 조선 민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만이 최선의 길이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또한 1943년 12월경부터는 친지인 張宮健一에게서 민족주의 사상을 지도받아 점점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기에 이르고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은 패배할 것이니 그 기회에 조선 민중이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 독립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위한 ‘혁명 의식’ 고취와 함께할 동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갔다.</p> <p>김영규는 거주지 정릉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상과 혁명적 독립운동을 함께 할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1944년 봄부터 김영규는 사립 한영중학원 동료 蒼海良舟, 安田漢玉 등 몇몇 동지들과 정릉리와 돈암정 등지에서 꾸준히 회합을 가지고 추축국 독일과 일본이 머지않아 패전할 것이므로 이를 기회 삼아 국외의 독립운동단체들과 서로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한다면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이를 행동에 옮길 동지들을 지금부터 모으고 규합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p> <p>그러나 1945년 1월에 이러한 활동들이 일경에 발각되어 김영규는 앞서 말한 사립한영중학원을 졸업한 노동자 박백중, 창해양주, 안전한옥과 함께 검거당한 뒤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경성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영규에게 치안유지법 제5조와 형법 제55조 위반하였음을 판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외 세</p>		

<p>사람은 실제 ‘조선독립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결성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있는 지 며칠 안 되어 일본의 패전과 8·15해방을 맞았으므로 이들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金原永圭.</p> <p>朴百仲, 蒼海良舟, 安田漢玉과 함께 체포됨</p> <p>김영규 :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p> <p>기타 3인 :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 6월</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경성지법 판결문 1945. 8. 4.</p>

이름: 나중소 본명: 나영훈	한자: 羅仲昭 羅泳薰, 拋石, 一雲	출생: 1867. ~ 미상	
본적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5통 7호 603번지			
주소 : 경성부 정릉동 1통 1호			
계열과 단체 : 북로군정서			
<p><활동 내용></p> <p>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출신으로 16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대한제국 진위대 副尉로 재직 중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하자 1917년 경 만주로 망명하였다.</p> <p>1919년 3월 북간도 왕청현에서 서일 등 대중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정의단의 교관으로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자 참모부장에 임명되어 사령관 김좌진을 보좌하며 부대를 이끌었다. 북로군정서군의 사관연성소 교수부장으로 300여 명의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간 백운평과 천수평 등지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의 백발 장교로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p> <p>청산리대첩 후 북간도를 거쳐 러시아 이만 지역으로 이동하여 1921년 4월 36개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독립단 참모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1921년 6월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자 선생은 북만주로 돌아왔다. 1922년 1월 안도현 군인양성소 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내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9개 독립군 단체들의 군사통일체로 대한독립단을 재건하고 전 만주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24년 3월 대한군정서가 재조직되었고, 선생은 서무부장 겸 참모에 임명되었다.</p> <p>1925년 3월 영안현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자 선생은 중앙집행위원회 참모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신민부와 정의부의 연합부대에서 간도의 훈춘, 장백 및 함경도 등을 관할하는 서남로 餉官에 임명되었다. 1928년 8월 신민부 지방조직을 설치하던 중 돈화현 산중에서 숨을 거두었다.</p> <p>정부는 독립군 양성과 청산리대첩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나중소 장군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p>			
<p><특이사항></p> <p>1963년 독립장 추서</p>			
<p><참고문헌></p> <p>박환, 「이달의 독립운동가 나중소」(2016. 9).</p> <p>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나중소」(2016. 9).</p>			

이름 : 유영민	한자: 劉永敏	출생: 1912. ~ 미상	
본적 :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705번지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11-4			
계열과 단체 : 시국담			
<p><활동 내용></p> <p>유영민은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몇몇 사람들을 만나 일본의 패전에 관한 말들을 하고 다니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1945년 3월 2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조연비어 활동으로 인해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江原永敏.</p> <p>정릉리 먹(墨) 제조공장 직공 /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 징역 6월</p> <p>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결문 1945. 3. 2.</p>			

이름 : 주영복	한자: 朱永福	출생: 1923.04.06. ~ 미상
본적 : 경상북도 대구부 동성정 2정목 40번지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533-1		
계열과 단체 : 조선공산당 재건공작 사건 (경성콤그룹)		
<p><활동 내용></p> <p>주영복은 1923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경성의 계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37년 (15세)에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전기견습공으로 취직하였고 1941년(19세)부터는 같은 회사의 內線系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주영복은 어릴 때 빈농의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현대사회’에 불평 불만을 통감해 오다가 때마침 경성전기주식회사 취직 후 공산주의 활동가 趙重心과 서로 알게 되어 그로부터 지도를 받아 공산주의에 공명하고 조선의 독립과 공산화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는 조중심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씨클이 만들어져 비밀리에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유래초(柳來初, 창씨명 柳村道信, 서대문구 아현정 459-9) 역시 주영복과 함께 이 씨클에 가입하여 경성콤그룹 내 활동가로부터 조선 독립과 공산주의에 관한 학습을 받았다.</p> <p>주영복과 유래초는 1941년 12월 일제의 대대적인 경성콤그룹 관련자 검거시 홍영의, 김한성 등과 함께 검거되어 미결수로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끝에 1943년 10월에 마지막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주영복은 ‘국체(國體)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그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점’이 치안유지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형량은 확인되지 않는데 재판 후 주동자를 제외한 다른 경성콤그룹 관련자들과 함께 풀려났을 것으로 보인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新原國雄.</p> <p>치안유지법 위반.</p>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43. 10. 25.</p>		

4. 안암동

이름: 김상준	한자: 金相俊	출생: 1918. ~ 미상
본적: 평안남도 개천군 조양면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안암정 181-6		
계열과 단체: 경성콤그룹사건		
<p><활동 내용></p> <p>보성전문학교 상과 1학년 때 하상조(河上肇) 저 『경제대강』을 읽고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경제학·철학 방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1940년 봄 상과 2학년 때 공산주의의 연구를 개시하여 유물론이 유심론보다 바르다고 고찰하였다. 공산주의 운동가 李鍾甲의 감화를 받고 공산주의의 학습과 선전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43년 홍진의 등이 관계된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창씨명 金川相俊</p>		
<p><참고문헌></p> <p>「홍인의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3.10.25.).</p> <p>「방용모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9.27.).</p>		

이름: 김순원	한자: 金順元	출생: 1917. ~ 미상
본적: 평안남도 진남포부 비석정 191번지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안암정 168번지		
계열과 단체: 보성전문학교, 경성콤그룹 재건		
<p><활동 내용></p> <p>평남 진남 출신으로 진남포의 得信學校, 숭실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8년 3월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였다. 부친 金聖燁은 개신교 목사로 민족의식이 강하였으며, 안창호가 그의 외숙이다. 實兄 金順哲도 숭실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좌익독서회’ 사건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주변의 영향으로 김순원은 숭실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부터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김순원은 보성전문학교 2학년부턴 孫錫泰의 영향으로 신사상에 찬성하여 신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40년 2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p> <p>김순원은 1940년부터 다시 조선 독립을 위한 조선공산당 경성콤그룹 재건 활동을 하였다. 동년 11월부터 李鍾甲의 권유로 사회과학을 학습을 하고 조직의 확대, 동지 획득에 대한 협의, 신사상의 이론 학습을 하는 한편, 동교 상과 2학년을 담당하여 동지 획득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1941년 4월 이관술과 김태준의 체포 사실을 이종갑에게 알리고 체포 방지를 위하여 동지들 사이의 연락을 비밀로 할 것을 협의하였다. 김순원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으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도중 옥사하였다고 한다.</p>		
<p><특이사항></p> <p>재판 도중 옥사하였다고 하나 사망사실 확인되지 않음. 추천 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p>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43. 10. 25) 『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p>		

이름: 김양복	한자: 金養福	출생: 1907.08.23 ~ 미상
본적: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마산리 57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205-11번지		
계열과 단체: 일성단		
<p><활동 내용></p> <p>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1928년 3월 하순 김호구·정찬진·吳秉鉉·張命學·宋柱軾 등과 함께 명치대학(明治大學) 운동장에서 모임을 갖고 무정부주의 비밀결사 일성단(一聲團)을 조직하였다. 동단은 일본 천황을 암살하고 중요기관을 파괴할 것을 투쟁 목표로 기밀엄수, 이탈불허, 변절자 처단 등을 행동강령으로 하였다. 동단은 중국 상해나 만주에서 무기를 입수하는 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들은 동지 규합을 위하여 5회에 걸쳐 『黑戰』이란 선전책자를 만들어 국내외에 우송하였다. 고향 평남 용강군으로 돌아온 동지 김호구와 오병현은 1929년 음력 단오절인 6월 11일 龍岡郡 多美面 五花里 씨름대회에서 총독정치의 억압과 착취를 폭로하고 농민들을 단결하여 일제타도에 앞장설 것을 호소한 ‘농민에게 고함’이라는 무정부주의 선전문을 살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단의 조직이 노출되어 김양복은 1929년 7월 평양에서 체포되어 1930년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1943년 4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朝鮮阿片取締令違反으로 징역 4년을 받음 추천 대상</p>		
<p><참고문헌></p> <p>『매일신보』, 1930. 7. 1.</p>		

이름: 김용태	한자: 金容泰	출생: 1916.01.16 ~ 미상
본적: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12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57번지		
계열과 단체: 고창농민조합		
<p><활동 내용></p> <p>전북 고창 출신으로 1934년 1월부터 전북 고창의 고창농민조합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농민들에게 신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金明桓·姜宅洙·李殷植·金容浩·金容桂 등과 함께 체포되어 1936년 4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30년부터 김용태는 고창군에서 수재의연금을 내거나 高敝高普 後援會員으로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지역 유지에 속한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1933년에는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리경찰서에 검속당하였다. 고창농민조합 사건 이후에도 김용태는 1936년 11월 중순경 서울 樂園町 許信病院에서 洪鍾寔과 신사상 운동의 필요성과 그 실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협의 하였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 때문에 1938년 4월 30일에 다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위반 및 군형법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국으로 송국되었다. 이후에도 1937년 12월과 1938년 9월에 검속을 당하는 등 김용태는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36. 4. 2.</p> <p>『매일신보』, 1930. 4. 1.</p>		

이름: 김종윤	한자: 金鍾潤	출생: 1911.02.10 ~ 미상	
본적: 서울 송인정 63-10			
주소: 서울 안암정 200-13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朝鮮人解放鬪爭同盟(일명 'CHT')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昌新公立普通學校를 거쳐 1936년 4월 경성공립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김윤종은 同校 4학년 재학 당시 일본 수학여행을 가는 대신 그 비용을 돌려받아 그 일부를 일본군의 慰問袋로 송부하였다. 이 때문에 김윤종은 일본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나, 동료들로부터는 냉대를 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윤종은 당시 일본의 '內鮮一體' 주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때마침 1940년 5월부터 朴贊五·金永俊과 교제하게 된 김윤종은 이들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사상에 눈을 뜨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게 되었다. 1940년 11월 경성공립중학교 학생이던 任元彬·宋澤永 등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朝鮮人解放鬪爭同盟(일명 'CHT')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임원빈 등은 同동맹 내부에 書記局, 理論部, 實踐部를 설치하고, 1940년 11월부터 'CHT대회의 선언'이라는 선언문 작성, 기관지 '火線'의 발행, 연구단체 鳩林共進會를 결성과 기관지 '供進'의 발행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직 확대와 동지 규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김윤종도 同 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퇴학을 당하고, 194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특이사항> 이명 松浦潤, 추천 대상			
<참고문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2. 12. 2, 1944. 3. 2			

이름: 김현국	한자: 金顯國	출생: 1905.09.01 ~ 미상	
본적: 서울 송인정 176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86-11번지			
계열과 단체: 문예운동사			
<p><활동 내용></p> <p>서울 출신으로 1929년 2월 충북 忠州郡 충주면 읍내리 金星旅館의 에서 權五淳·徐相庚 등과 함께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文藝運動社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잡지 간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무정부주의를 선전하려 하다가 그 해 5월 체포되었다. 1930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현국은 1934년 11월 蔡殷國·李丁奎를 중심으로 한 무정부주의운동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다.</p>			
<p><특이사항></p> <p>1990년 애족장 추서</p>			
<p><참고문헌></p> <p>매일신보:1930. 5. 31·10. 1, 1930. 3. 6·7</p> <p>警察情報綴(昭和 9年)의 蔡殷國 李丁奎를 中心으로 한 無政府主義運動 檢舉에 관한 건:1934. 12. 6</p>			

이름: 손진태	한자: 孫晉泰	출생: 1900.12.08 ~ 미상
본적: 서울 안암정 11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1번지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경남 동래군(현재의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의 사학자, 민속학자로 호는 남창(南滄)이다. 한국의 역사를 신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하여 연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호는 태어난 마을 이름에서 딴 것이다. 서울 안암정 115번지에 거주하던 1919년 당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동년 8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27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1932년 송석하(宋錫夏)·정인섭(鄭寅燮)과 함께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를 창설하고 193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조선민속(朝鮮民俗)』을 창간하고, 제2호(1934)와 제3호(1940)를 발간하였다. 1933년 연희전문학교 강사, 1934년 보성전문학교 강사, 1945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49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거쳐 문리과대학장에 재직중 6·25전쟁으로 납북되었다. 손진태는 원래 역사 연구에 뜻을 두었으나 일제강점기 역사학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속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민속학 저술로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1930),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1930), 『조선민족절화의 연구』(1947), 『조선민족문화의 연구』(1948) 등이 있다. 손진태는 민속학을 독자적인 과학으로 인식하고 이를 학문으로 정립시켰다. 최남선(崔南善)과 이능화(李能和)는 민속학을 역사연구의 보조수단으로 여겼고 문헌에만 의존하였던 반면 손진태는 현지에 나가서 일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역사학은 물론 인류학·고고학·사회학 등 인접과학을 폭넓게 원용하여 민속학 연구방법의 차원을 한층 높였다. 일찍이 진단학회(震檀學會)의 주요 회원이기도 하였던 그는 신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해서 『조선민속사개론(朝鮮民族史概論)』과 『국사대요(國史大要)』를 저술하기도 하였다.</p>		
<p><특이사항></p> <p>추천 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p>		
<p><참고문헌></p>		

이름: 양원길	한자: 梁源吉	출생: 1920.02.09 ~ 미상	
본적: 평안북도 용천군 동상면 입석리 32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71-14번지			
계열과 단체: 징병거부운동			
<p><활동 내용></p> <p>1939년 경성의학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예과 학생으로 재학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1943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실시에 이어 1944년 10월 단기군의지원병제도를 실시하자 동창생과 함께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면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면서 신사상 서적 탐독 및 동지 획득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45년 5월 3일 체포되었다.</p>			
<특이사항>			
<참고문헌>			

이름: 오세덕	한자: 吳世惠	출생: 1897.11.19 ~ 1986.10.20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번지			
계열과 단체: 철원애국단, 의열단			
<p><활동 내용></p> <p>1919년 8월 강원도 鐵原郡 철원읍내에서 김상덕 등과 협의하여 鐵原愛國團(일명 “大韓獨立愛國團”)을 조직하고 同團의 대표로 朴健秉과 협의한 후 철원군 읍내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상해임시정부와의 연락을 위하여 박용만의 조카 朴健秉과 함께 상해로 갔다. 1919년 11월 義親王을 비롯한 33인의 명의로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鐵血團을 조직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北京에서 朴容萬의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러시아로 가서 고려공산당대회에 참석하였다. 1922년 러시아로 가서 무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제21시베리아보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중국 奉天에서 서울로 돌아와 다시 해외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의열단 활동을 위하여 동경에 유학하려 하였으나, 부친의 만류로 중단하였다. 1923년 12월 義烈團員 具汝淳이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 同人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독립자금 모집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계획으로 보천교의 자금과 한성은행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탈취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여순이 사전에 체포되어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오세덕도 체포되었다.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大正8年 制令 第7號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p>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24. 1. 25, 1924. 2. 28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의 의열단원 검거의 건 속보:1923. 12. 26 매일신보:1920. 11. 20·21, 1924. 2. 5·15·16·24·29, 6. 3 독립유공자 공훈록</p>			

이름: 오세진	한자: 吳世眞	출생: 1897.11.19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번지			
주소: 경기도 강화군 간동면 유촌리			
계열과 단체: 조선공산당			
<p><활동 내용></p> <p>경기도 강화 출신으로 1924년부터 경기도 고양군 西江建興俱樂部의 書記로 아동야학과 강연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서강청년회 감사위원·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1927년 4월에는 한강어물상조합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활동내용을 알 수 없으나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대정8년 제령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931년 7월 다시 조선공산당공작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1933년 4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를 받았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24. 4. 26·6. 13·11. 8·12. 30, 1926. 2. 10, 1927. 4. 21</p> <p>『매일신보』 1933. 4. 29</p>			

이름: 이기을	한자: 李氣乙	출생: 1923.10.04 ~ 미상	
본적: 함경남도 북청군 곡후면 하천리 672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1-8번지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독서회			
<p><활동 내용></p> <p>함남 북청 출신으로 1940년 10월 서울 중앙중학교 3학년 재학중 盧國煥·黃鍾甲·柳永夏·趙誠勳과 함께 정치와 역사에 대하여 토론하는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941년 7월경 이들은 조직의 확대를 시도하여 이기을은 황종갑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항일유격대의 소식을 알아보는 것 이외에 다른 동지들은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와 독립군들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서신을 통하여 2학기 개학 3~4일 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 협의할 것을 연락하였다. 그러나 황종갑의 서신이 사전 검열에 발각되어 이기을은 황종갑과 함께 함흥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동지들도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이기을을 비롯한 이들은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00일 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교사 최복현은 1942년 9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독립운동사』 제9권, p.791.</p>			

이름: 이병우	한자: 李秉愚	출생: 1893. ~ 미상	
본적: 서울 팔판정 63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6-28호			
계열과 단체: 조선전시보안령위반			
<p><활동 내용></p> <p>서울 출신으로 1943년 3월 8일 강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里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餓死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朝鮮戰時保安令 違反으로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3. 5. 13</p>			

이름: 이재성	한자: 李在成	출생: 1883.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경기도 고양군 출신으로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사무소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保安法 違反으로 笞 90度を 받았다.</p>			
<특이사항>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5. 1</p> <p>매일신보:1919. 5. 4</p> <p>독립운동사 제2권 137쪽</p>			

이름: 최경옥	한자: 崔慶玉	출생: 1914. 8. 10 ~ 미상	
본적: 서울 종로구 종로 6정목 12번지			
주소: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112-17			
계열과 단체: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적색노동조합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29년 於義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였다. 1932년 3월부터 서울 동대문에서 東亞自動車會社 공장 노동자로 신사상 운동을 위한 동지 규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4년 4월 權榮台 그룹에서 인쇄한 메이데이 격문을 서울 용산공작 주식회사 등에 배포하였다. 1935년 8월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1934년 5월부터 1935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135명이 체포되었는데 최경옥은 ‘미야케(三宅) 교수 사건’으로 체포되었다.최경옥은 1935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6년 12월 출옥하였다. 이후 최경옥은 다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고 1937년 10월부터 경성궐도주식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였다. 1936년 12월 이후부터 서울에서 다시 신사회 건설을 위하여 동지 규합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8년 조선공산당재건경성준비그룹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1943년 7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5. 8. 27 『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이름: 최승우	한자: 崔昇宇	출생: 1915. 12. 17 ~ 미상	
본적: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228번지			
주소: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228번지			
계열과 단체: 의열투쟁			
<p><활동 내용></p> <p>서울 출신으로 일본 京都의 同志社大學 專門部 法經科를 마치고 1940년 4월 中央大學 法學部를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 화신백화점 및 중국 吉林省 敦化縣의 歸農組合에서 근무하였다. 1943년 4월부터 서울 중국 남대문통 4정목의 옥동산업주식회사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p> <p>최승우는 1943년 12월 鄭文圭의 권유로 金重鎰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고 1944년 3월 초순 鄭文圭의 권유로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있는 중국 중경으로 가기 위하여 山海官驛까지 갔으나, 발각당하여 귀국하였다. 1944년 4월 초순 처가인 서울 東大門 安岩町 柳海昌 집에서 정문규와 회합하여 조선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적어도 동지 60~70명을 획득한 후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破壞部에는 建設部를 설치할 것을 협의하였다. 파괴부에는 파괴반·암살반·선전반을 두고 중요 공장·은행 등의 파괴,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등을 비롯한 韓相龍·尹致昊·李光洙 등 친일파 처단, 독립운동을 위한 격문의 작성·살포 등을 담당하게 할 것이며, 건설부에는 法經·文化·政法 등의 반을 설치하여 독립 실현 후 건설적 부분을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 준비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1944년 10월 23일 체포되어 1945년 7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2013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p>			
<p><참고문헌></p> <p>『국가보훈처공훈록』</p>			

이름: 피한봉	한자: 皮漢奉	출생: 1884.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164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164번지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경기도 고양군 출신으로 1919년 3월 23일 밤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안암천 부근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保安法 違反으로 答 90度を 받았다.</p>		
<p><특이사항></p> <p>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p>		
<p><참고문헌></p> <p>「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19. 5. 8</p> <p>『매일신보』, 1919. 5. 11.</p>		

이름: 한홍택	한자: 韓弘澤	출생: 1916. ~ 미상	
본적: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223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17번지			
계열과 단체: 반제동맹사건			
<p><활동 내용></p> <p>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반제동맹 경성지방조직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기소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한국민족해방운동자료집』 제5권</p> <p>「朝鮮反帝同盟京城地方組織準備委員會其他檢舉ニ關スル件」</p>			

이름: 홍기문	한자: 洪起文	출생: 1903.09.23 ~ 1992.07.03	
본적: 충청남도 괴산군 괴산면 재월리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2번지			
계열과 단체:신간회, 조선공산당재건 적위대			
<활동 내용>			
<p>임격정의 저자 홍명희의 장남으로 국어학자이다. 역사학, 수학, 어학 등을 독학하였다. 1922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와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25년 日月會와 조선무산청년동맹에 가입하였고, 1926년 李鍾模·劉英俊·朴泉 등의 유학생들과 사회주의 사상연구단체인 신흥과학연구회를 결성한 뒤 귀국하였다. 1927년 12월 신간회 경성지회 간사로 선임되었다가 1931년 중앙위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적위대의 조직부 겸 선전부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0년 11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p> <p>1930년대에 『조선일보』 학예부장과 『朝光』의 주간을 역임하였다. 1927년에 「朝鮮文典要領」을 『현대문학』에 발표한 이후 국어 연구에 전념하였다. 1940년에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서울 창동에 은거하면서 方鍾鉉과 함께 더욱 국어 연구에 전념하였다.</p> <p>1945년 11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47년 민주독립당 상무위원이 되었다. 1946년 서울신문사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正音發達史』상하, 『朝鮮文法研究』(1947)을 간행하였다. 1948년 4월 남북정치협상 대표였던 부친 홍명희를 따라 입북하여 그대로 잔류하면서 국어 연구와 정치활동, 문화활동을 병행하였다. 이후 1948년 8월 황해도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표위원에 선임된 것을 비롯하여 동년 6월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 북한의 민족주의민족통일전선, 그리고 우익단체 및 사회단체가 망라되어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활동하였다.</p> <p>1960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64년 4월 사회과학원 부원장, 1969년 4월 사회과학원 원장이 되었다. 1973년 7월 김일성훈장을 받았고 1981년 12월『조선왕조실록』한글 번역의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p>			
<특이사항>			
<참고문헌>			
『한국민족해방운동자료집』 제4권 秘密結社赤衛隊事件檢舉ニ關スル件 思想에 關한 情報 5의 朝鮮共產黨의 建設을 目的으로 하는 秘密結社 赤衛隊事件檢舉에 關한 件: 1932. 10. 15.			

이름: 황금수	한자: 黃今洙	출생: 1915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2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2			
계열과 단체: 조선레포트회의사건			
<div><활동 내용></div> <div>1934년 6월 27일 朝鮮共產黨再建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div>			
<div><특이사항></div>			
<div><참고문헌></div> <div>「朝鮮共產黨再建 코민테른 朝鮮레포트會議事件 검거에 관한 건」(1934.6.27.), 『警察情報綴(昭和9年)』.</div>			

5. 월곡동

이름: 정만산	한자: 鄭萬山	출생: 1886.08.17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		
계열과 단체: 3·1운동		
<p><활동 내용></p> <p>경기도 고양군 출신으로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사무소 앞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保安法違反으로 笞 90度を 받았다.</p>		
<p><특이사항></p> <p>2008년 대통령표창</p>		
<p><참고문헌></p> <p>「정만산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5. 1).</p> <p>『매일신보』 1919. 5. 4.</p> <p>『독립운동사』 제2권, 137쪽.</p>		

6. 추가조사가 필요한 인물들

1) 성북동

이름: 강주환	한자: 姜周煥	출생: 1914.03.13. ~ 미상	
본적: 평북 창성군 대창면 봉룡동 500번지			
주소: 경성부 성북 177-24			
계열과 단체: 체제저항운동			
<p><활동 내용></p> <p>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1942년 7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미결통산 300일)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9일 출옥하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京高特秘 제1917호 世界的 宗教結社 燈臺社事件 檢舉에 관한 건,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국순만	한자: 鞠淳萬	출생: 1912.05.01. ~ 미상	
본적: 전남 담양군 담양면 반각리			
주소: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10			
계열과 단체: 학생운동			
<p><활동 내용></p> <p>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서에 수감되었다.</p>			
<p><특이사항></p> <p>이명은 해람, 적종, 적기호, 기호</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김기진	한자: 金基鎭	출생: 1903.06.29. ~ 미상	
본적: 경기도 경성부 운니동			
주소: 경기도 경성부 운니동/ 성북동 175번지에서 검거			
계열과 단체: 신건설사 사건			
<p><활동 내용></p> <p>1934년 12월 13일 새벽 성북동 175번지에서 김복진, 김기진 외 수명을 신건설사 사건으로 검거하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34.12.14., 2면 8단, <경찰부동원활동 성북동 일대 대수색 김기진 김복진 등 다수검거> 『일제감시대상카드』</p>			

이름: 김성룡	한자: 金聖龍	출생: 미상
본적: 경남 창녕군 주성면 신당리		
주소: 경성부 성북정 176-4번지 裴成龍의 집		
계열과 단체: 낙서사건		
<p><활동 내용></p> <p>1943년 경성전기학교 2학년 생으로 불경낙서용의자로 검거되었다. 낙서의 내용은 “2천4백만명의 반도민이여 맹진하자. 반도청년이여 각성하여 혁명의 앞에 서자”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 思想에 關한 情報(警察署長), 京鍾警高秘 제909호</p>		

이름: 박원장	한자: 朴源璋	출생: 1912.01.18. ~ 미상	
본적: 함경남도 문천군 구산면 성저동리 105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번지			
계열과 단체: 치안유지법 위반			
<p><활동 내용></p> <p>1931년 6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용산서에 수감되었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박용선	한자: 朴容善	출생: 1904. ~ 미상	
본적: 경상북도 동래부 기장 대라 362			
주소: 성북동 175-8번지			
계열과 단체: 조선공산당재건공작사건			
<p><활동 내용></p> <p>1931년 10월 조선공산당재건공작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 만기 출옥 후 성북동 175-8번지에 유숙 중이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조선중앙일보』 1933.10.11., 2면 10단, <박씨 만기 출옥></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이성학	한자: 李成學	출생: 1911.06.06. ~ 미상	
본적: 경기도 경성부 창신동			
주소: 경기도 경성부 송인동			
계열과 단체: 경성제대 중심의 반제동맹 사건/ 성북동 활동			
<활동 내용> 1935년 8월 경성제대 중심의 반제동맹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조선중앙일보』 1935.8.26., 2면 8단, <경찰부 의연활동 청년을 속속 검거>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이름: 장동옥	한자: 張同玉	출생: 미상	
본적:			
주소: 성북동 191번지			
계열과 단체: 무산자동맹회 사건			
<활동 내용> 김한과 무산자동맹회 활동을 하였다. 김한이 구속될 당시 장동옥의 집이 수색을 당하였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京城 本町警察署는 無産者同盟會 幹」, 『동아일보』, 1922.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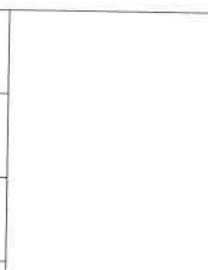
이름: 조병호	한자: 趙秉浩	출생: 1906. ~ 미상	
본적: 전남 영암군 신북면 아산리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60번지			
계열과 단체: 제2차 학생시위운동사건			
<활동 내용> 조병호는 1929년 당시 휘문고보교 5학년 생(23세)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동조시위를 진행하였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제2차 학생시위운동사건 검거의 건, 1930. 2. 26.			

이름: 한순기	한자: 韓順基	출생: 1908.07.06. ~ 미상	
본적: 충북 충주 산천 송강			
주소: 서울 성북 185			
계열과 단체: 체제저항			
<활동 내용> 한순기는 서적 행상으로 1939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령으로 검거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대적으로 검거된 것은 신사참배 및 징집 거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 신농순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참고문헌> 燈臺社事件 關係者 檢舉에 관한 건			

2) 돈암동

이름: 강영옥	한자: 姜永玉	출생: 1913.05.16. ~ 미상	
본적: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p><활동 내용></p> <p>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이름: 김원근	한자:	출생: 1904.09.30. ~ 미상	
본적: 경기도 고양군 돈의동 12			
주소: 경기도 고양군 돈암리 402-18			
계열과 단체: 등대사 사건			
<p><활동 내용></p> <p>치안유지법 위반.</p> <p>신사참배 위반, 여호와의 증인 사건</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1932.8.30.).</p>			

이름: 김원정 김숙경	한자: 金元貞	출생: 1912.05.16. ~ 미상	
본적: 경성부 마포구 196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			
계열과 단체:			
<p><활동 내용>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 체포. 1935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5년 6월 7일 사진 촬영.</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 국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김재권	한자: 金在權	출생: 1913.05.16.~ 미상	
본적: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p><활동 내용></p> <p>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裁定 60 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름. 1941년 10월 19일 출옥함.</p>			
<p><특이사항></p> <p>창씨명 金村在權.</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이름: 김학성	한자: 金學成	출생: 1917. ~ 미상	
본적: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517-2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517-2			
계열과 단체: 경성콤그룹사건			
<활동 내용> 1943년 홍진의 등이 관계된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면소 처분을 받았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홍인의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3.10.25.).			

이름: 박진홍	한자: 朴鎭洪	출생: 미상	
본적: 경성부 종로구 원사정 184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64			
계열과 단체:			
<활동 내용> 조선매약주식회사 사무원, 공판회부, 무죄			
<특이사항> 면소			
<참고문헌>			

이름: 송재옥	한자: 宋梓玉	출생: 미상	
본적: 함남 북청군 신북청면 신북청리 1504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계열과 단체: 치안유지법 위반			
<활동 내용> 무직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 은피, 징역 1년			
<특이사항>			
<참고문헌>			

이름: 손경순	한자:	출생: 1911.08.06. ~ 미상	
본적: 황해 평산 안성 마유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2			
계열과 단체: 토요소년회			
<활동 내용> 1928년 황해도 평산에서 김형도, 양동춘 등과 토요소년회를 설립하였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977, 1131, 1133쪽.			

이름: 암본정우	한자:岩本正雨	출생: 1919. ~ 미상	
본적: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동			
주소: 경성부 돈암정 69-11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내용> 1942년 돈암동 69번지 11호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던 중 본적지에 거주하는 큰 형에게 경성부내의 식량의 부족 상황을 알렸다가 체포되었다.			
<특이사항>			
<참고문헌> 「식량핍박에 대한 불온통신에 관한 건」(1942.10.7), 『사상에 관한 정보』.			

이름: 유석복	한자: 柳錫福	출생:1924.11.11.~ 미상
본적: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희문리 336		
주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63		
계열과 단체 : 학생운동		
<p><활동 내용></p> <p>중앙고보에 다니던 중 반제운동을 하였다가 1935년 2월 21일 검거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국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p>		

이름: 전명선	한자: 全明善	출생: 1897.08.15. ~ 미상	
본적: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170			
주소: 경기도 경성부 창신동 696-1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p><활동 내용></p> <p>1942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름. 1943년 5월 10일 출옥함.</p>			
<p><특이사항></p>			
<p><참고문헌></p> <p>『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p>			

3) 정릉동

이름 : 김아동	한자: 金阿童	출생: 1912. ~ 미상
본적 :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가산리 98번지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계열과 단체 : 체제저항운동		
<p><활동 내용></p> <p>1938년 증산교 포교 활동을 전개하던 중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면소 처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이명은 金長玉.</p> <p>정종진(정릉리), 황응선(정릉리)과 함께 구속</p> <p>모두 면소(免訴)</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38년 3월 24일 3면</p> <p>『매일신보』 1938년 3월 24일 3면</p> <p>경성지법 판결문 1939. 5. 23.</p>		

이름 : 정종진	한자: 鄭鍾震	출생: 1896. ~ 미상	
본적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994번지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계열과 단체 : 체제저항			
<p><활동 내용></p> <p>1938년 증산교 포교 활동을 전개하던 중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면소 처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김아동(정릉리), 황응선(정릉리)과 함께 구속</p> <p>정종진, 황응선 : 보안법 위반, 사기 / 면소(免訴)</p> <p>김아동 : 사기 / 면소(免訴)</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938년 3월 24일 3면</p> <p>『매일신보』 1938년 3월 24일 3면</p> <p>경성지법 판결문 1939. 5. 23.</p>			

이름 : 황응선	한자: 黃應善	출생: 1894. ~ 미상	
본적 : 전라남도 무안군 비금면 신원리 578번지			
주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계열과 단체 : 체제저항			
<p><활동 내용></p> <p>1938년 증산교 포교 활동을 전개하던 중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면소 처분을 받았다.</p>			
<p><특이사항></p> <p>이명은 黃勝連.</p> <p>김아동(정릉리), 정종진(정릉리)과 함께 구속</p> <p>정종진, 황응선 : 보안법 위반, 사기 / 면소(免訴)</p> <p>김아동 : 사기 / 면소(免訴)</p>			
<p><참고문헌></p> <p>『동아일보』 1838년 3월 24일 3면</p> <p>『매일신보』 1838년 3월 24일 3면</p> <p>경성지법 판결문 1939. 5. 23.</p>			

7. 기존에 발굴된 성북구 독립운동가(16명)

이름: 김교신	한자: 金敎臣	출생: 1901.03.30.~1945.04.25.	
본적: 함남 함흥			
주소: 정릉동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운동			
<활동 내용>			
<p>김교신은 함흥농업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고, 지리,박물과로 전과하여 1927년에 졸업하였다. 일본 유학 당시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일본 기독교의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무교회운동(無教會運動)을 전개하던 우치무라[內村鑑三]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유학생이던 함석헌(咸錫憲), 송두용(宋斗用),정상훈(鄭相勳),양인성(梁仁性),유석동(柳錫東) 등과 함께 동경에서 조선성서연구회(朝鮮聖書研究會)를 조직하여 우리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다.</p> <p>1927년 7월 송두용,정상훈,양인성,유석동 등과 협의하여 월간 동인지 《성서조선(聖書朝鮮)》을 일본 동경에서 창간하였으며, 1930년 5월 제16호부터 혼자서 주필 겸 발행인으로 《성서조선》을 발행하였다. 한편 김교신은 1927년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함흥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와 양정중학교, 경기중학교, 그리고 개성 송도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등 주로 민족사학(民族私學)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무교회주의를 실천한 종교인이자 교육자로 평생을 살았다.</p> <p>김교신이 주필 겸 발행인으로 간행하던 《성서조선》은 1934년부터 폐간되던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출판물 압수와 출판금지 처분을 10여 차례 받았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전시총동원체제 아래서 강화된 출판법 적용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출판금지 처분을 받은 《성서조선》은 1942년 3월호의 권두언인 '조와(弔蛙)'에서 조선민족의 소생을 노래했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로부터 폐간을 당하였다.</p> <p>김교신은 1942년 3월 30일 소위 성서조선사건과 관련하여 함석헌,정상훈,송두용 등 12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고, 1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3년 3월 29일 석방되었다. 이후 1944년 7월 일본질소비료공장 흥남연료용흥공장[흥남질소비료공장]에 취업하여 조선인 노무자 주택인 서본궁(西本宮) 관리계 계장으로 일하던 중이던 1945년 4월 병으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2010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p>			

이름: 김동삼	한자: 金東三	출생: 1878.06.23.~1937.04.13.	
본적: 경북 안동			
주소: 성북동(장례식)			
계열과 단체: 통의부			
<활동 내용>			
<p>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07년 안동(安東)에서 유인식(柳寅植)·김후병(金厚秉) 등과 함께 협동중학교(協東中學校)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으며, 1909년에는 서울 양기탁(梁起鐸) 집에서 신민회(新民會) 간부들과 은밀히 회합하여 독립운동기지 설치문제와 독립군의 양성문제를 협의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한국이 강점당하자 1911년 만주로 건너가서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이시영(李始榮)·이철영(李哲榮)·이동녕(李東寧)·이상룡(李相龍)·윤기섭(尹琦燮)·김창환(金昌煥) 등과 더불어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재만동포의 농지개척과 이주민의 안정책을 도모하였다. 또한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군관양성과를 병설하여 젊은 장교들을 양성하였다. 1911년에는 유인식과 같이 통화현(通化縣)에 중어학원(中語學院)을 설립하여 한·중 양민족의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1913년에는 합니하(哈泥河)에 여 준(呂準)·이 탁(李)·이상룡 등과 함께 교포자치기관으로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하여 재만동포의 민생·교육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동년 말경에는 이 탁·김창환(金昌煥) 등과 함께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유하현의 밀림지대에 백서농장(白西農庄)을 개설하여 그 장주(庄主)에 추대되어 다수의 청년동지들을 규합, 3년간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1918년에는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에서 서 일(徐一)·여 준·신팔균(申八均)·김좌진(金佐鎭) 등과 함께 39인이 민족대표로서 연서한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였으며 1919년에는 국내에서 3·1독립운동이 거족적으로 전개되자 4월초에 이상룡·이 탁 등 남만 각지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유하현 삼원보에서 부민단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여 한족회(韓族會)로 개편하고 서무부장에 취임하였으며 또한 남만 독립운동의 총본영으로 군정부(軍政府)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후, 군정부가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의 휘하로 들어가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개칭되자 참모장으로 취임하여 독판(督辦) 이상룡을 보필하였다. 1920년에는 군정서를 길림성 화전현(樺甸縣)에 옮겼다가 이청천(李靑天)과 함께 그 소속부대를 안도현(安圖縣) 밀림속으로 다시 옮기고 병사(兵舍)를 건축하여 제2군사 기지로서, 유사시에 대비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북로군정서군 및 홍범도군(洪範圖軍)과 합세하여 밀산(密山) 및 노령(露嶺) 등지로 이동하였다. 1922년에는 연해주(沿海洲) 각지와 흑룡강(黑龍江) 등지를 순회하며 독립운동의 책원지를 모색하는 한편, 동년 8월에는 봉천성(奉天省) 흥경현(興京縣:현재 신빈현)에서 오동진(吳東振)·현정경(玄正卿) 등과 함께 지금까지</p>			

분산 연립조직되었던 각 단체의 통합을 성공시켜 민족 단일의 독립운동단체인 통군부(統軍府)를 조직하고 그 교육부장에 임명되었다. 그후, 약 2개월 뒤에는 통의부(統義府)가 조직되자 그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23년 1월 3일에는 국민대표회의에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대표로 참석, 의장에 임명되어 회의를 주재하다가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 갈등이 계속되자 양파를 조정, 독립운동기구를 일원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동년 6월 3일 삼십여개의 단체의 개조파 대표와 성명을 발표하고 만주로 돌아왔다. 1925년 1월에는 길림주민회(吉林住民會)·의성단(義成團)·광정단(匡正團) 등 지방단체들을 망라하여 길림성 화전현에서 정의부(正義府)가 조직되자 참모장 및 행정위원에 취임하였다. 1925년 9월 24일, 이상룡이 임시정부 국무령(國務領)에 취임하고 이듬해 2월, 그를 국무원에 임명하였으나 취임하지 않고, 동년 10월 10일, 국무령 홍진(洪震)이 또다시 국무원에 임명하였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1927년에는 길림에서 김좌진·이청천(李靑天) 등이 정의부·신민부·참의부(參議府)를 합하여 민족유일당촉진회(民族唯一黨促進會)를 조직하자, 위원장겸 군민의회(軍民議會)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4월에는 길림에서 김기풍(金基豐)·김진호(金鎭浩)·이 탁·오동진 등 35인과 발기하여 농민호조사(農民互助社)를 조직, 재만농민의 생활개선과 생산증가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 일본군이 만주로 계속 진출하자 동지 이원일(李源一)과 함께 북만으로 갔다가 동년 10월 초, 하얼빈(哈爾濱)의 정인호(鄭寅浩)의 집에 투숙 중 이원일과 함께 일경에게 체포되어 신의주를 거쳐 경성으로 이감된 후,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37년 3월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름: 김의한	한자: 金毅漢	출생: 1900.01.08.~납북	
본적: 서울 정릉			
주소: 돈암동(납북)			
계열과 단체: 임시정부			
<활동 내용> 서울 사람이다. 1919년 10월 국내에서 비밀결사 대동단(大同團)의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부친 김가진(金嘉鎭)과 함께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1928년 6월 상해에 있던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中國本部韓人靑年同盟)의 상해지부 조직에 참가하여 재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 5월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홍구공원(虹口公園) 폭탄의거로 포악해진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상해에서 항주(杭州)로 이전할 때 김구(金九) 등과 함께 강소성(江蘇省) 가흥(嘉興)으로 피신하여 임시정부 활동에 참가하였고, 선전위원회(宣傳委員會)의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 1월 그는 김구·안공근(安恭根)·이동녕(李東寧) 등과 애국단(愛國團)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낙양군관학교 분교(洛陽軍官學校 分校) 내의 한인군관학교와 의열단(義烈團) 계열의 군관학교에도 관여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1939년 10월 임시정부 비서처(秘書處)의 비서와 선전위원회(宣傳委員會)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중경방송국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한인들에게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5월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3당이 통합하여 신당인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립할 때 그는 이의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위원과 상무위원 겸 조직부 주임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40년 9월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이 중경으로 이전한 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광복군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얻게 되자 광복군총사령부(光復軍總司令部) 주계(主計)에 선임되었으며, 1943년 8월에는 광복군 조직훈련과장을 맡았고, 1945년 6월에는 정훈처(政訓處) 선전과장으로 광복군 활동에 참가하였다. 1941년 12월 27일 임시정부 외무부 부원에 선임되었으며 한편으로 외교연구위원회(外交研究委員會)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름: 안재홍	한자: 安在鴻	출생: 1891.12.30.~1965.03.01.	
본적: 경기도 평택			
주소: 돈암동(납북)			
계열과 단체: 청년외교단			
<div><활동 내용></div> <div>1912년 일본 동경(東京)에 거주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유학생(朝鮮留學生) 학우회(學友會)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3년 1월 일본 조도전(早稻田) 대학에 재학중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독립단체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서 청년들을 규합하여 청년외교단(靑年外交團)을 조직하고 총무를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9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1월 조선일보(朝鮮日報)의 주필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신간회(新幹會)의 총무간사에 피임되어 강령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지방의 창립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연 등을 실시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28년 12월 전남 광주(光州)에서 학생운동이 봉기되자 당시의 정치단체인 신간회와 협동하여 조선일보 부사장직에 있으면서 조선민중대회(朝鮮民衆大會)를 열고 일제의 민족차별적인 처우를 규탄하다가 체포되어 1930년 1월 1일 기소유예되었다. 1937년 5월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 학생모집 운동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되고 1938년 5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9년 3월에는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착수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에 연관되어 함경남도 홍원(洪原) 경찰서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후 미군정청 군정장관, 민의원 의원 등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다가 6.25 당시 북한에 납치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div>			

이름: 오세창	한자: 吳世昌	출생: 1864.07.15.~1953.04.16.	
본적: 서울			
주소(사망지): 성북동 128			
계열과 단체: 3·1운동			
<활동 내용>			
<p>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23세의 약관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박문국 주사(博文局主事)가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기관인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기자가 되어 문필로써 명성을 떨쳤다.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낭청·총재비서관(郎廳·總裁秘書官)이 되었다가 농상공부 참의(農商工部參議), 우정국 통신국장(郵政局通信局長)을 역임했다. 1902년(광무 6) 개화당(開化黨)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그곳에서 손병희(孫秉熙)·양한묵(梁漢默) 등을 만나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17년 귀국하여 만세보(萬歲報)와 대한민보사(大韓民報社)를 창설하고, 그 사장으로 취임하여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2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손병희·최 린(崔麟)·권동진(權東鎭) 등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동지를 포섭하기로 하였다. 이에 2월 10일경 최 린과 최남선(崔南善)이 협의하여,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였으므로 손병희·최 린·권동진 등과 이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 2월 25일에는 손병희·권동진과 함께 천도교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참배기 위해 상경한 천도교 도사(道師) 임예환(林禮煥)·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권병덕(權秉德)·나용환(羅龍煥), 장로 이종훈(李鍾勳)·홍병기(洪秉箕), 교도 김완규(金完圭) 등에게 독립만세 관한 계획을 알려 찬동을 얻었는데, 특히 그는 천도교 월보과장 이종일(李鍾一)을 동지로 끌어 들였다. 그는 2월 27일 그들과 함께 재동(齎洞) 김상규(金尙奎)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보고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독립운동자들과 극비리에 연락하였다. 광복후에는 민주의원 의원(民主議院議員)을 겸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장(大韓獨立促成國民會長)과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全國愛國團體總聯合會) 회장을 맡아보며 독립국가 건설에 공헌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p>			

이름: 유우석	한자: 柳愚錫	출생: 1899.05.07.~1968.05.28.	
본적: 충남 청원			
주소: 정릉동			
계열과 단체: 3·1운동			
<활동 내용>			
<p>1919년 4월 1일의 공주(公州)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아우내(川)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유관순(柳寬順)의 오빠이며, 당시 공주 영명학교(永明學校)에 재학중이었다. 3월 12일과 15일에 걸쳐 공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자극받은 영명학교 교사 김관희(金寬會)·이규상(李圭商)·현언동(玄彦東)과 졸업생 김사현(金士賢)·재학생 오익표(吳翼杓)·안성호(安聖鎬) 및 목사 현석칠(玄錫七) 등이, 3월 24일 밤 9시경, 영명학교 사택에서 만나 4월 1일의 공주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그도 학생대표로서 이 계획에 참여하여, 3월 30일 김관희로부터 학생동원과 독립선언서의 등사를 부탁받은 영명학교 조수 김수철(金洙喆)의 집에서 노명우(盧明愚)·강 윤(姜沆)·윤봉균(尹鳳均) 등과 만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뒤, 이튿날 오후 3시경 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1천여매를 등사하고 대형 태극기 4개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후 2시, 그는 다른 학생대표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가지고 장터에 나아가, 여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고, 그 선두에서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강력하고 신속한 저지로 좌절되어, 비교적 소규모로 전개된 채 끝나고, 그는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한편 같은 날 아우내 장터의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던 그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씨(李氏)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동생인 유관순도 체포되어 그의 가정은 파멸된 지경이었다. 공주검사국(檢事局)으로 송치된 그는 여기서 여동생 유관순을 잠시 만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해 8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7년에는 원산청년회(元山靑年會)를 조직,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함흥(咸興)지방법원에서 4년형을 구형받는 등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그의 부인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던 조화벽(趙和璧)으로서 모두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힘쓴 애국가족이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p>			

이름: 이규창	한자: 李圭昌	출생: 1913.03.28.~2005.08.02.	
본적: 서울			
주소: 정릉동			
계열과 단체: 주중일국공사주살			
<활동 내용> <p>서울 사람으로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친 이회영(李會榮), 숙부 이시영(李始榮) 등이 만주로 망명하게 됨에 따라, 통화현(通化縣)에서 출생하였다. 그후 가족을 따라 북경(北京)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929년에 부친 이회영(李會榮)을 따라 상해로 갔다. 그의 부친은 1932년 11월에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고 주만일군사령관 등을 암살할 목적으로 대련(大連)으로 가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그는 상해에서 화랑청년단(花郎靑年團)과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에 가입하여 백정기(白貞基) 정화암(鄭華岩) 오면직(吳冕植) 엄순봉(嚴舜奉) 원심창(元心昌) 이강훈(李康勳) 등과 같이 활약하였다. 1933년 3월에는 남화한인연맹의 행동단체인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을 조직하고 상해의 6 3정에서 당시 주중공사 유길명(駐中公使 有吉明)을 폭살 하려던 계획에 관련되었으며, 군자금 모집 활동에도 앞장섰다. 1935년 3월에는 정화암(鄭華岩)과 협의하여 엄형순(嚴亨淳 ; 舜奉)과 함께 상해 조선인거류민회(居留民會) 부회장과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친일파 이용로(李容魯)를 사살하는 데 성공하고 도피하다가 체포되었다. 본국으로 압송된 뒤 1936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엄순봉은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그는 징역 1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9년 8월, 그는 마포 감옥에서의 옥중투쟁으로 다시 징역 10월 23일형을 가형 받아 광주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고 1945년 8 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p>			

이름: 이길용	한자: 李吉用	출생: 1899.08.15.~ 납북	
본적: 서울 성북동 56			
주소: 성북동 (납북)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			
<p><활동 내용></p> <p>서울 사람이다. 1919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에 근무하며 철도수송업무를 맡아 보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인쇄되어 온 반일(反日) 격문을 수송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근무하던 1936년 8월 25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孫其禎) 선수의 사진을 동아일보에 게재하면서 일장기(日章旗)를 지워버리고 보도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일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1개월여의 조사를 받고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1936년 9월 25일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p>			

이름: 이원록(이육사)	한자: 李陸史	출생: 1904.04.04.~1944.01.16.	
본적: 경북 안동			
주소: 종암동			
계열과 단체: 대구조선은행 투탄			
<활동 내용> 경북 안동(安東)사람이다. 1926년 중국 북경 조선군관학교(朝鮮軍官學校)에 입학하여 제1기로 졸업하였던 그는 1927년 장진홍(張鎭弘)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당하여 2년 7개월간 옥고를 겪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다시 대구격문사건(大邱檄文事件)의 주모자로 지목받아 피체되어 6개월간 구금되었다. 그는 이후 1930년 말경, 중국 북경(北京)으로 가서 북경대학 사회학과(北京大學社會學科)를 졸업하고 『중외일보(中外日報)』와 『조광(朝光)』등의 잡지에 시(詩)를 발표하면서 항일정신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후 그는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17회에 걸쳐 피체되어 서울 등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1월 16일 북경 감옥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름: 이종암	한자: 李鍾巖	출생: 1896. ~ 미상	
본적: 대구			
주소: 종암동 (부인 서희안이 거주)			
계열과 단체: 의열단			

<활동 내용>

대구공립보통학교(大邱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대구농업학교(大邱農業學校)를 거쳐 부산상업학교(釜山商業學校)에 다니다가 1916년 대구은행(大邱銀行)에 은행원으로 취직한 그는 출납계주임(出納係主任)이 되어 금고 열쇠를 맡아 2년간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여 1917년 만주(滿洲)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에 뜻을 둔 동지와 함께 조국광복투쟁을 결의,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여 밀양에 거주하던 김대지(金大池)·구영필(具榮泌) 등의 동지를 얻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은행 금고 속에 있는 만 구백원의 돈을 꺼내, 동지들과 함께 처음에는 미주(美洲)로 유학코자 하였으나 세계 제1차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上海)를 거쳐 만주로 갔다. 만주에서 그는 길림성 영안현 동경성(吉林省 寧安縣 東京城)의 간민소학교(墾民小學校)에 주소를 두고 1918년 2월에는 봉천성 통화현(奉天省 通化縣)에 있는 무관학교(武官學校)에 입학하였다. 이어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관인 서상락(徐相洛) 등의 동의를 얻어 무관학교를 그만두었다. 이어 1919년 11월 9일 길림성 파호문(巴虎門) 밖에서 김원봉(金元鳳)·이성우(李誠宇)·황상규(黃尙奎) 등과 함께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였으며 그와 김원봉은 상해(上海)로 가서 불란서 조계(租界)에 사는 김성근(金聲根)에게 폭탄제조방법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의열단원 곽재기(郭在驥)·이성우(李誠宇) 등은 상해에서 폭탄과 권총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앞으로 있을 거사에 대비하였다. 이종암이 대구은행에서 가져온 돈은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여졌고, 그 일부는 동지인 구영필(具榮泌)에게 전해져 만주 봉천(奉天)의 비밀결사인 삼광상회(三光商會)를 설치하는 자본금으로 쓰여졌다고 한다. 1922년 3월 그는 김원봉·김익상(金益相)·오성륜(吳成崙)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상해로 오는 일본육군대장 전중의일(田中義一)을 처단하기로 결정하고 전중(田中)이 3월 28일 상해에 상륙할 때 처치하되 차질이 생기면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에서 있을 예정인 연회식 때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사 당일 전중이 상해의 세관부두로 상륙하자, 세관부두에 김익상과 오성륜 동지가 배치되었으므로 그는 거사의 성공을 빌며 소식을 기다렸으나, 불행히도 전중암살은 실패하고 두 동지만 일경에게 피체되고 말았다. 1925년 9월 재정사정의 궁핍으로 활동이 힘들어지자 그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선전용으로 신채호(申采浩)가 작성한 의열단선언서(義烈團宣言書 ; 일명 朝鮮革命宣言書)를 지참하고 대구로 잠입하였다. 그곳에서 이병호(李丙浩)의 안내로 이병태(李丙泰)를 만나 자신이 전에 부산금융조합(釜山金融組合)에 예금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일제 경찰의 추적을 받고, 그가 잠시 요양중이던 경북 달성군 달성면(慶北 達城郡 達城面) 이기양(李起陽)의 산장에서 1925년 11월 5일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1926년 1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름: 임규	한자: 林圭	출생: 1867.09.23.~1948.03.07.	
본적: 전북 익산			
주소: 성북동			
계열과 단체: 3·1운동			
<활동 내용>			
<p>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전라북도 익산(益山) 출신이다. 손병희(孫秉熙) 등이 주축이 된 거족적인 독립운동계획에 참여하여 일본 정부와 귀족원(貴族院)·중의원(衆議院)에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와 통고문 및 선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2월 27일 오후 7시 최남선(崔南善)으로부터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통고문 3통과 선언서를 받아가지고 경성을 출발하여, 3월 1일 오후 4시경에 일본 동경(東京)에 도착하여 3일에 이 서류를 일본 수상과 의회에 우송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3월 9일 귀국 도중에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에 압송되었으나, 미결수로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이듬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을 받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p>			

이름: 장건상	한자: 張建相	출생: 1882.12.19.~1974.05.14.	
본적: 부산			
주소: 정릉동			
계열과 단체: 임시정부			
<활동 내용> 號 : 宵海 부산(釜山) 사람이다. 1916년 상해(上海)로 망명, 신규식(申圭植)이 조직 운영하던 동제사(同濟社)에 가담하여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1917년 만주(滿洲) 안동현(安東縣)에서 망명객의 길 안내역을 맡아 활동했고, 영국상선(이룡양행 소속) 안동지사장 조지 쇼우와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을 위한 한인거류민단의 국민대회 준비위원이 되어 김규식(金奎植)·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임정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임정이 수립·선포되자 1919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으로 선출되고 외무부(外務部) 위원이 되었다. 또한 동년 7월 1일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가 상해에서 창립되자 상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월 9일 의열단(義烈團)이 만주(滿洲) 길림(吉林) 파호문(巴虎門)에서 창립되자 후원자(총장)가 되고 기밀부·실행부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기밀부 요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1920년 2월에 북경(北京)으로 가서 2월에 의열단(義烈團)이 중국(中國)에서 폭탄을 매입하여 국내로 보낼 때 안동현(安東縣) 중국세관에 있는 영국인 보잉에게 임정외교차장으로서 신임장을 보내어 객재기(郭在驥)와 이성우(李誠宇) 등이 폭탄을 국내로 반입할 때 막후에서 지원하였다. 1921년 4월 19일에는 미국(美國)에 체재하고 있었던 이승만(李承晩)·정한경(鄭翰景)이 미국정부에 대해 우리나라를 위임통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이를 동지와 같이 크게 성토했다. 동년 5월에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소위 창조파(創造派)의 일원으로서 김 립(金立)·원세훈(元世勳)·신 숙(申肅) 등과 조선공화정부(朝鮮共和政府)를 북경(北京)에서 조직하고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동년 8월에는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에 입당하여 중앙정치위원 겸 7인 정치부의 한 사람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산당회의에 왕삼덕(王三德)·안병찬(安秉瓚) 등과 함께 대표로 참석하여 소련공산당 레닌을 면담하고 독립운동 지원자금 40만 루블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동년 9월에는 이르크츠크 재로한인공산자대회(在露韓人共產者大會)에 참가하였으며, 그곳에서 보리스 슈미야츠키를 만났고, 이르크츠크회의에서 의장단으로 사회를 맡았다. 1922년에는 북경에서 의사개업을 했던 한진산(韓震山)과 손잡고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외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년 1월 22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피압박인민대회(極東被壓迫人民大會)의 참가대표 52인 중 1인으로 선발되어 참석하고 김시현(金始顯) 등의 국내파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하였다. 동년 12월에는 꼬르뷰로의 임원에 피선되었다. 1923년에 국내 및 국외의 지역대표로서 국			

민대표회(國民代表會)를 구성할 때 노령(露領) 시베리아부 대표로서 상해(上海)에 왔으며, 회의 초안기초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그후 군사통일회(軍事統一會) 조직을 발기하였다. 192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외교총장으로 있으면서 의열단(義烈團)의 이종암(李鍾岩) 등의 입국활동시 필요한 혁명선언서 신임장과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1926년 북경(北京)에서 잡지 《혁명》을 김성숙(金星淑)과 함께 발간하였다. 동년 10월 28일에 북경(北京)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축성회(韓國唯一獨立黨促成會)의 취지문을 발표하고 7인 집행위원 중 1인이 되었으며 대표 조성환(曹成煥)의 명을 받아 중국 남부지방에 특파되어 선전에 주력하였다. 1927년에는 의열단(義烈團) 제3기 간부훈련을 마치고 민족혁명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당원으로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피선되었다. 1928년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과 독립운동 자금관계를 의논한 뒤 상해(上海)로 돌아와 김원봉(金元鳳)과 만나 의열단(義烈團) 고문이 되어 폭탄을 만들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을 지휘했다. 1929년에는 상해(上海)에서 클럽활동을 지휘했으며, 1930년에는 북경(北京) 화북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39년 상해 일본영사관 형사에게 피체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1년 동안 국내 각 경찰서로 끌려다니며 각종 고문을 받았다. 1941년에 건강의 악화로 사경을 헤맸으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석방되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휴양하였다. 1942년 국내를 탈출하여 만주·상해·홍콩을 경유하여 중경에 도착하였다. 동년 2월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헌에 따라 주석 김 구(金九), 부주석 김규식(金奎植)이 선출되었는데, 이때 국무위원 겸 학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 1943년 10월 30일에는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서 인도공작원으로 파견되도록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에 신분보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944년 4월에는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1945년 독립운동 좌우합작 대동단결을 위해 임정대표로서 연안에 파견되었다가 연안에서 광복을 맞이하여 중경 임정으로 돌아왔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이름: 정정화	한자: 鄭靖和	출생: 1890.08.03.~1991.11.02.	
본적: 충남 연기			
주소: 돈암동			
계열과 단체: 중국방면 항일운동			
<활동 내용> <p>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시부(媳父)인 대동단(大同團) 총재 김가진(金嘉鎭)을 따라 1919년 3·1독립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갔다. 그녀는 1930년까지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6회에 걸쳐서 국내를 왕복하면서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1932년에는 윤봉길(尹奉吉)의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 의거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가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녕(李東寧)·김 구(金 九)·엄항섭(嚴恒燮) 등과 함께 이동하여 임시정부를 도왔다. 1934년에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에 입당하여 활동하였으며, 1940년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창당요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1940년에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조직하고 그 간부로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중경(重慶) 3 1유치원(幼稚園)의 교사로 임명되어 독립운동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43년 2월 23일에는 중경(重慶)에 있는 임시정부 산하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의 재건조직에 참여하여 훈련부장에 선출되었으며, 국내외 한인 부녀의 총단결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에 있는 동포여성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혹은 위문 금품을 거두어 일선에 있는 독립군을 위문하며, 혹은 적진 중에 끼어 있다가 포로수용소를 통하여 넘어오는 동포 여성들을 계몽 교육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또 전란과 병고로 고생하는 동포들을 찾아 정성어린 위문과 부조로 천애이역(天涯異域)에서 동포애의 꽃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멀리서 미주 한국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재미(在美) 각계 동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성원을 두터이 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p>			

이름: 조소앙	한자: 趙素昂	출생: 1887.04.10.~1958.09.	
본적: 경기도 양주			
주소: 돈암동 (납북)			
계열과 단체: 임시정부			
<활동 내용>			
<p>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1년 3월 일본(日本) 동경(東京) 명치(明治)대학의 법과에 유학하던 중 중국(中國) 상해(上海)에서 재망명 길에 오른 이승만(李承晩)이 동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학생에게 행한 강연으로 인하여 반일민족사상과 조국 광복의 독립사상을 갖게 되었다. 1913년 중국 북경(北京)을 거쳐 상해로 망명하여 신규식(申圭植)·박은식(朴殷植) 등과 동제사(同濟社)를 박달학원(博達學院)으로 개조하여 혁명청년들을 훈련시키며 진영사(陳英士)·황 각(黃覺) 등과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와 아시아 민족의 반일단체로서 대동당(大同黨)을 조직하였다. 1915년 구국종교로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정신적 유도를 목적으로 육성교(六聖敎)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단군(檀君)은 '독립사상(獨立思想)', 불타(佛陀)는 '자비제중(慈悲濟衆)', 공자(孔子)는 '충서일관(忠恕一貫)', 소크라테스는 '지덕합치(智德合致)', 예수 그리스도는 '애인여기(愛人如己)', 마호메트는 '신행필용(信行必勇)'으로써 연결하여 육성일체(六聖一體)를 구상한 것이었다. 1919년 2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의 밀명을 받아 일본 동경으로 파견되어 조선의 유학생들과 접촉하여 2·8독립선언의 계기를 조성하면서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지도하였다. 1919년 4월 10일 3·1독립운동 이후 국내 서울에서는 조선민국 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고 정도령(正都領)에 손병희(孫秉熙), 부도령(副都領) 및 내각총리경(內閣總理卿)에 이승만(李承晩)으로 내각을 구성할 때 그는 교통무경에 임명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신규식(申圭植)과 함께 혁명당(革命黨)을 조직하여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헌장(臨時憲章)과 임시의정원법(臨時議政院法)을 제정하여 초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개회됨으로 초대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고 국무원이 구성되자 국무원 비서장에 선임되었다.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정보통신과 군자금 모집, 송금 및 임시정부의 선전과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을 조직하게 되자 그는 외교특파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종욱(李鍾郁)을 통하여 이병철(李秉徹)·안재홍(安在鴻)으로 하여금 조직의 활동을 하게 하였다. 1921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산당대회(共產黨大會)를 참관한 후 중국 북경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리선언(滿洲里宣言)'을 발표하였으며,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으로 선출되고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1922년 6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연맹 강화회의(國</p>			

際聯盟講和會議)에 김규식(金奎植)을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파견하였는데 그는 김규식을 원조하는 사명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파견되었다. 1922년 12월 중국 상해에서 김상옥(金相玉)을 만나 재등(齎藤) 조선총독(朝鮮總督)을 죽이고, 일제의 관공서를 파괴함으로써 독립사상을 고취시킬 것을 역설하니 마침내 1923년 1월 김상옥이 국내로 들어와서 종로(鐘路) 경찰서에 투탄하는 거사를 일으키게 하였다. 1926년 8월 18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학무총장을 겸임하다가 약헌개정에 따라 국무원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 11월 국내에서 민족유일전선으로 조직된 신간회(新幹會)의 활동과 때를 맞추어 중국 상해에서 한국유일독립당(韓國唯一獨立黨) 축성회를 이동녕(李東寧)·안창호(安昌浩)·홍진(洪震)·이시영(李始榮)·김구(金九) 등과 함께 결성하고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9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창당발기인인 이동녕·김구·이시영 등과 함께 참여하여 정치균등·경제균등·교육균등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창시하고 당헌(黨憲)·당강(黨綱)을 기초하여 가결시켰다. 1930년 7월에는 국무위원장 이동녕과 함께 국무위원 외무장으로 임명되었다. 193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적 공작을 목적으로 특무대(特務隊)를 조직하여 의생단(義生團)이라 하고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공작 일체를 김구에게 위임한 후 애국단(愛國團)의 명칭으로 이봉창(李奉昌)·윤봉길(尹奉吉)의 대의거를 일으키게 하였다. 1933년 1월 임시의정원에서 국무위원에 선임되어 임시정부 내무장(內務長)에 취임하였다가 그해 3월 6일 해임되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었다. 1933년 7월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조선의열단(朝鮮義烈團)·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합당파(合黨派)간에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결의되어 새로운 민족단일당으로서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이 창당될 때 한국독립당을 해체하고 합당파를 이끌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다가 조선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이 당권을 장악하자 1933년 9월경에 민족혁명당을 탈퇴하여 다시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다. 1934년 3월 일제가 1932년 1월 중국 상해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승하게 됨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전사한 일본군 장병들의 초혼제(招魂祭)를 거행하게 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강병학(康秉鶴)이 식장에 참여하는 유길(有吉) 상해 일본공사와 금촌(今村) 제3함대사령관 등 일본 요인들을 폭탄을 던져 죽이고자 의거를 일으키자 그 의거에 대한 선언서를 작성하여 중국국민과 내외동포에게 독립사상을 널리 선전하였다. 1935년 항주(杭州)에 이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외무장에 재선되었다. 1936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내무장으로 선임되었으며 3·1독립운동 제1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독립당의 명의로 된 기념선언을 발표하였다. 1937년 8월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을 계기로 광복전선을 구성하기 위하여 김구의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과 이청천(李靑天)의 조선혁명당과 제휴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중국 남경(南京)에서 결성하고 '대중전국선언(對中戰局宣言)'을 발표하였다. 1939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외무장으로 임명되었다. 1940년 4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재건파

등 3당이 통합되어 한국독립당을 창립할 때 중앙집행위원에 피선되고 창당 선언을 기초하여 한국독립당은 3·1독립운동의 생명을 계승한 민족운동의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당임을 성명하였으며 동년 9월 17일에는 중국 중경(重慶)에서 광복군총사령부(光復軍總司令部)를 설립케 하여 전례식을 거행하고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1941년 중국참정회(中國參政會)에 교섭하여 한국독립에 대한 원조와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1942년 1월 임정선전위원회(臨政宣傳委員會) 주임위원이 되어 선전계획의 수립과 전개의 중추적 활동을 하며 '고 국내동포서(告國內同胞書)'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942년 3월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 미·영·소·중 4개 연합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속히 승인하여 줌으로써 연합국과 함께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한편 동년 10월 11일에는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를 성립시켜 협회장에 손과(孫科) 중국 입법원장이 되고 그는 김규식과 함께 한국측의 부회장으로서 선임되어 중한공동전선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1943년 6월 임시정부 외교부장의 명의로 중국 국민정부(國民政府) 군사위원장에 장개석(蔣介石) 총통에게 공한을 보내어 동년 7월 26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선전부장, 그리고 이청천(李靑天) 광복군사령관과 함께 회담하게 되었으며, 이 석상에서 한국의 독립지원을 요청한 결과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독립문제가 논의되고 독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44년 3월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한국독립당의 임무>라는 제목하의 논설을 발표하고 동년 6월에는 임시정부 외무부의 비망록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중·한 양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9월에는 중한문화협회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행하여 내외의 이목을 끌고 우방의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촉구하였다. 1945년 2월 28일 임시정부 외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대독선전 동의요구안(對獨宣戰同意要求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어 임시정부에서는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으며 동년 3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개최되는 연합국회의(聯合國會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요청하고 재미교포인 윤병구(尹炳球)외 8명을 선임하였다. 광복후에는 한독당 부위원장·사회당 당수·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가 6·25 당시 북한에 납치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이름: 최익환	한자: 崔益煥	출생: 1889.02.12.~1959.07.25.	
본적: 충남 홍성			
주소: 성북동 (돈암동)			
계열과 단체: 대동단			
<활동 내용>			
<p>1905년 서울의 광무일어학교(光武日語學校)에 들어가 2년간 수학한 뒤 1907년 가을에 종사도량형사무국(從事度量衡事務局) 통영관을 거쳐 탁지부(度支部) 세무주사(稅務主事)와 충남 서천군(徐川郡) 재무주사(財務主事)를 지냈다. 1909년 서천군 재무주사 재직중, 그는 한때 일진회(一進會)에 관계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 3천여원을 사취했다가 이일이 발각됨으로써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915년 출옥한 이후 만주 봉천(奉天) 등지를 왕래하던 그는 1917년경부터 세계정세가 급변되면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자 독립달성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1918년 봄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랜 동지 전협(全協)과 결합하여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은 독립달성을 위해서, '조선 민족의 정신 통일과 실력 양성'이 급선무라는데 뜻을 모으고 그의 실천 방안으로서 대동단(大同團)'을 결성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 각층을 황족(皇族)·진신(縉紳)·유림(儒林)·종교(宗教)·교육(教育)·상공(商工)·노동(勞動)·청년(靑年)·군인(軍人)·부인(婦人)·지역구역(地域區域) 등 11개 단(團)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국적 조직을 목표로 하고 활발한 조직 및 선전활동을 펴나갔다. 이때 최익환은 동단의 선전활동을 주관하면서 동단 발행의 각종 인쇄물 등을 작성·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그가 자금 모집을 위해 관여했던 거간(居間) 중매가 금품 사취로 되어 동년 5월 23일 일경에 피체되었다. 일제도 처음에 이들이 대동단과 관련된 것을 몰랐으나 조사 과정에서 대동단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익환을 비롯해 선전물의 작성, 인쇄 배포에 참여했던 권태석(權泰錫)·나경섭(羅景燮)·김영철(金永喆) 등도 피체되었는데, 이를 보통 대동단사건이라 부른다. 이일로 그는 소위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았다. 출옥 후 1925년에 대동단의 동지였던 권태석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폈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될 때에는 발기인으로 참여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p>			

이름: 한용운	한자: 韓龍雲	출생: 1879.08.29.~1944.06.29.	
본적: 충남 홍성			
주소: 성북동			
계열과 단체: 3·1운동			

<활동 내용>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충청남도 홍성(洪城) 출신이며 불교인(佛敎人)이다. 처음에는 1894년(고종 31)의 동학혁명에 가담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1896년(건양 1)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으로 들어갔다. 한때 만주 간도성(滿洲間島省) 등을 다니며 광복운동을 하다가, 1905년(광무 9)에 인제(麟蹄)의 백담사(百潭寺)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 후 출가 입산하여 백담사에 오는 애국지사에게 조국없는 백성의 비애와 앞날의 광복운동에 대한 방책을 설득시켰다.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박탈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군 군관학교(軍官學校)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로 유랑하다가 1913년 귀국하여 불교학원(佛敎學院)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이해 범어사(梵魚寺)에 들어가 불교대전(佛敎大典)을 저술하여, 대승불교(大乘佛敎)의 반야사상(般若思想)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1916년에는 서울의 계동(桂洞)에서 월간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서는데 힘썼고,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문화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24일,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한 최린(崔麟)으로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듣고, 또 최남선(崔南善)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해인사(海印寺)의 승려인 백용성(白龍城)에게 이 계획을 알려, 불교도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민족대표로 서명할 인장을 위임받았다. 그는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독립간청서 또는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려 했으나, 독립선언서로 표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27일에는 다시 최 린을 방문하여 스스로 민족대표자로 서명 날인하고, 백용성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장으로 서명 날인하여 주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재동(齎洞)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회합하여, 다음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모인 민족대표를 대표하여 그가 인사말을 함으로써 독립선언식을 끝내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하여 저항문학에 힘썼고, 1927년에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경성지회장(京城支會長)을 겸임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敎

靑年會)를 조선불교청년동맹(朝鮮佛教靑年同盟)으로 개칭,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이해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독립 투쟁사상 고취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Ⅶ. 발굴·조사 영역의 성과와 활용방안

1. 발굴·조사 영역의 성과

가.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성북구의 위상 확인

- 기존에 성북구에서는 3·1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알려진 정도였다. 이번 ‘성북구 독립운동가 등 발굴·조사 영역’으로 성북구에서 의병투쟁, 문화운동, 의열단 활동, 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성북구가 독립운동의 대표적 거점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95명의 독립운동가 신규 발굴

- 지금까지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은 모두 16명이었다. 그런데 그들 중의 다수는 성북구 출신이 아니었고, 독립운동 시기에 성북구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성북구에 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영역으로 일제강점기 성북구에 본적을 두었거나 성북구에 거주한 95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였다.

다. 청산리전투 참가 북로군정서 간부 확인: 나중소·김규식

- 성북구 정릉 출신인 나중소(건국훈장 독립장)가 북로군정서 참모장으로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였고, 이후 김좌진과 함께 신민부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양주 출신인 김규식(건국훈장 독립장)이 돈암동에 거주하던 당시 의병 투쟁을 전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가 1920년 7월 행불된 후 북로군정서에 입대하여 북로군정서와 신민부와 한국독립당에서의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공군 제2대 참모총장 최용덕의 본적지 확인

- 의열단과 광복군으로 활동하였고,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제2대 참모총장으로 활동한 최용덕의 출신지가 성북동인 것은 알려져 왔으나, 그의 본적지가 ‘성북동 265번지’인 것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마. 3·1운동 관련 수형자 확인

- 3·1운동 관련 수형자로 성북동의 김수룡(1901~미상)과 박홍식(朴弘植, 1902~미상), 돈암동의 김동익(1887~미상), 안암동의 손진태(1900~미상)와 이재성(1883~미상)과 피한봉(1884~미상), 월곡리의 정만산(1886~미상) 등의 공적을 확인하였다.

바. 학생운동 관련자 공적 확인: 김종윤·손용우·이완기

- 안암동 거주자 김종윤(金鍾潤, 1911~미상)이 1940년 경성공립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 일명 ‘CHT’)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성북동 거주자 손용우(孫龍祐, 1923~미상)가 조선문화학원 중등과에 재학하던 1940년 9월 무렵 安秉九, 權懿, 李鍾浩 등과 일본패전을 기회로 조선독립을 목표로 매진하자고 협의하고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성북동 거주자 이완기(李完基, 1923~1942)가 1940년대 초반 중등학교 학생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중순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의병투쟁가 공적 확인: 김규식·황윤명(수연)

- 성북동 거주자 황윤명(黃允明, 黃壽延)과 그의 아들 김수영(金洙瑩, 36세)이 고종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의병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경기도 양주 출신 노은 김규식(金奎植, 蘆隱, 1882~1931)이 군대 해산 무렵 돈암동에 거주하였고,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허위와 함께 의병투쟁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 시국담 활동 등의 전시체제 저항가 확인

- 성북동의 노현중, 박노태, 정진숙, 이근창, 문석준이 1940년대 초 전시상황 등 시국담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 성북동의 한순기, 돈암동의 김원근 등이 신종교단체에 속하여 전시체제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굴하지 않은 인물 중에 성북동의 신태범·신태제·신태천·김병익, 상월곡리의 신완은 여호와의 증인 사건(등대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종암동의 지상일은 인도교(人道敎)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자. 공산주의계 독립운동가 확인

-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 학생으로 공산주의를 수용하여 체제 변혁 활동을 하던 성북동 거주자 김하경(1917~미상)을 확인하였다.
- 경성고등공업학교에 다니던 방용모(1919~미상)가 1940년 무렵 이종갑 등과 교유하며 공산주의를 학습하고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성북동에 거주하던 배성룡(1896~1964)이 1924년 화요회와 제2차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성북동에 거주한 정태식(1911~미상)이 1930년대 초반 경성트로이카에서 활동하였고, 1940년 경 경성콤그룹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아나키즘계 독립운동가 확인

- 안암동 거주 김양복(金養福, 1907~미상)이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아나키즘단체 일성단(一聲團)을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안암동 거주 김현국이 1929년 2월 충주 금성여관에서 권오순, 안동규 등과 아나키즘단체인 문예운동사를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카.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자 20명 발굴

- 발굴한 성북구의 95명의 독립운동가 중 기존에 포상을 받은 사람은 16명이고, 포상 추천이 가능한 사람은 20명이다. 성북구의 동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성북구의 독립운동가>

동명	기존 발굴자	신규 발굴자	
		공적조사자	공적자료 추가조사 요망자
성북동	김동삼, 오세창, 이길용, 임규, 최익환, 한용운	김복진, 김석윤, 김수룡, 김하경, 노현중, 문석준 , 박노태 , 박흥식 , 방용모, 배성룡, 서광훈, 성봉진, 손용우, 안복산, 유진희, 이근창, 이완기 , 이종린, 정진숙 , 정태식, 최두선, 최용덕, 최차손, 현학손	강주환, 국순만, 김기진, 김성룡, 박용선, 박원장, 이성학, 장동욱, 조병호, 한순기
돈암동	안재홍, 정정화, 조소앙	강영준 , 강천룡 , 권유근 , 김규식, 김대봉, 김동익 , 김월옥, 김재황, 김학성, 노국환, 박래수, 박철 , 송인현, 신락현 , 신형균, 심정섭 , 이기석, 이용상, 이정용, 이현우, 장익민 , 조성훈 , 편강청덕, 홍석표	강영옥, 김원근, 김원정, 김재권, 김진홍, 손경순, 송재옥, 암본정우, 유석복, 전명선
정릉동	김교신, 김의한, 유우한, 이규창, 장건상	김영균 , 나중소, 유영민 , 주영복	김아동, 정종진, 황응선
안암동		김상준, 김순원 , 김양복 , 김용태, 김종윤 , 김현국, 손진태 , 양원길, 오세덕, 오세진, 이기윤, 이병우, 이재성	
종암동			이원록, 이종암

* 볼드와 밑줄을 친 인물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자임.

2. 발굴·조사 영역의 활용 방안

가. 새롭게 발굴한 95명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20명을 2017년 초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여 2017년 8월 15일 광복절에 포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이번에 새로 발굴된 나중소·최용덕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의 본적지·거주지 터에 표지석이나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인물과 계열별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성북구에서의 독립운동과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 사실을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 2017년 8월 광복절 직전 한국민족운동사학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면, 광복절에 성북구 출신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하는 것과 아울러 성북구의 독립운동적 면모를 선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발표주제

- ① 1930~40년대 성북구인의 학생운동
- ② 1930~40년대 성북구인의 전시체제 저항운동: 신종교, 시국담, 강제동원 저항활동
- ③ 일제강점기 성북구인의 문화운동: 삼산학교의 교사·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④ 일제강점기 성북구인의 사회주의운동
- ⑤ 성북구인의 만주 독립운동: 나중소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 ⑥ 성북구인의 중국 관내 독립운동: 최용덕과 이육사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라. 성북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읽기 쉬운 대중적 화보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를 권유한다.

마.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 하에 국내외 탐방 행사를 가졌으면 한다.

- 문광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고등학생과 함께 성북구 출신 나중소와 김규식의 국외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북간도의 왕청현 - 청산리 - 밀산 - 스보보드니(자유시) - 영안 - 동경성 - 산시 등을 돌아보는 답사 행사를 실시하였으면 한다.

사. 성북구의 독립운동의 현장과 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본적지와 거주지를 답사하는 행사를 벌였으면 한다.

아. 성북구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UCC제작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

자. 성북구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정기적인 강연을 개최하였으면 한다.

차. 성북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이달의 성북인’이란 컬럼을 마련하고 성북구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소개하였으면 한다.

카. 성북구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퀴즈 대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응답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면 한다.

VIII. 성북구의 인명별 독립운동가 표

이름 姓名	생년월일	본적	계열 · 단체	페이지
		주소	포상여부	
강영옥 姜永玉	1913.05.16.	경성부 돈암 124-2	국가총동원법 위반	116
		경성부 돈암 124-2		
강영준 姜永俊	1906.10.19.	전북 정읍군 웅동면 비봉리 535	학생운동 시국담	62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강주환 姜周煥	1914.03.13.	평북 창성군 대창면 봉룡동 500	체제저항운동	111
		경성부 성북 177-24		
강천룡 姜千龍	1904.07.28.	경성부 서대문구 냉천동 74-37	시국담	63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국순만 鞠淳萬	1912.05.01.	전남 담양군 담양면 반각리	학생운동	111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10		
권유근	1908.10.29.	경성부 중학 37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	64
		경성부 돈암정 7-123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김교신 金敎臣	1901.03.30.	함남 함흥	국내항일운동	123
		정릉동	건국포장	
김규식 金奎植	1882.01.15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281	13도의군 북로군정서	65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독립장	
김기진 金基鎭	1903.06.29.	경성부 윤니동	신건설사사건	112
		경성부 윤니동		

김대봉 金大鳳	1913.05.16.	경성부 돈암정 455-13	강제동원체제 저항	67
		경성부 돈암정 455-13		
김동삼 金東三	1878.06.23.	경북 안동	통의부	124
		성북동 (장례식)	대통령장	
김동익 金東益	1887.01.02.	경성부 종로 6-54	3·1운동	68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동 산 49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김복진 金復鎭	1901.09.2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고려청년회, 신건설사 사건	33
		경성부 사직	애국장	
김상준 金相俊	1918.	평남 개천군 조양면	경성콤그룹사건	91
		경성부 동대문구 안암정 181-6		
김석윤 金錫胤	1851.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16	建北有韓公司 고종황제 관련 활동	35
		경성부 북부 묘동		
김성룡 金聖龍		경남 창녕군 주성면 신당리	낙서사건	112
		경성부 성북정 176-4 배성룡의 집		
김수룡 金壽龍	1901.04.20.	경남 양산군 동면 교리,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8	3·1운동	34
		서울 서대문 신영동 209	애족장	
김순원 金順元	1917.	평안남도 진남포부 비석정 191	보성전문학교 경성콤그룹	92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168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	
김아동 金阿童	1912.	전남 무안군 비금면 가산리 98번지	체제저항운동	121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김양복 金養福	1907.08.23.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마산리 57	일성단	93
		서울 안암정 205-11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김영규 金永圭	1919.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88	국내항일 조선독립단	86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416-33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김용태 金容泰	1916.01.16.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12	사회주의 고창농민조합	94
		서울 안암정 157		
김원근	1904.09.30.	고양군 돈의동 12	등대사 사건	116
		고양군 돈암리 402-18		
김원정 金元貞	1912.05.16.	경성부 마포구 196	미상	117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		
김월옥 金月玉	1914.12.13.	함남 원산 남촌 31	학생운동 적색노동조합	69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		
김의한 金毅漢	1900.01.08.	서울 정릉	임시정부	126
		돈암동 (남북)	독립장	
김재권 金在權	1913.05.16.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국가총동원법위반	117
		경성부 돈암정 458-309		
김재환 金在煥	1917.04.18.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280	학생운동 조선학생동지회	70
		경성부 돈암정 458-349	애족장	
김종윤 金鍾潤	1911.02.10.	서울 송인정 63-10	조선인해방투쟁동맹(CHM)	95
		서울 안암정 200-12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김하경 金河景	1917.	함남 함흥부 황금정 3정목 1	사회주의	36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60-49		
김학성 金學成	1917.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517-2	경성콤그룹사건	118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517-2		

김현국 金顯國	1905.09.01.	서울 송인정 176	아나키즘 문예운동사	96
		서울 안암정 86-11	애족장	
나중소 羅仲昭	1867.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5통 7호 603번지	북로군정서	88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통 1호	독립장	
노국환	1867.02.05	전북 순창 상치 운암 507	학생운동 독서회	71
		경성부 돈암정		
노현중 盧鉉重	1920.09.29.	충남 천안읍 남산정 139	단파방송사건	37
		서울 성북 177번지 25호 松山高吉방		
문석준 文錫俊	1894.	함남 함주군 삼평면 원상리 259	시국담	39
		성북정 195-23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	
박노태 朴魯胎	1915.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동 363	단파방송사건	41
		종로구 성북정 189-2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박래수 朴來洙	1925.07.28.	용진군 서면 읍저 421	학생운동 시국담	72
		경성부 돈암정 산65-18		
박용선 朴容善	1904.	경북 동래부 기장 대라 362	조공재건사건	113
		성북동 175-8		
박원장 朴源漳	1912.01.18.	함남 문천군 구산면 성저동리 105	치안유지법위반	113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83		
박진홍 朴鎭洪		경성부 종로구 원사정 184		118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64		
박철 朴軾	1899.09.17.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5	평양노동청년회	73
		평남 평양 이문리 30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박홍식 朴弘植	1902.03.17.	경성부 종로 4정목	3·1운동	43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5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방용모 方容模	1919.	평북 정주군 남서면 화산동 293	사회주의	44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95-28		
배성룡 裴成龍	1896.10.28.	경북 성주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	46
		경성부 성북정 176-4		
서광훈 徐光勳	1903.10.17.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	형평사 고려혁명당	47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73		
성봉진 成奉眞	1908.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국내항일	48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건국포장	
손경순	1911.08.06.	황해 평산 안성 마유	토요소년회	119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2		
손용우 孫龍祐	1923.	양평군 설악면 방설리	학생운동 조선문화학원	49
		성북 133-60		
손진태 孫晉泰	1900.12.08	서울 안암정 11	3·1운동	97
		서울 안암정 11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	
송인헌 宋仁憲		경성부 종로구 소격정 49	강제동원체제 저항	74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송재옥 宋梓玉		함남 북청군 신북청면 신북청리 1504	치안유지법위반	119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신락현 申洛鉉	1921.01.03.	경기 광천 초월 신대 41	시국담	75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동 262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신형균 申亨均	1920.01.02.	충북 진천 만승 내촌 46	국내항일	76
		경성부 돈암동 288-5	애족장	
심정섭 沈廷燮	1910.	경성부 종로구 충신정 63	助成會	77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33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안복산 安福山	1914.05.14.	서울 혜화동 198-2	사회주의 적우회사건	51
		송인면 성북 170-5		
안재홍 安在鴻	1891.12.30.	경기도 평택	청년외교단	127
		돈암동 (납북)	대통령장	
암본정우 岩本正雨	1919.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동	시국담	120
		경성부 돈암정 69-11		
양원길 梁源吉	1920.02.09.	평북 용천군 동상면 입석리 32	징병거부운동	98
		서울 안암정 171-14		
오세덕 吳世憲	1897.11.19.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	철원애국단 의열단	99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	애국장	
오세진 吳世眞	1897.11.19.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7	조선공산당	100
		강화군 간동면 유촌리		
오세창 吳世昌	1864.07.15.	서울	3·1운동	128
		성북동 128	대통령장	
유석복 柳錫福	1924.11.11.	개풍군 흥교면 희문리 336	학생운동 반제운동	120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245-63		
유영민 劉永敏	1912.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705	시국담	89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11-4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유우석 柳惠錫	1899.05.07.	충남 청원	3·1운동	129
		정릉동	애국장	
유진희 俞鎭熙	1893.02.11.	충남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신생활사 사건	50
		경성부 도암동		
이규창 李圭昌	1913.03.28.	서울	주중일국공사 주살	130
		정릉동	독립장	
이근창 李根昌	1916.09.20.	경기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76	단파방송	52
		경성부 성북정 177-25	애족장	
이기석 李基錫	1900.07.20.	경북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신간회 건국동맹	78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22		
이기을 李氣乙	1923.10.04.	함남 북청군 곡후면 하천리 672	학생운동 독서회	101
		서울 안암정181-8		
이길용 李吉用	1899.08.15.	서울 성북동 56	국내항일운동	131
		성북동 (남북)	애국장	
이병우 李秉愚	1893.	서울 팔판정 63번지	조선전시보안령위반	102
		서울 안암정186-28		
이성학 李成學	1911.06.06.	경성부 창신동	경성제대 반제동맹	114
		경성부 송인동		
이완기 李完基	1924.	경성부 수송정 83-6	학생운동	53
		경성부 성북정 133-60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포상 가능성 높음	
이용상 李龍商	1908.04.18.	경성부 다옥정 51	강제동원체제 비판	79
		경성부 돈암정 153-14		

이원록 李陸史	1904.04.04.	경북 안동	대구조선은행투탄	132
		종암동	애국장	
이재성 李在成	1883.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3·1운동	103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이정용 李正用	1919.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동 619	시국담	80
		경성부 돈암정 69-11		
이종린 李鍾麟	1883.02.12.	충남 서산군	3·1운동 신간회	55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175		
이종암 李鍾嚴	1896.	대구	의열단	133
		종암동 (부인 서희안이 거주)	독립장	
이현우 李鉉雨	1916.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133	경성콤그룹	81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94-8		
임규 林圭	1867.09.23.	전북 익산	3·1운동	135
		성북동	애국장	
장건상 張建相	1882.12.19.	부산	임시정부	136
		정릉동	대통령장	
장동옥 張同玉	미상	미상	무산자동맹회	114
		성북동 191		
장익민 張益敏	1911.01.09.	평북 용천 북증 원송 28	신의주고보 학생운동	82
		경성부 돈암동 164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전명선 全明善	1897.08.15.	경성부 돈암정 170	국가총동원법 위반	121
		경성부 창신동 696-1		

정만산 鄭萬山	1886.08.17.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	3·1운동	110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	대통령표창	
정정화 鄭靖和	1890.08.03.	충남 연기	중국방면 항일운동	138
		돈암동	애족장	
정종진 鄭鍾震	1896.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994	체제저항	122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정진숙 鄭鎭肅	1910	충남 천안 군북면 운곡리 284	시국담	56
		동대문구 성북정 177-40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정태식 鄭泰植	1911.09.08.	충북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386	적색노동조합	57
		경성부 성북리 184-32		
조병호 趙秉浩	1906.	전남 영암군 신북면 아산리	제2차 학생시위운동사건	115
		고양군 송인면 성북동 160	독립유공자 추천대상	
조성훈 趙誠勳	1923.09.02.	경북 상주 낙동 상촌 868	국내항일	83
		경성부 돈암정 401		
조소앙 趙素昂	1887.04.10.	경기도 양주	임시정부	139
		돈암동 (납북)	대한민국장	
주영복 朱永福	1923.04.06.	경북 대구부 동성정 2정목 40	사회주의 경성콤그룹	90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533-1		
최경옥 崔慶玉	1914.8.10.	서울 종로구 종로6정목 12	조공재건 적색노동조합	104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112-17		
최두선 崔斗善	1894.11.01.	서울 수은 6	흥업구락부사건	58
		서울 성북 177-30		

최승우 崔昇宇	1915.12.17.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228	의열투쟁	105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228	애족장	
최용덕 崔用德	1898.11.02.	서울 성북동 265	광복군	59
			독립장	
최익환 崔益煥	1889.02.12.	충남 홍성	대동단	142
		성북동, 돈암동	애국장	
최차옥 崔次玉	1914.09.11.	함남 홍원 주익 남단 23	선내공작사건	60
		고양군 송인면 성북 88		
편강청덕 片江淸德	1897.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죽리 73	시국담	84
		경성부 돈암정 92번지		
피한봉 皮漢奉	1884.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164	3·1운동	106
		고양군 송인면 안암동 164	애족장	
한순기 韓順基	1908.07.06.	충북 충주 산천 송강	체제저항	115
		서울 성북 185		
한용운 韓龍雲	1879.08.29.	충남 홍성	3·1운동	143
		성북동	대한민국장	
한홍택 韓洪澤	1916.	경기 수원 수원면 남창리 223	반제동맹사건	107
		송인면 안암리 117		
현학손 玄學孫	1908.07.06.	충북 충주 산천 송강1 246	시국담	61
		성북정 185-2		
홍기문 洪起文	1903.09.23.	충남 괴산군 괴산면 재월리	신간회	108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 122		

VIII. 성북구의 인명별 독립운동가 표

홍석표 洪石杓		충남 대전부 유천면 탄방리 404	사회주의	85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 458-7		
황금수 黃今洙	1915.	송인면 안암리 122	조선레포트회의사건	109
		송인면 안암리 122		
황응선 (黃應善)	1894	전남 무안군 비금면 신원리 578번지	체제저항	122
		송인면 정릉리		

